



왜! 건축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Why should architects be united?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있다.

지금 이 시대의 회원들의 결정이 건축사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고 건축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것이다. 물론 당장 무엇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지금 우리의 마당을 하나로 크게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은 힘차게 그 마당에 모여 큰 힘으로 건축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가 된 뜻과 하나로 뭉친 힘의 위력은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가속도를 내기 위해 발진만 할 뿐이다. 역사의 전환기에 건축사 선배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마음껏 뛰 놀 수 있는 마당을 넓혀놓았다고 얘기하자.

역사는 예측하기 어렵다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진실을 배우고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문 신라의 삼국통일은 만주별판을 합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금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지만 1000년 동안 고려와 조선의 한반도 문화를 꽂피울 수 있었다.

불과 800년 전 일이지만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던 태무진이 작은 부족장으로 만족하고 아무 뜻이 없었다면 근 200년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일한 죄강, 최대의 몽고제국과 칭기즈 칸은 없었을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전락하여 인구 300만도 안 되는 빙국이 되어 있지만 몽고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위대하다 할 것이다.

중국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BC221) 진시황은 중국역사에 횡기적인 업적을 남겼으나 통일에 이은 내치에 실패함으로써 불과 15년 만에 와해되어버렸다. 다시 항우와 유방의 숙명적인 대결 끝에 한나라로 통일되어 전후 400년 한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통일 자체보다 통일 후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회전체가 통합의 시대인 것 같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통합추진을 선언하고 있고 KT와 KTF가 합병하듯이 M&A를 통해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려하고 있다.

정부조직도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일워화시키고 있는데 이미 전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고 지금은 해양분야까지 통합되어 국토해양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전문단체는 그동안 경쟁적으로 분화발전의 과정을 거쳐 왔다. 건축학회도 각 전문위원회들이 확대 발전되어 소학회들이 속속 창립되었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축학회라는 큰 조직을 전제로 하여 효율적인 분화활동이라 생각할 수 있다.

건축창작실무단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조직인 UIA와 미국조직인 AIA, 유럽조직인 ACE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토해양부 등록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한국건축가협회'로 양분되어 활동해 왔다. 게다가 근 10년 전에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분화된 '새건축사협의회' 까지 삼분되어 버렸으니 그 협회의 주축을 이루는 건축사들의 목소리는 분열 될 수밖에 없고 힘은 오히려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저마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유사활동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정부나 국민들에게 통일된 이미지 전달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기도 하였다. 우리 건축사협회는 전국조직을 갖고 있고 최다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지분이 1/3 내지 1/10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



최영집 / Choi,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국가보훈처 삼익위원
서울특별시 심의위원

미래는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역사는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분열과 통합,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밀려오는 파도를 타자!

었고 점점 더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건축사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3년 전부터 단체통합추진을 선언하고 협의해 왔으며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올해 안에 통합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마지막 일정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통합의 대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1. 우리의 후배들은 이미 UIA 권고규정에 맞추어 2002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로 입학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곧 새 자격시험기준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통일된 마당과 일원화 된 가치를 제공해야 할 사명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을까?
2. 국제적으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로서 국가 간의 협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데, 한 나라에서 두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 않은가.
3. 건축사 관련법과 제도가 시시각각 도전을 받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집단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과 전문가 양성의 차원에서 건축계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합일된 힘과 목소리로 호소한다 해도 도전세력과 대적하기 벅찬 데 삼분오열되어서야 될 것인가.
4. 건축문화시대의 주역으로서 건축사의 중요 이미지와 가치를 일원화하여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때 더 이상 통합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5. 건축창작 실무단체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자격시험과정을 거쳐 취득한 건축사자격의 올바른 사회인식을 위해 일원화 된 활동을 해야 하며 건축사 위상을 재정립하여 고양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6. 법정단체로서 아주해오던 타성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사협회의 약점을 일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며 혁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므로 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아 정부차원의 업무를 전문가답게 위임받을 수 있는 불을 구축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면을 전환시켜야지 무조건 울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새 건축사법에 건축사등록원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이대로 구경만 하다가는 협회의 존재의미나 존속기반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 불파구를 찾아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7. 실력 있는 사람보다 실력 있게 보이는 사람이 큰일을 한다고 한다. 우리 협회도 변화의 주역이 되어 능력 있게 보이도록 신뢰감이 넘치도록 신장개업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자.

건축사들의 교회가 있다고 치자. 선배들이 온갖 고생을 다하여 성전을 건립하였는데 새 교인들이 를 말듯이 들어와 교세가 번성하는 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주장하며 진입을 방해하고 배척하여 교세확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몰락하고 말 것이고 초기 기여도가 큰 선배들은 그 응절함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지탄받을 것이다.

오로지 미래만 생각하자.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또 건축이 관련되는 어느 부처라도 당당하게 건축을 위해 주장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건축문화를 꽂피울 수 있는 새로운 마당 신천지를 만들어 보자. 우리는 시작만 할 뿐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뒷은 후배들이 할 일이다. 무엇이 건축과 건축사를 위하는 길인가 잘 생각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자.

지난 집행부에서 2년간 단체협상을 하느라 공식, 비공식 합쳐 100여 차례나 만나 합의를 이루어냈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생 끝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올해 2월 25일 정기총회 시 통합정관이 가결되었으니 통합문제는 이미 승인이 되고 결의된 것이다. 전 회원의 뜻이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공식화해야 할 일이다. 통합이행규정도 그런 대의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이사회 때 전 집행부가 합의해 놓은 내용 그대로 가결하였다.

그 후 굳이 바뀐 것이 있다면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지원받고 활동해오던 건축의 영역을 통합협회가 계승하기 위하여 정관1조에 문화예술 진흥법을 언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수정하여 포괄적이며 융통성을 갖게 수정한 것만 달라졌고 일정을 좀 늦출 수밖에 없어 조정하는 일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동안 회원합의절차가 없었다느니 총회가 결내용과 달라졌으니 무효 또는 실효가 되었다느니 또 이행규정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결의된 통합정신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일부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협회 근 50년 역사를 돌아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 나무만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협회가 그런 복적으로 양부처 또는 다부처 등록을 국내최초로 실현시키고 8,000명 단체에서 12,000명 정도의 건축사 회원을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건축사들의 단체가 될 때 그동안 어느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느냐가 무슨 큰 의미를 갖는가. 건축사가 주역인데 건축사에게 해로운 일을 벌이겠는가. 건축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건축관련 교수나 비건축사인 전문가를 일부 회원으로 영입한다고 해서 건축사의 정체성이 사라지겠는가.

가문이 흘륭하고 가세가 번성해야 힘이 된다. 보다 큰 도량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협회는 회원에 의해 활동하는 전문가단체이다. 역사발전, 건축발전, 건축사발전을 위해 협회의 새 장을 열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가자. 그래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실력이 아무리 좋고 시험을 아무리 잘 보아도 마감 시간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왜 그리 통합일정을 서두르느냐고 한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6월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연내로 이루고자하는 것이고 회원합의를 위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순회간담회, 순회공청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면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라는 배의 선장으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면 협회를 위해 멀리보고 높이 보고 항로를 개척하고 지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회장을 시키는 것이다.

회장의 판단은 그 변화를 통한 발전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양부처 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직간접적으로 격려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기에 사소한 것을 빌미로 하여 대세를 그르친다면 그 잘못으로 인해 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회장은 회원의 뜻이 아니라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회장의 뜻은 회원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은 높이 날아 멀리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최선의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여 회원들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고 회원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건축사와 건축사협회가 거듭나며 살아나가야 할 길은 이 일부터 성사되어야 가능하다는 시대적 상황이 절실하기에 회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회장이 잘못 판단하는 일이라고 회원들이 부정한다면 회장은 진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선장은 선원의 각 역할을 바탕으로 배를 이끌어나가지만 선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배를 운항할 수는 없다. 선장의 전문적 역량을 믿고 선장으로 추대한 것이니까 선장의 역할을 존중해줄 때 배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회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 중차대한 결정을 우리 건축사협회가 의연히 주도하여 건축사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

건축사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Architect

건축사는 건축설계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보장한 국가자격이다.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이 관련분야 업무에서 등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기술자격인 것과는 달리 건축사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처럼 특정한 업무의 독점적 수행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자격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의 속내를 살펴볼라 치면 사정이 그리 편치 않다.

우선은 건축사의 도시 관련 설계업무 수행 기회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를 꼽아야 한다. 최근 도시공간에 대한 세심한 '디자인'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관설계, 환경디자인 등 공간환경 디자인업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설계(urban design)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설계업무가 엔지니어링업무 발주기준에 따라 발주되면서 건축사 참여가 봉쇄된 채 사설상 기술사의 고유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경설계 등 다른 분야의 반발도 적지 않다. '건축설계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분야도 넘보는가', '그렇다면 건축설계도 다른 분야에 열어라' 등, 자칫 밥그릇 싸움이 되기 십상이다.

'도시설계는 원래 건축 영역이니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식의 주장으로는 밥그릇 다툼으로 가기 십상이다. 핵심은 '설계 질'이다. 보다 효과적인 설계 질 경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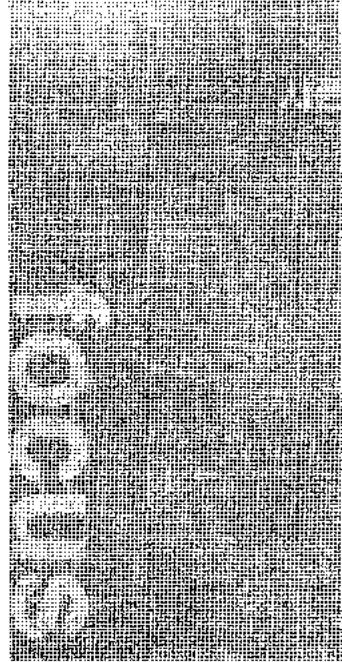
건축사의 지위를 끌사납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건축설계 발주방식에 있다. 전체 공공건축설계 중 일부가 설계경기로 발주될 뿐 대부분은 PQ 및 가격입찰인 것이 현실이다.

설계 발주방식은 법률로 규정된다. 따라서 건축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설계가 갖는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설계를 설계경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는 건축설계의 위상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법조항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일한 법조항이기도 하다.

공공발주에 관한 최고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모든 입찰에 '일반가격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영42조) 지식기반사업에 한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영43조). 이 법조항에서 엔지니어링기술용역과 산업디자인은 지식기반사업에 속하지만 건축설계는 속하지 않는다. 건축설계는 일반 용역업과 동일하게 '가격경쟁'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는 건축사들 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건축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고 수준 높게 해내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 건축사 역할의 범위와 절차가 법률로 규정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건축사 업무를 왜곡하는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원활할 리 없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확보될 리 없다. 법으로 보장된 지위에 만족하여 역할을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에 묶여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것도 문제다.

건축과 공간환경 설계업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변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사 업무의 법적 지위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



박인석 / Park, In-seok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

FOCUS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We will make your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전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구호다.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 못 지않게 오랜 동안 온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고 지금도 자주 등장하는 이 구호는 어떤 마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잘 될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확신 등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다.

건축사는 의뢰인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스스로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림 같은 작은 주택에서부터 국토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건축사가 먼저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미래에 세워질 건축물에 대한 기대로, 관계된 모든 이들은 꿈을꾼다. 주택, 아파트, 고층건물, 공장, 쇼핑몰 등등. 새집을 짓고 그곳에 살 사람, 새집을 지어 팔 사람, 새집을 지어 제품을 생산할 사람들 모두가 꿈을 꾸고 있다. 그들의 꿈을 건축사가 현실로 그려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사에게 현실은 꿈이 아니다. 우리 건축사에게서 꿈은 한낱 사치품이 되어 버렸다. 꿈을 잃어버린 건축사, 날개 잃은 새가 아닌가.

이 땅에서 건축사란 어떤 존재인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평균건축사’라는 건축문화신문의 기사를 읽었다. 건축사의 40%가 대학원을 나온 석사, 박사이고 84%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부채를지고 있으며, 또한 45%의 건축사가 연간 1억원 이하의 수주를 하고 있다는 참담한 내용이다. 이미 느끼고 있는 내용이나 건축사 아닌 남이 불까봐 낮이 붉어지는 기분이다. 특히나 젊은 대학생 후배들, 남들보다 1년씩이나 더 긴 5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예비건축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을 잃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나. 그것은 건축을 경제논리로, 부동산으로만 보려는 저급한 문화 환경과 대형자본의 개발주도로 인한 설계분야의 종속화, 터키, BTU 등 개발변의를 위한 프로젝트의 대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외적인 이유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외적인 요인 외에 우리건축사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지는 않았을까.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업역인 도시계획, 인테리어, 조경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의 감리까지 모두 내어주고 시공사에게 설계권마저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협력하는 하나이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대형사무소와 소규모사무소, 작품 한다는 아뜨리에와 허가방, 서울과 지방, 그리고 건축계를 대변한다는 협회조차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었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요, 디자인이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시대의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건축사가 아니겠는가. 한 목소리로 이 디자인 시대를 선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같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시대의 건축문화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 암담해 질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로, 대다수의 건축사사무소들은 대형사무소의 외주업체로 건축사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역업자로 지칭될 것이다. 그나마 간직한 자긍심마저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건축사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와칠 수 있을까?

우리는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



이용우 / Lee, Yong-woo KIRA
칸·도시 건축사사무소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
- 건축대전 초대작가
-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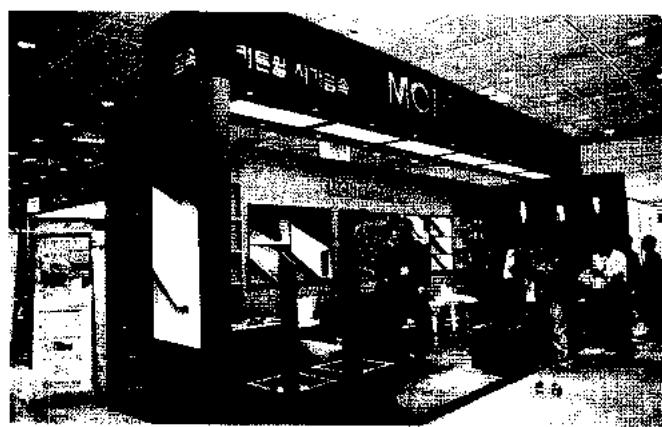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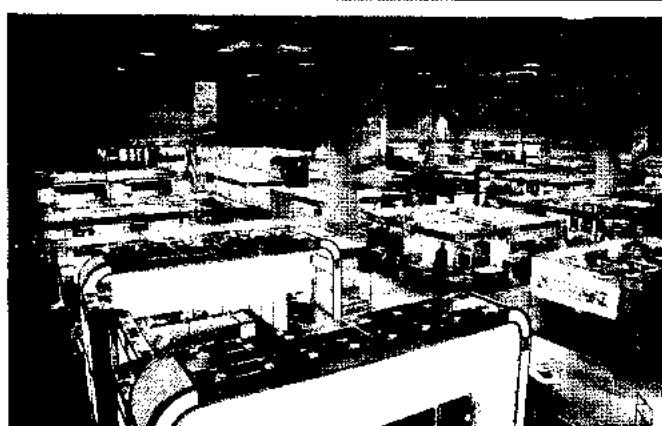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친환경건축 산업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 성료

녹색성장의 기수, 친환경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전문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이하 KAFF 2009)’이 삼성동 코엑스에서 10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5일간 성대하게 치러졌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건축전문전시회를 운영하는 (주)이상네트웍스와 (주)운송신문사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내 유

일의 부동산 전문방송인 한국경제TV가 주관방송사로 함께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약 100여 업체 282부스 규모로 일차개회 개최돼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로 평가됐다.

제로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그린정책'에 발맞추어 국내 최초로 준공된 '제로에너지하우스'와 에코시티를 구현한 '제로혁명관'을 구성해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과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건축기



1. 개막 캐팅식

3. 전경

5. 시가형상금속 홍보관

2. 전시회 설명을 듣는 내빈들

4. 제로혁명 주제관

6.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틸 홍보관

술의 구체적인 실현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차별화된 행사로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교육'이 전국 1만여명의 대학건축협회 등록 건축사와 건축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홍천, 살둔마을에서 친환경주택을 직접 시공해 생활하는 이대철 씨의 특별 세미나 등 건축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 등이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도 관람객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 한국건축산업대상(국토해양부 장관상) 시상, 한국농어촌건축대전, 전국건축사미술전, 서울건축사회 CIM연구회,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한국내화자재협회의 특별강연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친환경건축 특별포럼 및 한국경제TV의 부동산포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세미나가 마련돼 관련 업계 전문가를 위한 폭넓은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랍장, 선반, 스톤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체험행사와 실제 크기의 1:10 축소모형 블럭을 통한 '바우미 신나는 건축체험학교', 한국장애인편의시설협의회의 무장애체험관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과 환경재단, 해비타트 홍보관 등이 마련돼 전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을 위한 즐거운 체험 기회와 폭넓은 건축정보를 제공했다.

KAFF 2009는 매년 우수기업 참가와 일찬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벌써 내년 전시회를 기약하는업체와 관람객의 호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 전시회임을 증명했다.



7. 부대세미나_선경

10. 한국농어촌건축대전

13. 바우미 건축체험학교

8. 부대세미나_친환경 건축포럼

11. 무장애공간을 체험중인 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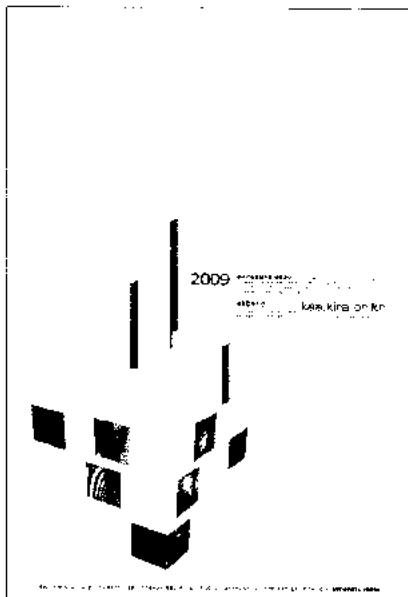
9. 전국건축사미술전

12. 한국DIY·구공방협회의 내손으로 만드는 DIY 체험관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KAA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9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서울남산국악당', '부띠끄 모나코', '반포 577' 설계자와 '은평뉴타운 현대 IPARK' 시공자가 선정됐다.

아울러 국무총리상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복합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진운현' 설계자와 '환경부 녹양 휴먼시아' 사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들은 주변이나 도시의 컨텍스트의 조화, 도시와 사회에 대한 공공성 및 기여도, 디자인의 독창성, 시공의 완성도, 건축의 이해도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서울남산국악당'은 국악당에 대한 사대적 요구를 부지의 장소성·설계·건축기법과 재료 및 채색에 이르기까지 전통건축기술을 채용하여 단아하고, 순박한 건축미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부띠끄 모나코'는 상업건축에서 만연한 천편일률적이고 익명화된 도시상권 구조에 건축적 정체성을 부여했고, 건축사의 창의적 설계안을 수용한 건축주의 용기와 원벽시공에 도전하는 꼼꼼한 건설사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태평내동 복합문화设施을 제작한 '재탄생시키며 기존 건축물의 활용해 장소성을 잘 살린 배치와 건축구조'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유성문·권지훈·최재영(충북대학교 건축학과)씨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사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다음 4명의 개인과 기관이 선정됐다. 김정식(한국문화재청장), 김경식(한국건축사협회장), 이시장(한국건축문화재단 이사장), 국토해양부장관상은 이종상(前 한국토지공시 사장), 조원봉(前 대한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수여됐다. 이울러 공로상은 이종상(前 한국토지공시 사장), 조원봉(前 대한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수상작을 기증한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상은 이종상(前 한국토지공시 사장), 조원봉(前 대한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수여됐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은 준공건축물부문 137점, 계획건축물부문 527점 등 총 664점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작품 수는 1,000여점에 달했다. 시상식은 10월 5일(월)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상작은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전시됐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관·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시상행사로 발전.

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혁신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기종시, 학경교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 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본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청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법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현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출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팅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문당차병원 생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팔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리트, 신내지구 95지 아파트, 수원아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대상	본상	우수상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택,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마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디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월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웅인 삼성생명 노블기온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인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문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안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애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웅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자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Ⅲ	대치 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 777 보안보딩, 옥계 휴개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술빛마을은 남쪽마을... 오름- 북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 통신대학교 기숙사	-
제16회 (2007년)	덕평자연휴게소, 파주용진생크비사옥, The 스타시티, 배 재대학교 국제연어생활관	대룡중학교, 논현동 의회빌딩, 용산 퍼프자이, 양의재	원도군 수협풀어 종합운동센터 외 24동
제17회 (2008년)	승실대학교 조만식 기념관&웨스트민 스터튼, 이암식 오 창공장, 김포 수기 마을 힐스테이트, 동백 아빌바움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관악산 후면시아, 루트 하우스	단원아이린이서관 외 13개 풍

준공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작품공고공고 : 2008. 3.16 ~ 6. 5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8까지 ↗ kaa.kira.or.kr
- 접수 : 6.11 ~ 6.12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심사 :
 - 1차사진접심사 : 6. 20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7. 1~7. 3(지방), 7. 7~7. 9(수도권)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10
- 시상식 : 10. 5 14:00 / 건설회관 대회의실
- 수상작 전시 : 10. 5~9 / 장소 : 건설회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7년 5월 1일부터 2009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응모 불가함.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 ※ 정부포상사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개요 및 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A4규격의 사진첩 1부(소정의 양식 없음)
 - A4포트폴리오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건축물대장(표제부, 현황도 포함) 1부
-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심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사진접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본상·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황일인(주. 일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 위원장
 강철구(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대표)
 김영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신동철(경원대학교 교수)
 이창섭(주. 장원포스텍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양순(건축사사무소 창건축 대표)

최태삼(대한건설협회 기술지원본부장)

최두남(서울대학교 교수)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상 (4점)	사회·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해양부장관상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본상, 우수상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大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서울남산국악당 / 김용미(주.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부토건(주) / 서울특별시청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부띠끄 모나코 / 박기수(주. 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 지에스건설(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 / 정영균(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 신업개발(주) / 에스에이치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반포 577 / 이성관(주.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이성난 / 이성관
 ※ 작품명 반포 577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 本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 신창훈(운생동 건축사사무소. 주) / 주식회사 대도개발 / 서울특별시청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금호아시아나 본관 / 한종률(주.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금호산업(주) / 금호사옥 주식회사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 김현호(주.다이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서희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집운현 / 황두진(주.황두진 건축사사무소) / 장학건설(주) / 김유준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BTL / 김태집(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제주특별자치도청
- 지앤 아트 스페이스 / 조성룡(주.건축사사무소 조성용도시건축) / 케이알종합건설(주) / (주)지앤
-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작마을 / 신춘규(주.건축사사무소 씨지에스) / 강산건설(주) / 청강문화산업대학
- 수원화성박물관 / 김진구(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케이

씨씨건설 / 수원시청

- 오산시 중앙도서관 / 박영택(에이큐브 건축사사무소) / 삼대건설(주) / 오산시청
- 서울시 서천연수원 / 한종률(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한화건설 / 서울특별시청
- 카페오파 / 임재용건축사사무소OCA / 대왕종합건설 주식회사 / 정홍재
- 퍼시스 서울 본사 / 김석주(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 (주)퍼시스
- 구미 옥계 현진에버빌 엠파이어 / 경영균(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현진 / (주)현진에버빌
- 동탄 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 전영성(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월드건설(주) / (주)반도건설
- 용인 사랑의 집 / 서영철(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 브라운건설 주식회사 / (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심사 종평

한국 건축문화대상은 금년으로 18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0여점의 좋은 건축물을 찾아내어 시상함으로써 이들 건축물을 이루어내기 위해 뛰어나 창의력과 정열을 바쳐 동참해온 분들을 격려해 왔고, 또한 건축이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총체적 문화 행위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응모작품수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된 137점에 달해 행사관계자들은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금년처럼 응모작이 많은 가운데서 당당히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사과정은 예년과 같이 시행위원회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 1차 예비심사에서 32점을 선정하였고, 6일간 전국을 돌며 현장 심사과정을 가졌습니다. 기坦없는 토의를 거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분야별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대상과 본상작품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를 시작하면서 그 기준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대지나 주변 컨텍스트에 대한 부합여부 / 디자인의 창의성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 도시나 사회에 대한 공공성 / 환경친화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 시공의 완성도 등이 있습니다.

심사의 전 과정을 통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으나 민간부분에서만은 치열한 토의 끝에 최종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전통건축공간과 그 기법을 살려내어 이를 시대적 요구에 부응, 발전시킨 두 작품이 많은 심사위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고밀도 집합주택들의 생활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잘 짜여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 은평 뉴타운은 집합주거단지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제도시개념에서부터 지구별 주거 유형에 이르기까지 발주처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의 큰 수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몇몇 대형 공공건축물은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낭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으로 수상대상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바와 같이 한국문화대상은 당해 연도의 건축적 성취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 시상됩니다. 그래서 응모작이 많았던 올해는 특히 애석하게 수상하지 못한 작품이 많이 있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설계자의 크레디트에 대한 정의, 외국 건축가에 대한 수상자격 여부, 다른 상과의 중복 응모문제, 응모작의 국제화 등에 대해서도 거론한 바 있었습니다만 더 적절한 기구에서 논의 되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장차 권위 있는 국제적 건축상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심사일정과 과정은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주최 측 관계자, 행사를 준비해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별 심사명은 신동철 위원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황일인**

■ 사회공공부문_서울남산국악당



전통 목조 가옥들로 이루어진 한옥마을 가운데 들어선 공연시설이며, 출품작 가운데 그의 유일하게 본격적 전통 건축으로 지어졌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상대적으로

볼륨이 큰 공연 관련 시설은 지하에 두고 최소한의 기능만 지상에 남겨서 지상부의 규모를 줄이고, 적절한 옥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접한 한옥마을이나 대지 북측의 기존 놀이마당, 또 남산의 지세와도 잘 어울려 균형된 전통 공간으로 조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매표 및 관리실이 문간체가 되고 공연장 입구동과 국악 체험실로 바탕을 둘러싸 모자형으로 배치된 지상부는 전통적인 목구조 건축물이고 지하 공연장의 내부 바깥역시 지상부 복구조양식에 맞추어 일관된

전통기법으로 세세하게 다듬어져 있다.

공연장 입구동에서 연결된 지하도비는 외부에 선큰가든을 계획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고, 특히 정원의 벽면을 전통적인 조경 기법인 화계(花階)로 꾸며 로비의 분의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공연장은 무대와 좌석의 거리가 최대 10M정도이다. 객석 어디서나 관객이 공연자의 표정이나 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울리는 국악 공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규모로 평가되었다. 또한 창호지를 바른 전통창살부의 창호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조명이나 음향 조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처리한 점도 돋보였다. 지방 자치가 시행된 이후 공공건물의 규모가 지나치게 대형화되어 공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유지 관리비를 증대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에 반해 본 국악원의 경우 주변상황과 용도에 알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서울시 당국도 공공 건축물의 역할과 의미를 살려내는데 이바지한 훌륭한 건축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 민간부문_부띠끄 모나코



부띠끄 모나코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길들어진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반네리즘에서 벗어나 독특한 건물 시스템을 개발해 내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례이다. 이 건물은 격자형 도시 가로에 면한 부지외곽을 따라 L자형으로 배치되고 내부에 중정을 가진 대형 복합 시설이다.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4.4m x 4.4m 모듈의 상부구조는 저층부의 3개 층으로 구성된 트랜스퍼 트러스를 통해 1층 필로티 기둥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구조방법은 그대로 디자인 요소로 표현되어, 독특한 건축의 인상을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층부 곳곳에 4~5개 층

높이의 개구부를 뚫어 채광·환기를 할 수 있는 외피 면적을 늘리고 이곳에 공중정원을 만들어 고층부까지 녹지체계를 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공간들을 형성함으로써 전체건물에 개성적인 조형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고층부의 개구부를 이용하여 총 170여 유닛의 오피스텔을 50여 종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하므로 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게 한 것은 획기적인 시도로 높이 평가 되었다. 1층의 중정은 저층부 상업시설과 도시와의 연결을 매개하여 건물에 활기를 주며 다양한 용도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로와 정원의 경계석, 중정에 설치된 지하공간을 위한 채광장, 저층부 상업공간의 인테리어 등 내·외부 디자인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공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건물의 모든 부분에서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한 것은 전술한 공중정원과 함께 이 건물의 환경친화성을 들키 있게 해준다.

■ 공동주거부문_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



은평 뉴타운은 길을 왕십리 지역과 함께 서울시가 처음 시작한 뉴타운 사업의 하나이다. 전체지역은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진관근린공원

을 감싸고 있는 타원형 고리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 아이파크는 진관근린공원 북쪽 끝짜기의 못자리골 생태습지로부터 창릉천으로 이어지는 생태녹지 부근의 7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전체를 연결해주는 주도로인 생활가로를 위시한 주요 도로변에는 중정형 주봉을 배치하여 가로의 파사드를 만들고 구릉지에는 탑상형과 판상형 주봉을 혼합 배치하여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주거단위의 조합,

지하주차에 의한 지상녹지 및 보행공간확보, 주변 자연생태의 보존 등 주거지의 기본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주동의 형태 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디테일이나 시공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주 관심사는 도시의 빼대인 생활가로의 기능과 역할이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단지는 이웃단지와의 소통을 차단하여 도시를 섭 같은 구역으로 고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새로 만드는 도시는 이웃 간, 단지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가 일어나고 나눔이 있는 주민의 일상을 담아 도시문화가 생겨나는 장소들을 만들어 가야겠

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전체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로변 주동 저층의 상가시설과 폴토네이드형 보행로, 주거동의 입구처리, 가로보서리의 코너형 특화주동 등으로 차별화된 생활가로에서 느껴지는 활력은 그려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 건축, 조경 전문가들로 마스터 아키텍트팀을 구성하여 전체도시의 개념을 만들고 지구별 주거유형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면밀하게 준비해온 결과라고 본다. 전체도시가 완성될 때 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 일반주거부문_반포 577



작품명 '반포 577'이 암시하듯 부지는 서초구 반포동 577-18번지의 약막한 야산의 북사면 끝자락의 등산로 입구에 남겨진 157m밖에 되지 않는 세모진 자투리땅이다. 부지의 형태와 건축법의 제한, 주변 기준 연립주택이나 산책로 같은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 등 어려운 과제들을 턱월하게 풀어낸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건축의 기본 틀은 도시형 한옥에서와 같이 건물의 외곽은 막고 내부

를 비워내어 빛, 바람 등 건축 환경을 자족적으로 확보하는 L자형 내향 구조이다. 1층은 공동 생활공간, 2~4층은 개인 생활공간이다.

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사진 벽, 벽과 지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재치 있는 구성, 시각 확보를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개구부의 위치, 질감과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에서 건축가의 성숙된 솜씨를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장재들의 패턴, 벽가구, 계단, 창틀 디자인 등 모든 디테일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있어 건물규모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채롭고 풍요로운 공간 체험을 하게 한다.

주택이 본질적으로 매우 사적인 건축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건축가에 대한 건축주의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관계가 될 때 건축가의 역량이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본 장

문화·환경·건축·설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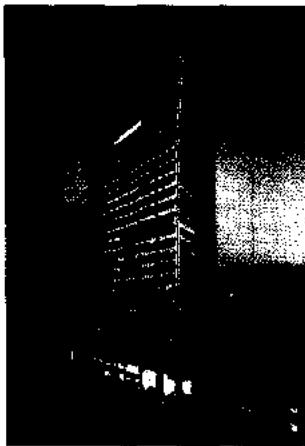
■ 사회공공부문_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그간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의 집은 꾸준히 개선 되어왔다. 대학의 경우 교육환경의 우열이 입시생들의 학교선택, 나아가 학교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생각되어 고무적이다.

이 건물은 서울시립대학의 법학관, 종합강의동, 체육관을 수용하는 복합시설로써, 대 공간 시설인 실내테니스장을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 모듈을 가지 법학관과 강의동 건물이 'L'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성이다. 두 건물사이에 틈을 두어 출입동선과 채광, 통풍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테니스장의 지붕은 땅에서부터 연속되는 대형 데크로써 법학동의 옥외 마당이 된다. 건물 틈과 병행하여 지층에서 고층부까지 연결되는 주 통로를 설치하여 공간과 기능의 조직을 명확화하고 있다. 실내 테니스 경기장과 종합 강의동의 역동적 외관은 조형적 미감을 넘어서 대학건축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건물 외피의 주재료인 유리벽에는 개구부, 차양시설 등 환경 친화적인 고려가 소홀하고, 테니스장의 일부 채광창은 눈부심 현상을 막는 등 쓰임새에 적합하도록 보완되어야겠다.

■ 민간부문_금호아시아나 본관



이 건물은 임대부분이 전혀 없는
자사전용빌딩이다.

평면은 단순한 편측코아방식의
장방형으로 북쪽 신문로를 정면
으로 하고 있다. 외파를 이루는 유
리 커튼월을 두 가지 대비적인 곡
면으로 구성하여 주변건물과 차별
화하였다. 정면은 수직으로 상승
하는 형태의 불록곡면, 후면은 수
용적 형태인 수평적 오목곡면이
다. 이러한 형태는 신사옥과 함께
도약발전하면서 기업의 전통과 주
변과 환경을 포용하려는 두 가지

의 기업의지를 상징하려는 것 같다.

이 건물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도시 및 시민과의 소통이다.

이 건물은 대지의 60% 이상을 공지로 남겨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접
객 및 상담을 위한 저층부 2개 층의 외벽은 기존층과 구별되는 SGP
광법의 유리판으로 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로비에 휴게공간을 두
어 공개공지와 연결 하였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금호그룹이 보여준 예술아호자 내지
예술지원자의 이미지이다. 국내외의 저명한 도예가, 설치미술가의
작품을 곳곳에 부설하거나 디자인패널로 사용하는 등 건축과 예술
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크게 돋보였다. 특히 후면 엘리베이터 샤프
트 벽에 설치된 LED 갤러리는 첨단 기술과 빛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므로 써 건축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 끌어올린 것도 이 건물의 강점이다.

■ 공동주거부문_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소형 임대 아파트는
저렴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단조롭고 생활환경
이 조악하다는 것이
통념이다. 의정부 녹
양 휴먼시아는 이런
한 고정관념을 깨트

리고 임대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단지는 도시 간선 도로, 녹양천등으로 외파이 구획되어있고 동·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단지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중

앙녹도를 축으로 하는 선형 도시구조로써 이 녹도는 나누어진 두 부
분의 단지를 연결하면서 광역적으로는 동으로 녹양역, 서로는 초등
학교까지 연장되어 이를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통로가
되고 있다. 이 녹도는 단지의 주민「커뮤니티의 중심」으로써 모든 주동
은 이 가로에 편하여 중정형으로 배치되고 저층부에는 상가를 두어
가로에 활기를 주고 있다. 이 중심가로에서 주동으로 연결되는 주요
걸절 점에는 타워형주거동 또는 원형코어를 설치하여 외부공간의 위
계와 장소성을 명확히 하며 조형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가 전면에
는 가벽을 세워 인식성을 높이고 우천 시 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다. 일관성 있게 지켜진 도시구조의 원칙, 풍부한 녹지의 확보 등으로
좋은 주거 환경을 이루어낸 사례이다.

■ 일반주거부문_집운현



가회동 일대 북촌
지역은 기존 한
옥의 기능을 현
대화 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
설로써의 효용을
높이는 보존적
개량 사업이 활
발하게 진행되어

지역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집운현의 경우 한옥이 역사 속에 저장된 공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사
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주목을 끈 데는 국가의 정책
적 지원 분위기도 일조한 것 같다. 평면 형태는 전통적인 노자 형태로
서 안마당을 둘러싼 벽면은 현대적 창호로 개조하고 대청과 부엌을

중심으로 오른 편에 안방과 화장실을 두고 왼 편에 손님방을 두었다.
각종설비는 현대화하였으나 실내외에서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유지
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지하층에 두어 차
고와 작업실로 꾸미고 있으나 차고의 창문과 안방 앞 뒷마루 아래에
설치된 작업실 천정의 좁은 천창으로 겨우 약간의 빛을 얻고 있다. 안
마당에 평상을 설치해서 내부공간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나, 단장을
따라 대나무를 심고 마당에 자갈을 깐 것 등은 좁은 대지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지하부분의 외벽에 사고석을 쌓아 담장처럼 만들어 축대의 느낌을 없
앤 것은 좋으나 집규모에 비해 너무 높아 보이고, 더욱이 축대 모서리
에 설치된 차고문과 문을 둘러싼 디테일은 사고석 담장과 잘 어울리
지 않아 건축적 품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BTL



어진 여러 시설물들이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북측은 아름다운 자연림이 보존되어 있다.
대지이용 계획은 서쪽 진입도로에서부터 진입광장, 박물관, 이벤트

미술관의 대지는 동서로 매우 긴 세장한 형태로 서쪽 면이 진입도로에 접해있고 북측으로 서서히 낮아지는 지형이다. 남측에는 경계선을 따라 이웃 대지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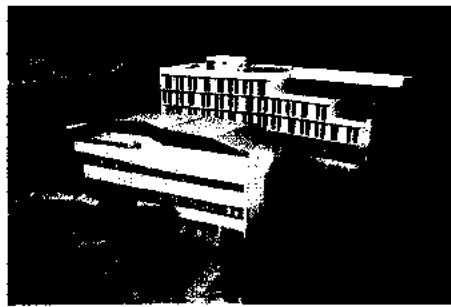
광장을 선형으로 배치하고 관람객의 동선은 북측에, 서비스동선을 남측에 두어 부지 주변 여건에 따르고 있다.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노출 콘크리트의 육면체 상자가 중첩된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다. 그러나 진입부에 반사연못, 가벽 등으로 만든 완충 공간과 현관로비에 설치한 광정들이 외부광장으로부터 전시실까지 장소의 위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고 건물 내·외부를 넘나드는 공간적 변화와 진입부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내·외장 곳곳에 제주 특유의 화산석을 사용하였고, 전시공간들은 간명한 동선체계를 이루며 대형전시물에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필요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마감재의 디테일, 마감수준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작마을



제트이다. 기숙시설, 창작교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다목적 흘 등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 복합시설이다. 기숙사와 교육연구부

캠퍼스 종합계획에 따라 13년 전에 구상했던 계획을 마무리하는 창작마을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모두 담아내면서도 저렴한 공사비로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프로

분 사이에는 중정을 두어 기능을 분리하였고, 창작공간과 다목적 흘을 중심으로 강의 및 연구실 등이 다양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창작공간은 지하에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정과 연결되어 개방적인 건축환경을 유지하면서 상호간 공간적 확장 또는 공유 관계를 가진다.

다목적 흘은 무대가 넓은데다 뒷면에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어 커튼의 개폐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놀랄 만큼 저렴한 공사비(객관적 검정은 되지 않았다)에 맞추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내·외장 많은 부분은 구조를 노출하여 그 자체로 미감이 완성되도록 시도한 점은 높이 살만하나 부분적으로 품질의 완성도가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수원화성박물관



여 박물관을 이용자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관람동선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대한 각종 자료, 전립과정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보존·전시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1층을 관람객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

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화성의 조형과 공간을 간접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심돈, 성벽 등 화성의 건축요소들을 박물관의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다.

화성의 주자재인 전벽돌과 현대적 커튼월을 건축의 주요자재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과 현대를 아우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들이 지나치게 다양한 데다 곳곳에 보이는 마감 디테일의 미흡함, 각종 설비시설의 부적절한 노출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 건축이 역사적 문화유산에 걸맞은 문화적 품위를 갖추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 오산시 중앙도서관



점동적으로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도서관의 개념에서 책과 더불어 즐기는 공간으로 써의 공공도서관을 시도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 디자인은 단순 절제되어 있으나, 외부계단을 상승하는 녹지공간화하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각종의 도서관시설과 연결되는 조경요소들을 설치하여 지층에서 옥상독서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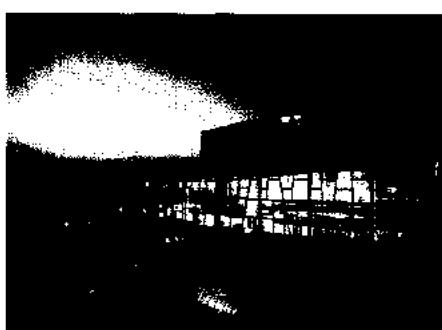
적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내부에는 유리지붕의 아트리움을 설치하고 수직통로인 주계단과 승강기를 드어 전체도서관을 하나의 공간체계로 묶어주며, 실내조경을 더해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특히 어린이 도서실을 전면도로와 쉽게 교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고, '책 읽어주는 방'과 같이 독서 욕구를 자극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3층의 종합정보자료실의 종양서비스카운터도 흥미로운 형태로 만들어 아트리움 쪽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는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실내 마감에 사용한 과도한 구성요소와 장식물들은 절제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서울시 서천연수원



부지의 주요특성인 자연환경, 경관, 지세 등을 잘 고려하여, 요구된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대지 사용 방법이 주목되었다. 진입부에 연수

등과 편의동을 별려놓아 전체시설의 중심을 이루면서 V자형대지 중심부의 습지를 보존하고 서해안을 바라보는 빼어난 경관 축을 유지하고 있다. 편의동을 거쳐서 진입하는

숙박동은 산 쪽과 바다 쪽 2개동으로 나누어진다. 2개동은 모두 등고선을 따라가며 분절함으로써 지형에 순응하고 긴 복도가 주는 심리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다. 숙소나 연수시설의 대강당 모두 바다를 향해 열려 좋은 전망을 확보하고 있고, 모든 시설은 데크 등으로 편리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러나 숙박동은 긴 입면 때문에 언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생태적, 시각적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두 동이 겹쳐서 더욱 장대해보일 바다에서의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

편의동의 현관 갤러리도 잠시 머물며 연수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는 그 규모가 지나쳐 보인다. 전반적으로 소박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점은 평가 할 만하나 장소에 따라 마감의 정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역시 아쉬운 점이다.

■ 카페오라



이 프로젝트는 「바다를 조망하는 찻집」이고 모든 건축적 이슈도 바다로 향한 조망에 맞추어져 있다. 이 건물이 전면 바다 방향으로 약간 벌려 놓은 두개의 주 구조를 가운데

서 이어놓은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내부공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쪽의 바다로 향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부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조그만 야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이다.

전면창의 프레임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데크의 난간 역시 강화유리로 만들어 샤크저 장애를 제거 하였다. 바닥을 제외한 모든 자제는 무채색으로 단순화시키고 수평으로 마감하여 바다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지층은 전체가 주차장이고 카페로 오르는 수직통로에는 천장과 자그만 실내정원을 두어 진입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마감 디테일이나 시공 모두가 꼼꼼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아쉽게도 전면도로에서 카페에 이르는 진입로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삭막해서 개발 노동에 있는 주변 도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제로 남는다.

■ 지 앤 아트 스페이스



백남준 미술관과
유수골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
는 구릉지에, 도드
라자지 않게 땅을
잘라내어 조성한
길과 건물과 마당
에 도예미술을 중
심으로, 만들고 굽

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먹고 쉬고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녹아들어 있는 문화공간이다.

지하레벨을 주 층 미당으로 계획하므로 써 주 동선을 지하로 끌어 내
리고 주변 환경에 거스르지 않은 낮은 톤을 유지하였다. 더불어 자연
스럽게 주변 도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갖는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하층이 노출됨으로써 지하공간에 충분한 빛과 바람이 통
하게 하였다.

지세를 순응하며, 평면, 입면 및 지붕 등 전체적 조형에서 미묘한 형
태적 변화를 줌으로써, 공간적 다양성을 만들어 내어 제공된 장소들
을 탐색하는 재미를 주고 있다. 악간 거친 듯 한 노출 콘크리트의 시
공이 오히려 소박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피시스 서울 본사



백제고분로와 접해 역사미관자
구의 건축선 제약을 받는 중규모
의 전용사무소이다.

쇼룸, 상담실 등 고객용으로 사
용하는 저층부 2개 층과 상층부
사무동사이에 2개 층을 비워 옥
외 공용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자칫 평범할 수도 있었을 건물이 차
별화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공중정원은 고객 또는 직원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실용적 이점
외에 이를 갖춤으로써 건물이 주
변도시와 소통하고 지역의 아이

콘이 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얻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공중정원이 갖는 개념상
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구부를 만드는 구조방법이 지나치게 평범
하여건축적 감흥을 줄이고 있다.

평평한 마룻바닥으로 되어있는 강당은 본사건물이라는 특성상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공간이며 탄탄한 디테일과 효율적 코아
구성, 수준 높은 완성도로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건축물이다.

■ 동탄 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동탄 신도시는 인
구밀도가 낮고 녹
지율이 높아 드물
게 쾌적한 생활환
경을 갖춘 지역 중
하나이다.

단지 중심은 고층
타워형, 도로변은
중층 판상형으로
배치하여 외곽으로
부터 단지 내부로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동선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유도하여 지
상부의 환경유지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건폐율이 13%에 못 미치는 이 집합주거 단지의 넓은 옥외 공간은 생
활환경을 편리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외부공간에는 두 진입로에서 접속되는 단지 중앙부의 광장으로부터
보행으로 연결되는 6곳의 마당을 만들고 각 마당에 특색을 두어 장소
별 인식성을 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마당을 이루는 주동의 배치에서 보여주는 특성이나 마당 간의
위계가 잘 느껴지지 않고, 각 주동의 현관부분은 인식성이 분명치 않
고 건축물의 규모에 상응하는 크기나 공간의 정형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 구미 옥계 현진 애버빌엠파이어



구미 옥계의 구릉지에 위치한 현진 애버빌 앤파이어는 지방도시의 집합주택으로 써는 비교적 고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1개 주동의 높이를 18개 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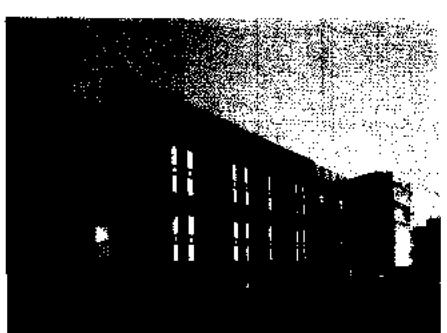
37개 층까지 달리하여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전체적으로 좋은 조망과 원활한 채광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배치한 점이 훌륭하였다.

단지전체에 걸쳐 보차분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차량은 외주

변으로 유도하고 단지 중심부에 늘서방향의 중심녹지축을 형성하여 조경, 산책 및 휴식공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단지 어디서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녹지축의 중심부에는 원형으로 선큰 놀이터「커뮤니티 광장」을 만들고 광장 주변에 주민자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지하공간에 활용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보듯이 단지 내 거주민 외에는 거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주동의 외관형태는 삼부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층부에는 석재로 마감하여 조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고급주거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최상부는 팬트하우스로 꾸며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실내 디테일이 멀다듬어지고 주거공간으로의 짜임새 역시 떨어지고 있다.

■ 용인 사랑의 집



용인 사랑의 집은 건축적 성과보다 건축주의 의도를 높이 사고 격려하는 의미로 시상이 결정되었다. “건축주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우리 모두의 책임감을 나누는데 취지를 같아했다”고 한다. 그

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이루어낸 뜻 깊은 건축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낭비현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어낸 관계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복지주거시설이 혁신시설로 취급되어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고 쉽게 설득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북카페, 도서관,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된 복지동은 주민에게 헌납하고 겨우 주거동을 짓는 허락을 받아낸 듯 한 소극적인 자세의 건축가나 행정당국의 처사는 매우 아쉽다. 하루빨리 주거동과 복지동이 편하게 연결되고 종정을 통해 따뜻한 만남이 일어나도록 하는 후속적 노력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계획건축물 부문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2009. 3. 16 ~ 6. 5

- 접수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1차 작품접수 : 2009. 6. 11 ~ 6. 12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폐널 및 모형접수 : 7. 13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6. 15

• 2차 폐널 및 모형심사 : 7. 13

• 3차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 7. 16

• 시상식 : 10. 5 14:00 / 건설회관 대회의실

• 수상작 전시 : 10. 5 ~ 9 / 장소 : 건설회관 전시실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반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치유와 회복

(Healing & Restoration of a Situation) : 되살리기

- 주제설명 :

치유란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이며 회복은 한번 상실한 것을 되찾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장소(인공물을 포함한다)가 상실한 장소성이나 역사성, 그리고 본디 부여받은 기능을 잃고 버려져 있거나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간환경의 리모델링, 또는 치환을 통하여 치유한 후 그각 종 기능을 회복하여 그 지역, 그 사회, 그 도시에서 새로운 활력과 경쟁력을 지닌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배경 : 지역성과 도시 경쟁력의 확보_지금의 건축 환경은 거주지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건축문화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다소 동떨어져 있었던 개발위주의 과거에서, 이를 충족하면서도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 환경이 지역이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를 둘러보면, 어떤 장소(Situation)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환경이나 주변과 소통하며 살아온 인문 사회적 요소, 또는 역사성과 무관하게 기능을 하거나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산업적 변화에 의해 이제는 지역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 그 기능이 폐기직전에 놓인 도시공간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렇게 황폐해진 도시공간을 치유(Healing)하지 않고서는 그 장소가 속한 지역이 건강하게 숨 쉬며,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없을 것이다.

단서들: 지역성, 정체성, 경쟁력, 인문사회, 자연, 소통, 패러다임, 도시공간

2. 빌단 : 장소의 발굴(Selection of a Situation)_무분별한 개발이나 정지적 선택으로 탄생한 건축 환경이 당초의 무리한 계획이나 각종 여건의 변화에 의해 지금 그 기능이 폐기되어가고 있거나 지역에 역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Situation)를 선택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되리라 예측이 가능한 장소도 포함한다. 이때에 그 장소가 그가 속한 지역이나 도시와의 소통, 현재 기능으로서의 지속가능성 및 도시가 지니고 있던 지역성과 역사성의 단절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치유(Healing)의 긍정적 효과가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도시 문화적 맥락, 역사 또는 전통의 단절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부도 중요하다. 주거지, 지역과 연접한 공단지역의 낙후된 장소, 강변의 버려져 있는 장소, 군부대 이전예정지 등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빈 땅이라고 해서 그곳을 대지로 선택하는 것은 우

매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은 그 지역이 어떠한 곳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부지는 지역 내의 임의의 부지를 선정하고, 주변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할수있는곳이어야 한다.

단서들: 역사, 전통, 맥락, 회복, 치유가필요한곳, 지속가능, 미래지향적

3. 전개 : 진단(Examination)_치유를 위해서는 증상을 알아야 한다. 그 장소의 기대기능이 변화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장소는 물론 그 장소가 속한 지역(community)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문화적 여건 분석 등을 시행하여 장소가 가진 현황(문제의 발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야 옳은 처방으로 침된 되살리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속한 지역에서 그 장소가 지니고 있을 수도 있는 과거의 중요한 요소들의 현재 단절여부를 확인하여 치유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 지역의 미래목표와 그 장소의 배경, 그리고 잠재력의 확인도 필요하다.

단서들: 문제의식, 현황분석, 목표, 개념, 프로그램, 잠재력

4. 대안 : 치유와 생명력의 복원, 장소의 회복_대안이 추구해야 할 것 중에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미 공포된 건축기본법에서도 나타나듯이 선택한 장소에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처방이 결과적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무시하여서는 곤란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며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삶의 공간 창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념설정, 전개과정과 대안제시에 있어서 지역의 특색이 녹아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안은 그 장소가 대인을 통해 지역의 혈력과 경쟁력을 지닌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근거를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건축적, 도시적, 환경적 해결책을 통한 것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안 제출자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상상력이 구현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녹색건축 개념이 다양한 건축어휘로 표현되는 것도 필요하다. 대안이 위의 요소를 모두 갖춘 그 지역의 상징적 환경과 도시경관이 되어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다면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단서들: 생명력, 공공적 가치, 태양, 바람, 물, 자연에너지, 친환경, 녹색건축, 도시경관

- 출품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1차 작품접수

- 작품계획안 A2(가로42.0cm × 세로59.4cm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 2차 작품접수

- 패널 A0(가로84.1cm × 세로118.9cm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 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모형(가로 × 세로 80cm × 80cm, 높이 50cm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의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심사

가. 심사방법: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이각표 /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장

김향희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박홍근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유대근 /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이아희 /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최택성 /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입 선(20점 기준)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

■ 大賞(국토해양부장관상)

- 철암, 새 옷을 입다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 유성문, 권지훈, 최재영(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양명의 식민화된 중심성 회복을 위한 양근나부터 재활성화 계획안 / 최지훈, 김설이, 변주희(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잊지 마라! 벽을 눌히면 다리가 된다 / 정동희, 노정재, 변재희(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철강1번지 – 리소그래피를 통한 도시회복의 새로운 방법론 / 오윤경, 박홍수(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다시 태오르게 하다/신상용, 박준석, 김인정(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헌책, 되나눔터 / 이상호, 김용찬, 김희준(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特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생태와 도시문화가 어우러진 낙동강 박물관 계획안 / 강진주, 한진경(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닫혀진 경계 내에서의 gradation(접층법)을 통한 도시의 순환 / 박일훈(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상처 입은 치유자, 소록도 / 정인섭, 윤진용, 송유정(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도시마당(도시재생을 위한 비움과 소통) / 최경석(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유수지에서 떠오르다 / 김희준, 이병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지역케어센터와 공동주택을 거점으로 한 구릉지 노후주택지역 재생 방안 / 신주영(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入選(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 경계의 재구성 / 노승환(조선대학교 건축학과)
- 회복 – 잊어버린 해방촌의 기억 / 염혜진, 정용석, 김준호(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문화의 언덕 – 추산공원 / 김봉수, 전지훈, 오상일(경남대학교 건축학과)
- 제3의 공간 / 정수현(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 저자도(楮子島)의 회복과 치유를 통한 개인의 기억 찾기 / 이정보람, 손경민, 김세현(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 미디어 플랫폼 / 이동우, 유강민, 이은애(경기대학교 건축학과)
- 새 것 속에서 재생하는 옛 것 / 임동호, 안광섭, 이인준(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다시 감는 장항의 기억 / 정대희, 함정훈, 지경선(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복합적 중층성 – 도시의 생성, 변화, 발전 그리고 쇠퇴 / 조은정(공주대학교 건축학과)
- 풍납토성내 역사적 가치복원과 주거환경개선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 전통문화시설 계획안 / 윤비아, 문성우, 이재남(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경계의 재구성, 판문점의 횡적분단에서 종적연결을 통한 접경지대의 재구성 / 이수암(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잡든 도심지의 재생 / 김영호, 정우혁, 민경천(중앙대학교 건축학과)
- 오래된 미래 / 김우현(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정호(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강호영(중앙대학교 건축학과)
- 문화의 상상교 / 윤현진, 김나래(한밭대학교 건축학과)
- 감성적 치유…그리고 공간 / 박경빈, 이경진(동의대학교 건축학과)
- 변화의 기로에서 / 김종오, 박선현, 정윤금(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 Weaving the cultural narratives / 김수영, 정다운, 이민재(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초비늘 / 김민식(경기대학교 건축학과)
- 포항역의 또 다른 시작 / 황명진, 강성용, 사평균(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문화 총돌 극복을 위한 문화적マイ너리티의 새로운 계안 / 김희봉(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심사평

이각표 / (주)엠앤드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장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처음 시행한 이래 날로 발전하여,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국토해양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관련단체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건축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입니다. 특히 계획건축물부문은 오늘 티운 썩들이 내일 나무로, 숲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역량 있는 예비 건축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작품을 통한 교류의 장이 되게 하며, 미래 건축계를 마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치유와 회복(Healing & Restoration of a Situation)”이라는 공모주제로 무려 527점이 응모하였습니다. 넓은 심사장을 꽉 채운 작품들을 보는 순간, 이 많은 작품들을 짧은 심사기간에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한 바퀴 빙 둘러보는 도중 눈에 띠는 작품들이 다수 보였고, 이 작품들이 최종 심사 시까지는 상당히 수준 높게 출품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기쁨이 컸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심사위원 6명 모두 응모자 못지않은 정성과 열정으로 세밀하고도 잔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으며, 1차 심사도중 잠정 탈락된 작품들도 다시 살펴보고 가능성이 발견되면 전체 토론과 전체동의로 구제한 작품이 여럿 있을 정도로 열정의 시간이었습니다.

1차에 56점, 2차로 32점의 입선작을 선정한 뒤, 그 중 12점의 작품에 대해서는 응모자들의 직접설명과 심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그 뒤 심사위원들 간의 한 작품, 한 작품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깊은 산속을 가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숲의 신선힘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만든 즐거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심사라는 것이 언제나 비슷하지만, 공모주제의 해석과 틀이, 작품에

대한 단단한 자기 철학적 바탕, 창의성, 완성도, 작품표현 등이 심사위원에게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느냐에 꿀려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 입선된 작품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응모자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욕심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선정, 도시계획적 접근, 환경, 건축물의 외관 등에 공들인 노력에 비해, 건축물 자체 특히 내부공간의 처리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땅위에서 생명력을 갖기까지는 건축주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문컨설턴트의 도움, 법규, 경제성, 사회성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는 조건들을 한 용광로에서 융합시키는 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의 특성 중 응모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실제 지어지지 않는 작품이라 해도 실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일 실제 설계를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써둘하겠지만, 현재는 배우는 과정에 있는 만큼 실체적 접근 면에서 응모자들이 어디까지 가야하고, 주최 측이 어디까지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응모자들은 여러 번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에 대한 흥미로운 작품 속에서 얼굴을 내밀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열한 열기 속에서 선정되신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일간의 힘든 심사에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심사위원님들과 심사기간 내내 힘든 행정 처리와 끊임없는 지원을 담당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향희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건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반영물이며,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창작물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고민과 정성으로 창작되어져야 하는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 건축물 공모전 주제 선정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많은 응모작이 제출되어 심사를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고민과 함께 응모된 작품들을 보면, 심사의 고단함 이전에 반기움으로 다가온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를 하는 내내 많은 응모작들이 도시에 놓인 지역성 및 역사성,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 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펼쳐 놓은 이야기들에 빼어들어 심사 내내 즐거웠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사로서 규제된 테두리 안에서 치유를 망각한 채 현실의 눈가림에 가려져 넓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탈피한 무한 세계로의 여행을 막ัด 하도록 해준 심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참가자 모두에게 수상여부를 떠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응모작마다 내재된 이야기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던 어찌나 하는 조심스런 맘으로 심사를 한 끝에 32 작품의 수상작이 가려졌으며, 또한 차례 본상 수상자를 가려 대상과 우수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부 주제의 합일성과 대지를 읽어내는 해석의 창의성이 매우 훌륭하여 심사위원들을 뿌듯하게 했던 작품들이 본상에서 벗어나야 했던 대부분의 이유가 건축으로 이어지는 완성도와 표현의 미비한 점이었습니다.

건축이 다른 예술 분야와 차별화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왜곡되어서도 안 되며, 표현된 건축물이 실현되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지녀야 함이 또한 그것입니다.

밤낮을 잊어가며 작업실에서 지새웠을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이 느껴집니다. 공모전을 마치고 한동안 찾아 왔을 공허함은 이제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건축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설계란 주어진 또는 선택한 대지에,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적 맥락과 함께 주변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문·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축의 형태와 공간 디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참 좋은 설계라 말할 수 있다.

건축주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계획건축물부문 공모'는 주제에 대해 지침서의 내용을 몇 번이고 숙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에 합당한 설득력 있는 부지선정을 해야 한다. 이번 주제는 우리의 주변에서 그 장소의 잠재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여, 잠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고 있었던 곳을 찾아 건축적 해결책으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527점이라는 작품의 양과 질적인 수준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로 527점에서 56점을 통과 작으로 심사를 하면서 지침서에서 제공된 '치유와 회복'의 주제와 얼마나 부합되는지와 학생들이 건축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프로그램과 형태와 공간구성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 인가를 심사에서 고려했다.

2차 및 최종심사는 30일 후에 제출된 50점의 작품으로 진행하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보았다. 이때의 주안점도 1차 때와 같다.

첫째, 주어진 주제에 부합한 부지인가?

둘째, 찬신한 문제의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건축적 해결방법에서 형태 구성능력과 공간디자인에 감각이 있는가?

넷째, 실현가능성과 지역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주제에 부합되지 못한 장소를 다른 것들도 있고

-장소는 부합되는 것 같은데 '치유와 회복'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장소와 프로그램은 그럴 듯한데 건축적인 해결책이 미비하여 아쉬움을 가진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사회현상을 보는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건축적인 사고의 깊이가 깊음을 알 수 있었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지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국건축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한국 건축계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건축 미래가 기대 됩니다.

유대근 /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먼저 '치유와 회복(Healing & Situation) : 되살리기'라는 주제로 펼쳐

진 200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에 참여하신 응모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철암 새 옷을 입다_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는 주제 적합성, 장소의 발굴, 건축적 해결 방안 등 다수 부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의 활용, 장소성을 잘 살린 배치와 건축적 구성이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선탄장과 기존 주거 시설의 연결 당위성과 동선 해결 방안에서 약간의 미흡함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구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시 나오르게 하다'는 유일하게 남은 청량리 선형 기관교에 주목하여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한 '컨테이너 문화 콘텐츠의 장'으로 재생하겠다는 점이 주제와 잘 부합된 작품이었다.

기존 선형 기관교의 형태를 보존하고 복원하여 문화시설과 연결한 점과 건축적 해결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기존 청량리 역사 등 주변시설과 연계성의 미흡함이 아쉬웠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현해, 되나눔터'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다시 주목받게 만들자는 취지와 기존 골목의 동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간들을 삽입하여 만들어낸 공간적 전개와 구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기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웠다. 역시 우수상으로 선정된 '양근나루터 재활성화 계획안', '철강1번지-리소그래피를 통한 도시회복의 새로운 방법론', '잊지마리! 벽을 늘히면 다리가 된다' 등 모두 장소의 발굴과 문제점의 파악, 치유의 방법론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520여점이란 다수의 작품을 심사하면서 제출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평가의 잣대를 대야하는 점도 어려웠지만, 예년에 비해 빠른 주제 선정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제 적합성과 장소의 발굴에 부적합한 작품이나 눈에 띄었고 이러한 작품은 완성도를 떠나 과감히 배제하였다.

공모전의 '주제'에 대한 해석과 해결할 아이디어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장소의 발굴', '진단', '내안제시'라는 공모전의 주제설명을 숙지하고 전개과정을 이해하였다며 좀 더 신선한 장소의 선정과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계획건축물'이 '준공건축물'로 멋지게 설 그날을 기대하며 참여해주신 팀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이아희 /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공모전 주제의 내용이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며 특히 도시, 건축에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근거하여 일상의 도시에 잠재된 에너지를 불어 넣기에 좋은 주제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적 해결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표현의 완성도까지는 많은 시기과 노력이 뒤따르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전에 작품 출품이 지난해의 배 이상을 보인 점은 건축을 시작하는 예비 건축가들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남을 보였다.

이번 주제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완결보다는 도시의 역사, 주변의 맥락, 실현 가능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출품작 중에는 도시의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도 보였지만 객관화를 통한 건축적 모델로 구체화시키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출품자들의 세심한 현장조사, 자료의 분석, 평가, 대안제시를 통한 과감한 발상과 적극적인 표현이 패널을 빼곡히 채워

심사를 하는 내내 우리를 흐뭇하게 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작품을 심사하느라 출품자들의 생각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아쉬움을 남긴다.

최택성 /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모든 공모전이 그러하듯이 출품자는 출품자대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대로 공모전 동안 이런저런 고충이 있게 마련이다. 이 고충을 잘 견뎌 넘어온 경우엔 결과가 어떻든 뿐만 아니라 성취감이 따라온다. 심사를 위로한 지금 뿐만 아니라 성취감이 그다지 없는 나는 과연 심사를 제대로 한 것일까? 아니면 출품자에서 느낀 몇 가지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걸까?

총 527점, 최종 접수된 출품작수이다. 작년의 2배가 넘었다. 어느 한 작품도 예외 없이 모든 작품에서 온 힘을 쏟아 부은 혼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작품마다 달랐다. 투여한 시간과 정성과는 무관하게 어느 작품은 입선하고 어느 작품은 낙선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에 '왜 내 작품은 떨어졌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내 작품은 이래서 입선했을 것이다.' 하고 자만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 믿기에 낙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입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사 소회를 몇 자 적어본다.

공고전 초기에 계획건축물부문에 주로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주제가 다소 난해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치유와 회복, 그것이 필요한 병든 대지의 발굴과 문제점 진단, 그리고 가장 그 대지에 알맞은 치유와 회복 수단으로서의 건축적 Programming과 그 대안 제시, 이것이 바람직한 Solution의 과정적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심사하였다. 난해하더라도 주제는 주제이기에.

모든 공모전이 그러하듯이 심사초기에는 현저히 수준이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제, 즉 주어진 지침에 부합하는 작품인가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된다. 올해의 경우 대지의 발굴이 봄시 중요한데 다른 공모전에도 출품하기 위해서인지 심각한 고민이 결여되어서인지 대지의 선정이 애매하거나 브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이 있었다.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멀쩡한 땅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치유일까? 아니면 회복일까? 어느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 기준은 심사가 더 진행되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들 앞에 섰을 때 다시금 대어보는 것 대로 사용하였다.

입선 또는 특선 이상의 작품 중에도 앞서 말한 연결고리가 불명확하거나 대안의 Programming이나 대안 자체가 다소 비현실적인 것이 있었다. 발표할 때 느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기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는 그저, 건축은 작가의 생각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순수예술이 아니라 사용을 전제로 한 실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비현실적 건축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겠다. 건축에서의 실용이라는 가치는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잊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건축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조형적으로 치우친 작품도 있었다. 이것은 그 아이디어와 조형적 창의성이 아끼워 입선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깊고 넘어야 할 문제이다. 아무리 그 대안의 조형성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기능적 실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조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작품이 불친절했다(?)는 것을 말하

고 싶다. 이번 주제는 기능이나 용도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제목에서, 또는 Synopsis를 통해 자신이 제시한 대안이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심사하는 동안 꽤 불편했고 또 아쉬웠다. 적어도 어떤 Program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나간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평면에 부여된 실들의 범례를 확인하지 않아도… 멋들어진 추상

적 어휘의 영문 타이틀, 그리고 다분히 형이상학적 문구의 한글 부제, 이것만으로는 앞으로도 불친절한 작품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거의 모든 출품자가 현재 학생의 신분이다. 무한한 가능성은 가진 현재를 그저 그런 미래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금 더 바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 기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옳은 방향으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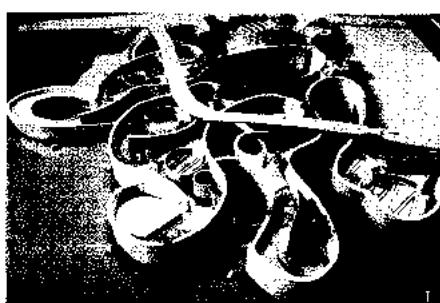
| 계·화·건·축·畢竟·부·문



철암, 새 옷을 입다 _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 유성문, 권지훈, 최재영

우수작

| 계·화·건·축·畢竟·부·문



1. 양평의 식민화된 중심성 회복을 위한 양근나루터 재활성화 계획안 / 최지훈, 김설이, 변주희

2. 잊지 마라 ! 벽을 높히면 다리가 된다 / 섬동휘, 노정재, 변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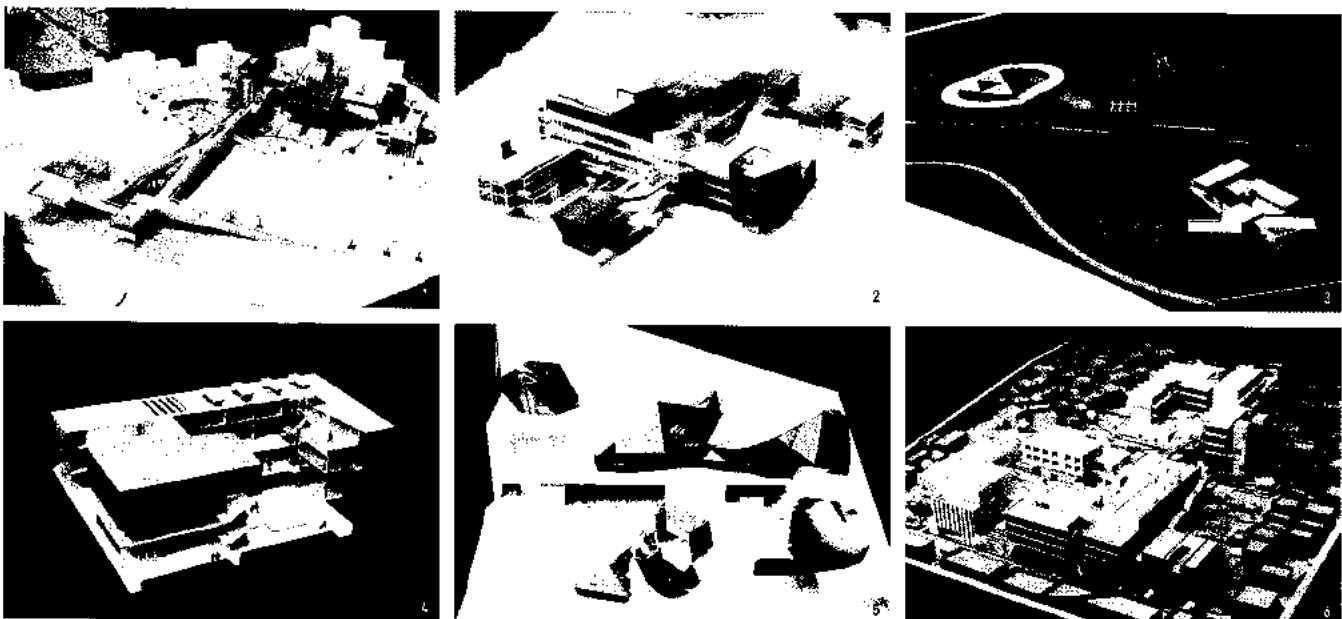
3. 침강기반지 - 리소그래피를 통한 도시회복의 새로운 방법론 / 오윤경, 박홍수

4. 다시 태오르게 하다 / 신상용, 박준석, 김인정

5. 혁책, 되나눔터 / 이성호, 김용찬, 김희주

卷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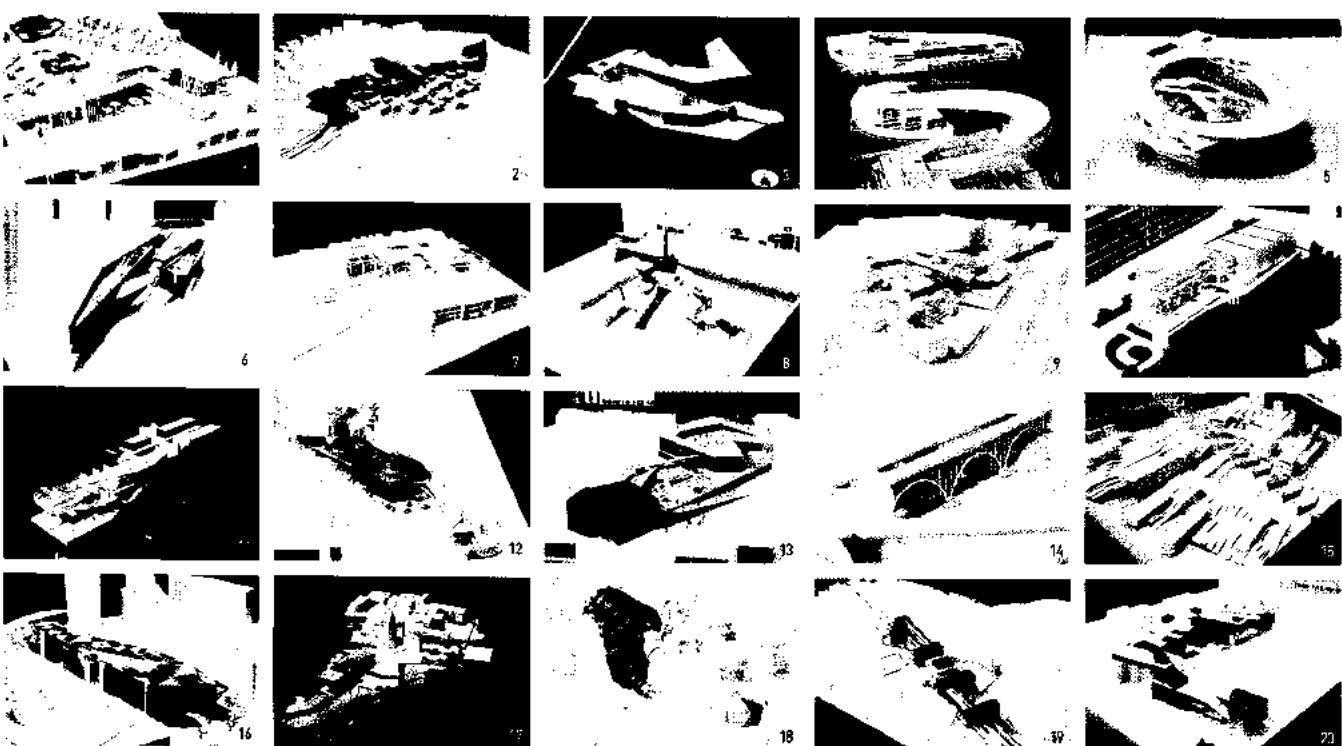
列·數·五·卷·五·正·理



1생태와 도시문화가 어우러진 낙동강 밭물관 계획안 / 김신주, 한진경 2단하진 경계 내에서의 gradation(점증법)을 통한 도시의 순환 / 박일훈 3.상처 입은 치유자, 소록도 / 정인석, 윤진용, 송유정 4도시마인/도시재생을 위한 비움과 소통 / 최경석 5유수지에서 떠오른다 / 김학준, 이병학 6지역케어아티스트와 공동주거를 거점으로 한 구릉지 노후주택거주지역 재생방안 / 신주연

三

개·Knife·지·Saw·목·Wood·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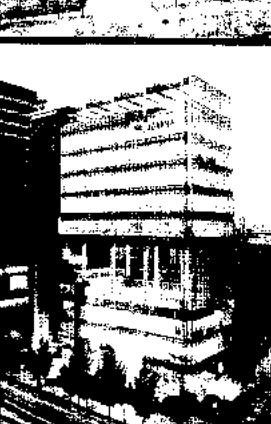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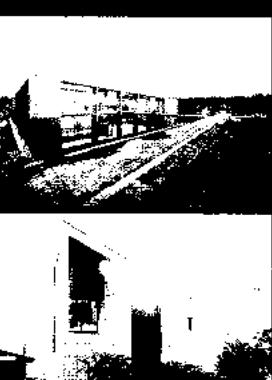
1.경계의 재구성 / 노승환 2.화복 – 알아버린 해방촌의 기억 / 염혜진 정용석 김준호 3.문화의 언덕 – 추산공원 / 김봉수 전지훈 오상일 4.제3의 공간 / 정수현 5.저자도(楮子島)의 회복과 치유를 통한 개인의 기억 찾기 / 이정부림 손경민 김세현 6.미디어 플랫폼 / 이동우 유강민 이은애 7.새 것 속에서 재생하는 옛 것 / 임동호 안광섭 이인준 8.다시 걷는 장항의 기억 / 정대희 함경훈 지경선 9.복합적 충돌성- 도시의 생성, 변화, 발전 그리고 쇠퇴 / 조은정 10.풍납토성내 역사적 가치복원과 주거환경개선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 전통문화시설 계획안 / 윤비아 문성우 이재남 11.경계의 재구성, 판문점의 횡성분단에서 종족연결을 통한 접경지대의 재구성 / 이수임 12.잔든 도산지의 재생 / 김명호 정우혁 민경찬 13.오래된 미래 / 김우현 박정호 강호영 14.문화의 상상교 / 윤현진 김나래 15.감성적 치유... 그리고 공간 / 박성민 이경진 16.변화의 기로에서 / 김종오 박선현 정윤경 17. Weaving the cultural narratives / 김수영 정다운 이민재 18.초비들 / 김민식 19.포항역의 또 다른 시작 / 흥명진 김성웅 시광균 20.문화 출동 극복을 위한 문화적 마이너리티의 새로운 제안 / 김희동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9

준 . 공 . 건 . 축 . 물 . 부 . 문



대상

- 서울남산국악당
- 부티크 모나코
- 은평 뉴타운 현대IPARK
- 빙포 577

본상

-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 금호아시아나 본관
-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 집운현

우수상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BTI
-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작마을
- 수원화성박물관
- 오산시 중앙도서관
- 서울시 서천연수원
- 카페오라
- 지앤 아트 스페이스
- 퍼시스서울 본사
- 동탄 나루미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 구미 옥계 현진 에버빌엠파이어
- 용인 사랑의집

서울 남산 국악당

Seoul Namsan Gugakdang

설계자: 김용래(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삼부토건(주)

건축주: 서울특별시청



전통국악공연장은 주6일제 시대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문화에 부응하여 정악을 위해 최적화된 전문 전통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한옥마을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건립한 것이다. 기존 서구식 공연장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서구식 정악을 위주로 설계된 프로시니엄의 기준 공연장 형식을 탈피하여, 우리 민족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국악전통공연장으로 설계되었다. 공연장은 남산한옥마을 내, 놀이마당 남쪽에 자리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시설으로 건축면적 388.12㎡에 연면적 3,018.92㎡로 건폐율 16.77%, 용적률 16.77%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공연장 개석은 330석 규모이다. 지하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로 계획되었고, 지상 부분은 순

수 한식목구조로 계획되어 외관은 단층 한옥으로 부인다.

한옥은 국산 육송과 한식기와로 마감되었으며 설비는 중앙집중식과 개별냉난방식을 혼용하였다.

국악공연장 계획의 핵심전략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옥마을과의 조화이다. 한옥이 건물의 규모가 작듯이 국악공연장은 건물의 규모, 지붕 높낮이 면에서 한옥마을과 하나로 어우러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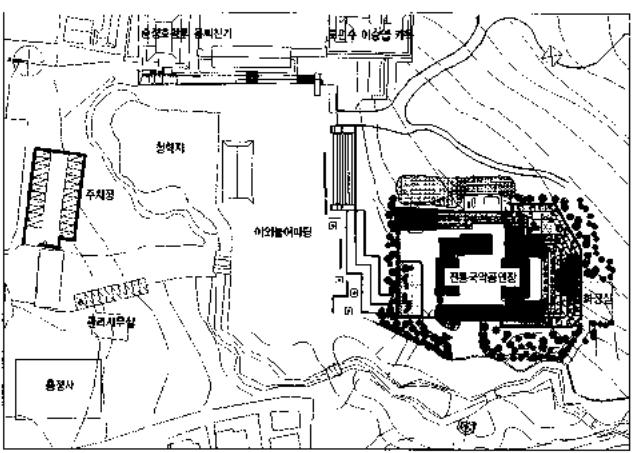
둘째, 한옥마을에 대비한 국악공연장 위상에 관한 것이다. 기존 한옥마을은 서대부 살림집이나, 국악공연장은 공공건물로서 위상을 가져야 한다. 여러 채가 자유롭게 놓이는 살림집과는 다르게 공공건물은 보다 기하학적인 구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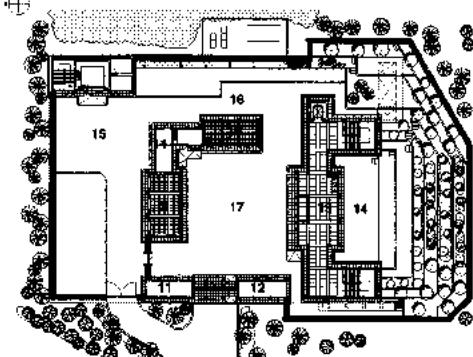
따른다. 따라서 공연장을 궁이나 서원처럼 정사각형구성에 좌우대칭으로 배치했다.
건물의 모자연식도 사대부지보다 한 단계 높은 고급양식을 취했다.

셋째, 공연장의 무대형식이 정악과 민속악을 다같이 소화하도록 프로시니엄에 둘출무대를 복합하여 무대의 기변성을 높였다. 공연자와 관람자의 일체감을 중요시하는 우리 음악공연의 본래 모습대로 객석도 둘출무대를 둘러싼 배치를 하였다. 전통적인 땅거정대의 고역장을 이어받아 보이기로 더욱 강박나게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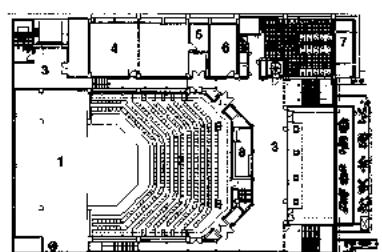
넷째, 폐적한 지하환경을 위한 채광과 환기이다. 지하홀까지 깊이 파인 선운정원을 두어 지하에서도 지상과 같이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했고, 더구나 정원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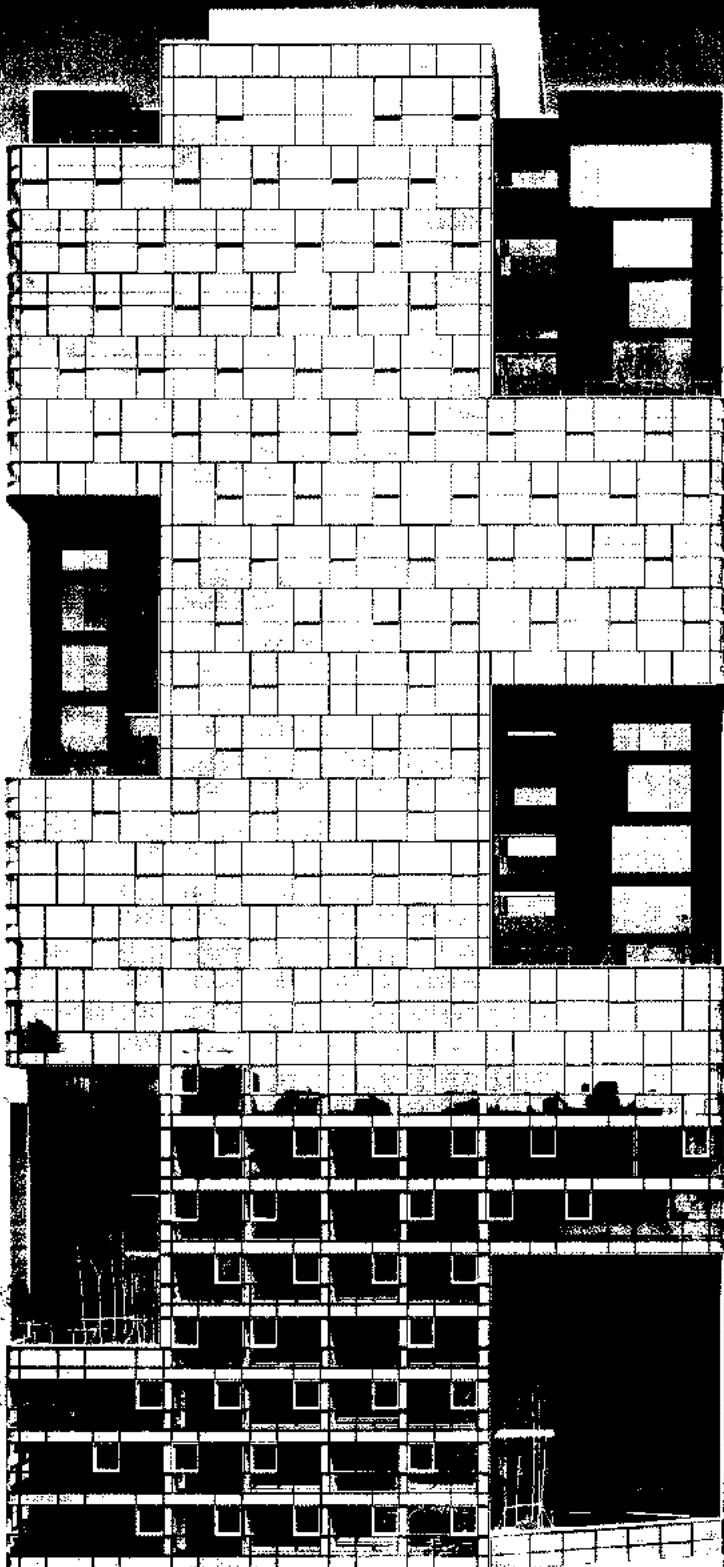
- 01_ 무대
 - 02_ 경석
 - 03_ 물
 - 04_ 강연회장
 - 05_ 교제제작
 - 06_ 시무실
 - 07_ 장비반입구
 - 08_ 인내실
 - 09_ 고시체험실
 - 10_ 유개설
 - 11_ 관리실
 - 12_ 안전설 및 인내실
 - 13_ 로비
 - 14_ 협약원
 - 15_ 하역장
 - 16_ 후정
 - 17_ 안마방

부띠크 모나코 Boutique Monaco

설계자: 박기수주 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제작자: 치에스건설(주)

시공자: (주)생보부동산신탁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균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284.80m²

건축면적 1,713.1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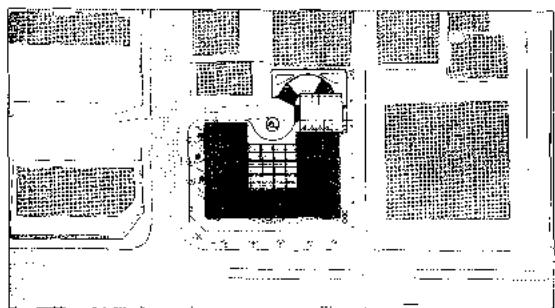
연면적 54,859.92m²

건폐율 3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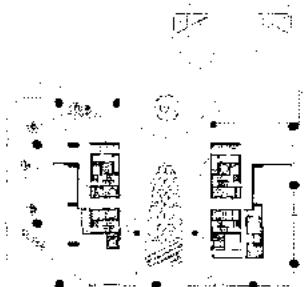
용적률 866.54%

규모 지하 5층, 지상 2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할퀴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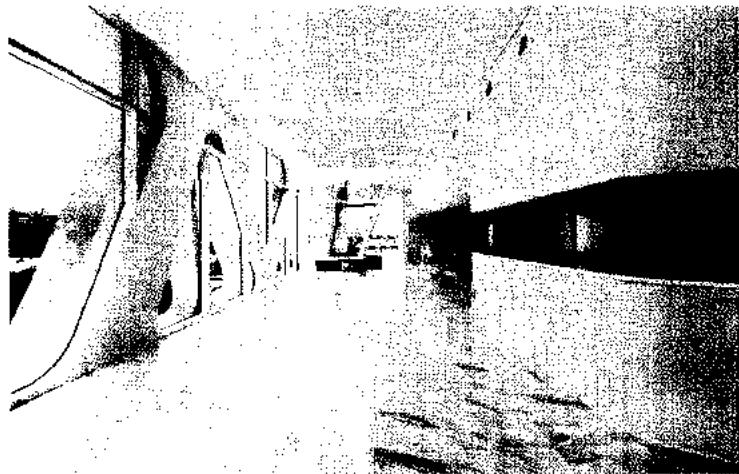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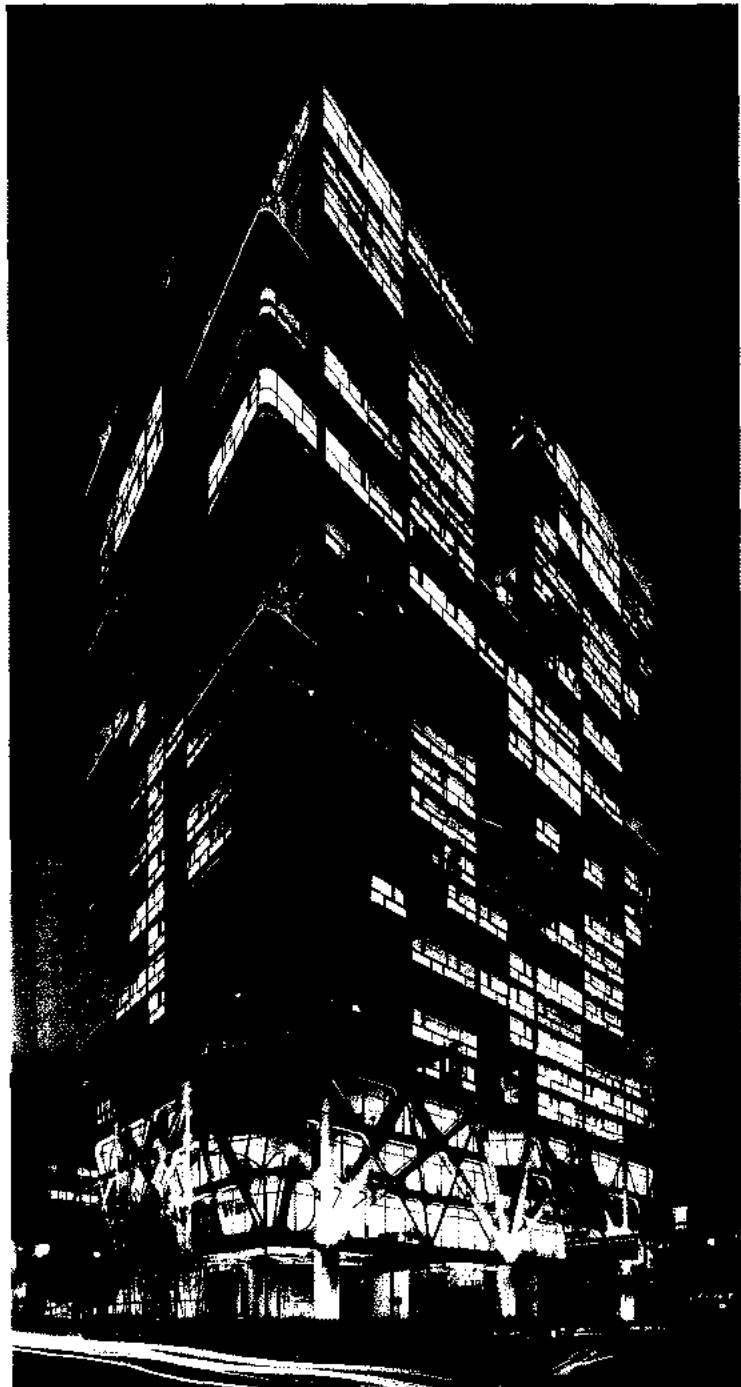


배치도



1층 병면도

이 프로젝트는 연면적 5,500m²인 건물의 건립을 포함하여 건물의 지층부에는 상업·문화·커뮤니티 공간이, 5층부터 27층까지 상층부에는 오피스텔이 자리한다. 수어진 부시의 최대허용 건폐율(40%)과 최적의 채광조건(남향)을 살려 'D'자 형태로 배치된 유니트들은 도쿄노 배트릭스 형태의 27층 건물을 구성하여 높이는 법정 허용 최고치인 100m에 달한다. 이렇게 최대 허용 건폐율이 적용된 평면을 단순히 수직적으로 반복해서 쌓아 올릴 경우, 건물의 연면적은 법정 허용치를 약 10%정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식승원 매트릭스를 도입했다. 실종된 매트릭스는 흥미, 단면적으로 고르게 건물의 체적을 감소시켜서 0 부지의 최대허용 용적률(970%)을 만족시킨다. 결과적 보면, 건물에는 15개의 '실증된 공간'이 생겨서 건물의 표면과 구조가 늘어나고 채광과 전망도 더 좋아진다. 타워내부에는 총 49개의 유형이 적용된 172개의 유니트가 풍부한 공간적 조건을 반영/활용하여 불균질적으로 자리한다. 예컨대, 15개의 실증된 매트릭스로 인해 창출된 공간에는 40개의 유니트가 배치되는데 개별유닛마다 공적인 공간(거실/주방)과 사적인 공간(침실)을 구분해주는 브리지가 있으며 그 중 22개의 유니트에는 정원이 있다. 또한, 실증된 매트릭스 내부에는 나선형 계단이 둘레에 있어 건물 내부의 불균질성을 강조한다. ■



은평 뉴타운 현대 I-PARK

Eunpyeong New Town Hyundai I-PARK

제작자: 정인교(주) 헤리츠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건축주: 에스에이씨홀딩스



은평뉴타운 지역은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시정 돼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주거, 업무, 문화, 공공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 시가지형 뉴타운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 물과 녹지가 함께하며 자연에 녹아 드는 풍경이라는 콘셉트로 시작했다.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곳,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경관이 있는 곳

을 목표로 리조트형 전원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를 창출하고자 했다.

근린생활시설을 생활가로법에 계획하여 기로의 활동적인 분위기를 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각의 중정별 특화된 코너형태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또한 중정형 단지는 공간의 둘러싸임에 의해 다양한 위요감을 가지는 미당공간을 구성하고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투명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

대시위치 서울특별시 문정구 진관내동 일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적률 종종주택

대지면적 151,613.2m²

건축면적 35,154.1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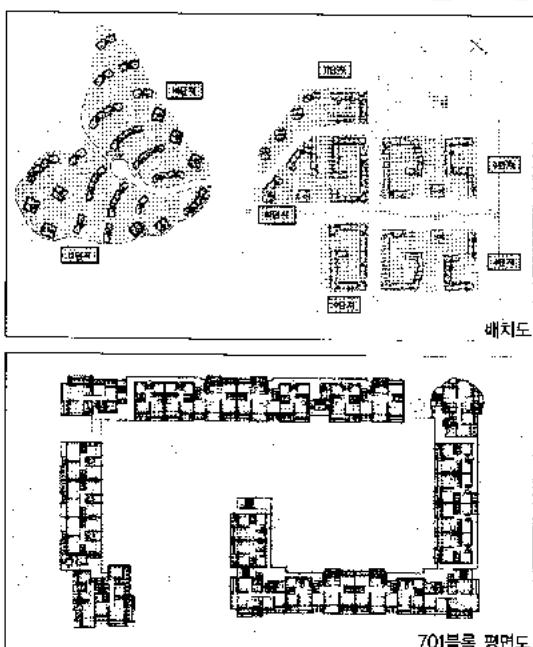
면적률 319,428.63m²

건폐율 23.19%

용적률 148.14%

구조 지하 2층, 지상 4~1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박스구조



반포 577
Banpo 577

설계자: 이성관(주.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시공자: 건축주: 이성난



대지점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77-18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157.14㎡
 건축면적: 84.29㎡
 전면적: 350.54㎡
 경비율: 53.84%
 주택률: 148.64%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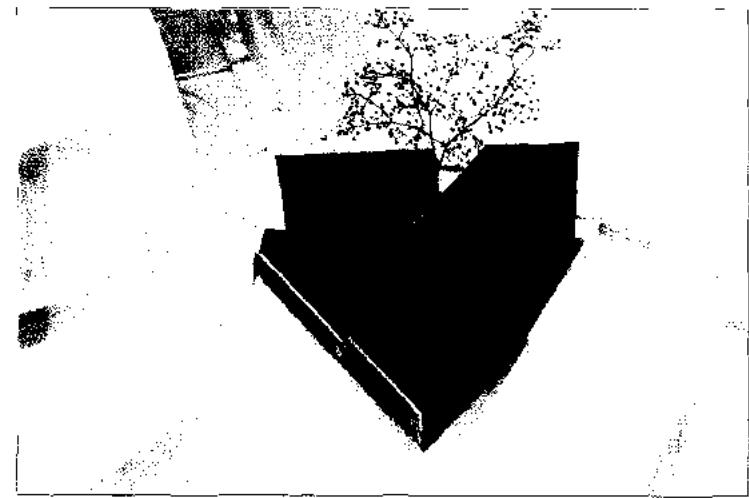


Location 48평의 삼각형 이형대지이면서 신관로와 결합 3m 높이의 축대가 있다. 기존 나세내주택으로 둘러싸여있어 프라이버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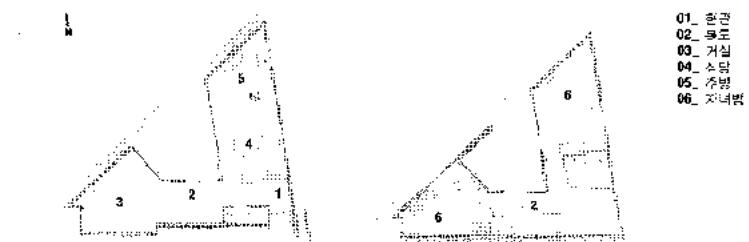
Section 기존 축대를 기준으로 하는 28평의 협소한 건축면적으로 인해 고로고양의 수직적 적층을 시도하였고 주변의 입체적 시각에 빙어적이고 반응적으로 대응하였다. 평면사선을 단면사선까지 연장한 법규사선을 능청스레 피하며 디자인하고 활용했다. 2자원의 협소한 대지를 입체적으로 조합하여 캐터 이용한 공간의 시감각적 확산을 유도하였다.

Plan 대지와 건물간의 관계설정에 있어 자체 완결적인 친중형태로서의 물품이 아니라, 최내한 외곽을 재우고 안을 비워냈다. 남향의 채광과 자연을 끌어들이고 주변 시선의 공격에 반응하기 위함이다.

Space 좁고 높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라보아야 하는 주방장작과 주방선정은 끊임없이 뻗으며 좁은 공간에 희선길을 부여한다. 모두의 모든 공간은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짧장길마저도 예외는 아니다. 콘크리트 외벽을 제외한 모든 브와 홀딩실은 연속된 브체에 마치 가인 양 풍성을 떨며 공간의 일부분을 점유할 뿐 고정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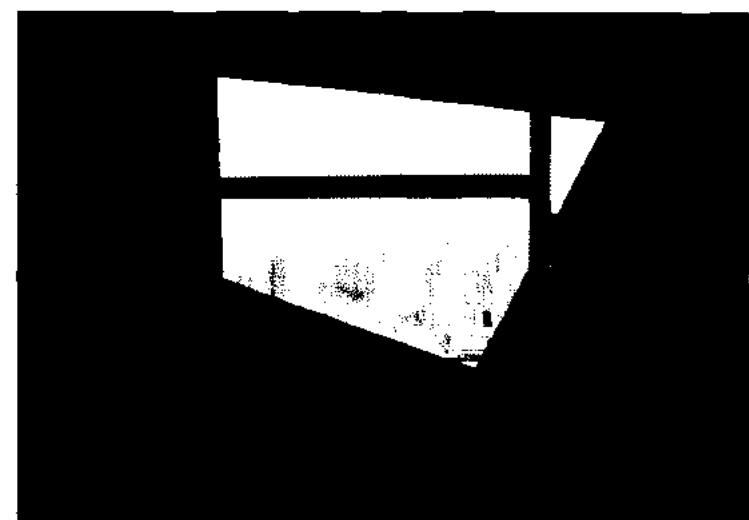


모형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단지 Campus Complex at University of Seoul

(사무소 주)

서울시 주민설문조사 도개발

건축주 許 達 士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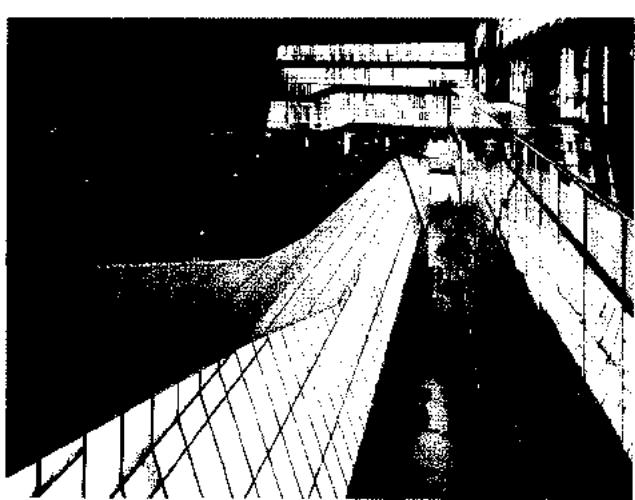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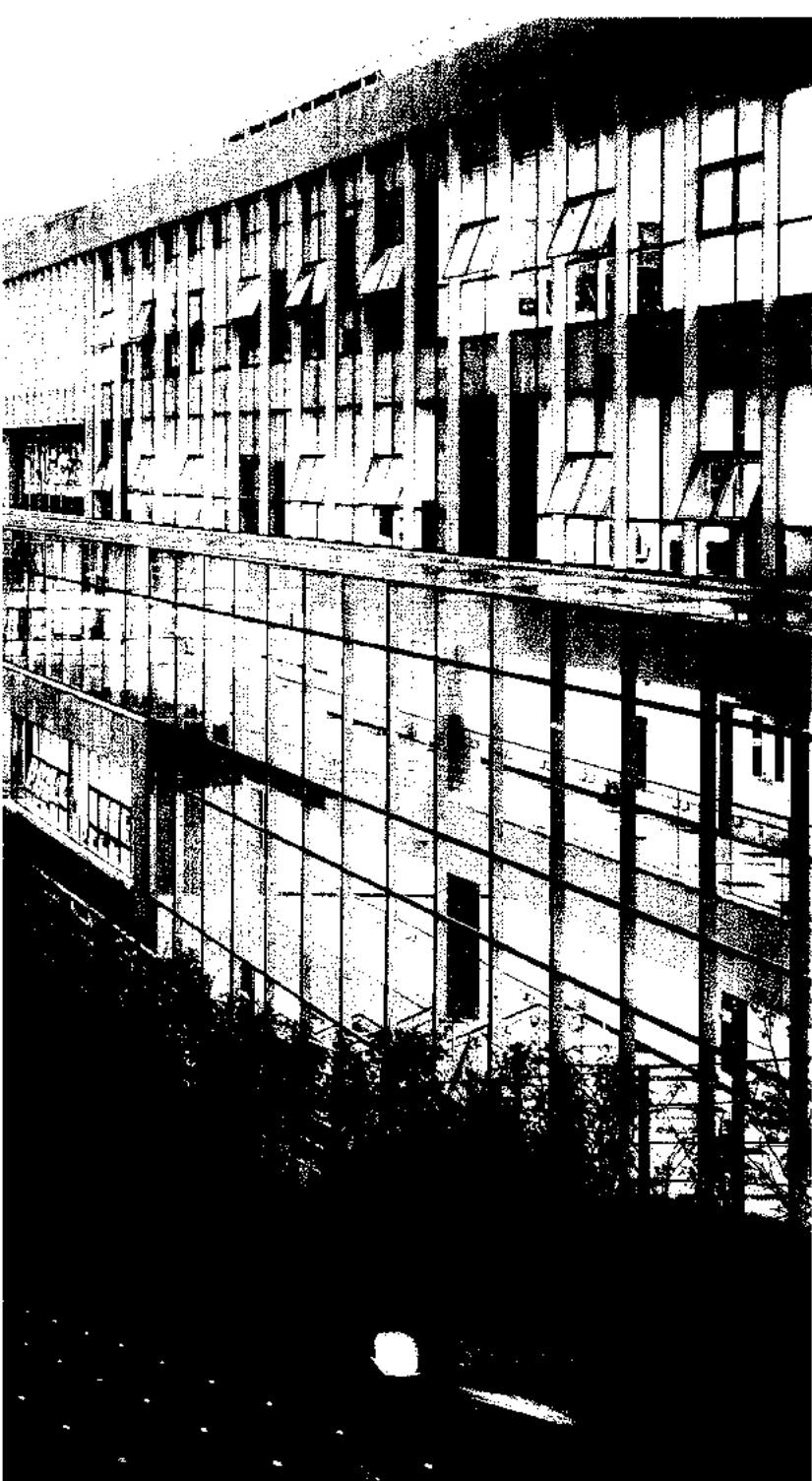


Landscape Compound 랜드스케이프 복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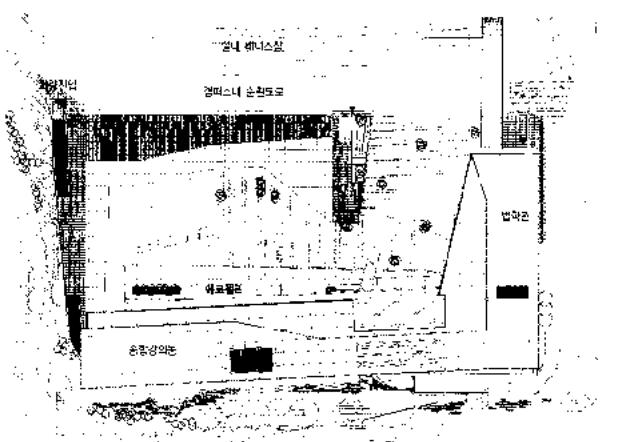
제2부는 문화는 그 일상으로서의 면모 및 그것의 내용, 행위 등으로 세워진 고우드
와 헤이스팅스의 저작을 살펴보면서, 제3부는 그들의 저작에 대한 평론이다. 제4부는 유전
과 대중문화, 제5부는 공연예술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6부는 제7부로 지정되었지만
앞에서 제기한 주제에 대한 조성으로 〈헬스케어 인프라〉의 평정, 〈인도네시아
인권과 인도네시아 여성〉이다.

이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고, 투표권 쪽으로 압승을 차지한 노동당은 40석이 넘는 41석을 차지해 3석 주민들의 아멘트를 사용해 4석이 더 나온다. 미국대학원(University College) 교수들은 노동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8년에 페스카디노의 공정성이 확증되었고, 그 이후에는 민족주의 충돌과 함께 양국 간의 거칠은 협약으로 공정성이 확증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예상과는 달리 노동당이 기초권의 드라마 히어로인 정부를 차지하는 경향이다. 노동당은 흥행을 기록한 허버트 헤이우드(Herbert Heywood) 전 미 국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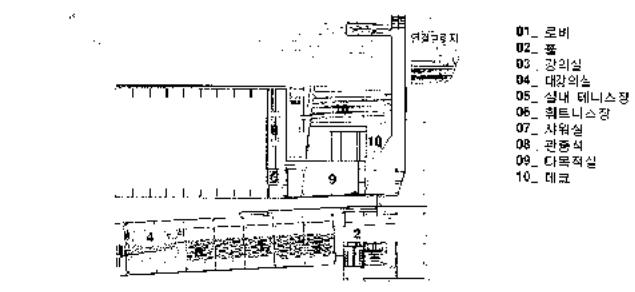
는 40 % La Richepo Perfume, 30 %의 흰색 향수, 30 %의 흰색
향수와 5 %의 흰색 향수를 혼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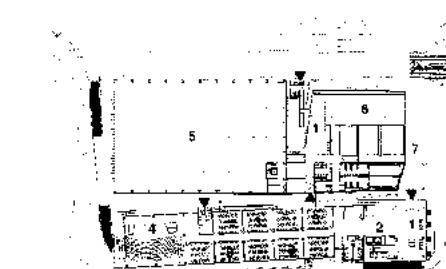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전농동 90번지 시립대학교내
지역자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체육시설
대지면적	270,600m ²
건축면적	6,071.49m ²
연 면 적	18,763.97m ²
건 폐 율	79.14%
용 적 율	246.79%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헬프구조



배치도



100 頁



지하 1층 면도

한나, 대지의 고는 난방으로 연기나 촌스러운 풍경을 제외해도, 주제
시와 놀신의 연설과 이수로를 수용하는 시선이 경시의 경관을 확장해
준다. 차라, 빛, 소연주재비나, 놀 놀의 자연환경을 재구현하는 계단을 유게동의
여인과 춤하장의 꽃과 결합된 종합 예술실주의 미술은 미술
의 생활(최대 1000명이 쓰여 공연에 사용하던) 예술의 광장과 연계되는
한국의 예술의 힘으로 부서하고 개척시대의 새로운 충수로 성과로 활용
된다. 예술과 예술가의 충돌에 풍경과 물결리는 서정이며 이를 통해
우승을 이끌어온 사건으로 만들어 내는 풍경을 뜻이다.

Eco Corridor 에도 복도 – 환경적 수직동선 연결 시스템[3]자 동선을 활용
식 인증과 안전성이 유통망간을 동시에 세우는데 주목되는 고장이며, 그에
서서히 그 내용은 최근으로 확장되어 수직동선의 시스템화에 충분한 면모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Eco Access) 양해를 한다. 흥행적인 수직동선 시스
템에서는 허상화된 내용 언어를 위와 표식과 함께 표시로 이루어진다. 예전

금호아시아나 본관 Kumho Asiana

설계사 : 한종봉(주)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금호산업(주)

건축주 : 금호사옥 수식회사

한국

민간부문

평생

건축전

관련

부문

2003

연도

제작

국

한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07번지 외 1필자
용도	업무·근린생활
대지면적	3,913.8m ²
건축면적	1,460.56m ²
연면적	60,695.5m ²
잔폐율	37.32%
총적률	941.25%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철골콘크리트

계획개념 직육면체의 건물숲 사이에서 한국 그우의 유연한 곡선과 미래를 향하는 비상의 궤적이 어우러져 새롭게 도약하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미지도 표현된다. 전면과 배면을 이루는 두 가지의 곡선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비상하는 곡선(Convex)', 그리고 금호 그룹이 걸어온 역사와 주변의 두 시 콘텍스트를 부드럽게 '포용하는 곡선(Concave)'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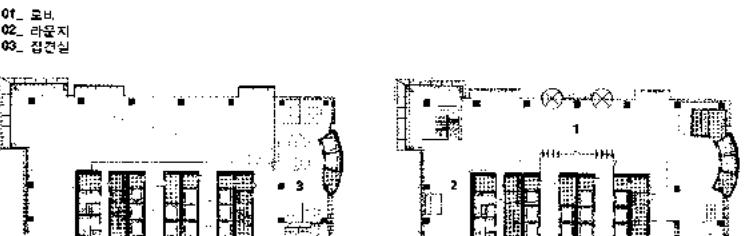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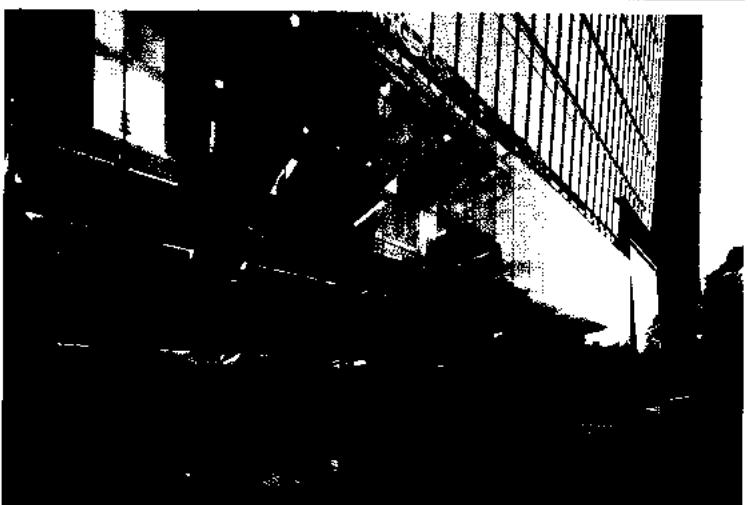
입면계획 전면 Convex와 배면 Convex의 상상적인 면은 반사유리로, 기타 면은 투명유리를 사용해 각각의 특성을 살렸고 알루미늄 투버는 면의 구성을 더욱 높보이게 한다. 커튼월은 실내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외부로의 시야는 충분히 확보하면서 외부에서 내부로의 시야는 가려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1층 토비는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John Paul Philip의 작품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모비에서 시작되어 엘리베이터로 이어진다. 로비의 바닥과 벽체의 일체화된 마감은 상승하는 Artwork를 강조하고 있고, 2층 라운지는 Artwork가 연계해 언상작용을 일으키며, 1층 로비와 연속적인 느낌으로 설계되었다.

14층은 내부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과감한 핑크컬러와 패턴을 사용해 활력있는 회의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26층은 임원리윤지 공간으로, 외부에서 로비, 그리고 고층부까지 올라온 공간의 흐름이 임원회의실 벽면에서 우드그릴과 함께 실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진입과 함께 시작된 Artwork의 요소는 업무공간 내부에도 반영되어 갤러리처럼 공간마다 시각적 중심을 이룬다.

아트월계획 정동 쪽으로 옮긴 배면에는 '대지와 빛'을 테마로 하는 도심 속의 아트 월을 계획했다. 상층부의 LED Gallery는 '빛(Light)'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이며, 미래, 희망, 도약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Media Art는 상업적이기보다는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으로 서울 도심 콘텍스트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층부의 이트디일은 '대지(Land)'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신상호 작가의 'Fired painting' 작품으로서 건물의 근경에서 시민들에게 예술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디자인전개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공공적인 건축을 위해 건축 그 자체가 예술품이 되고, 건축과 예술, 문화가 하나로 융화되도록 디자인했다. 이런 개념에 따른 디자인 전개가 건물의 내외부에 관계없이 일관되어 적용되었다. 유연한 곡선으로 표현된 비상하는 듯한 조형 이미지가 공간의 흐름을 따라 외부에서 내부 Artwork으로 이어지고, 다시 배면을 통해 아트월로 표현된다. 특히, 건물 내외부의 예술물을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여 일체화된 작업으로 진행했다. ■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

Uijeongbu Nogyang A1, A2,
Housing Complex

설계자 : 김현호(주) 디메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서희건설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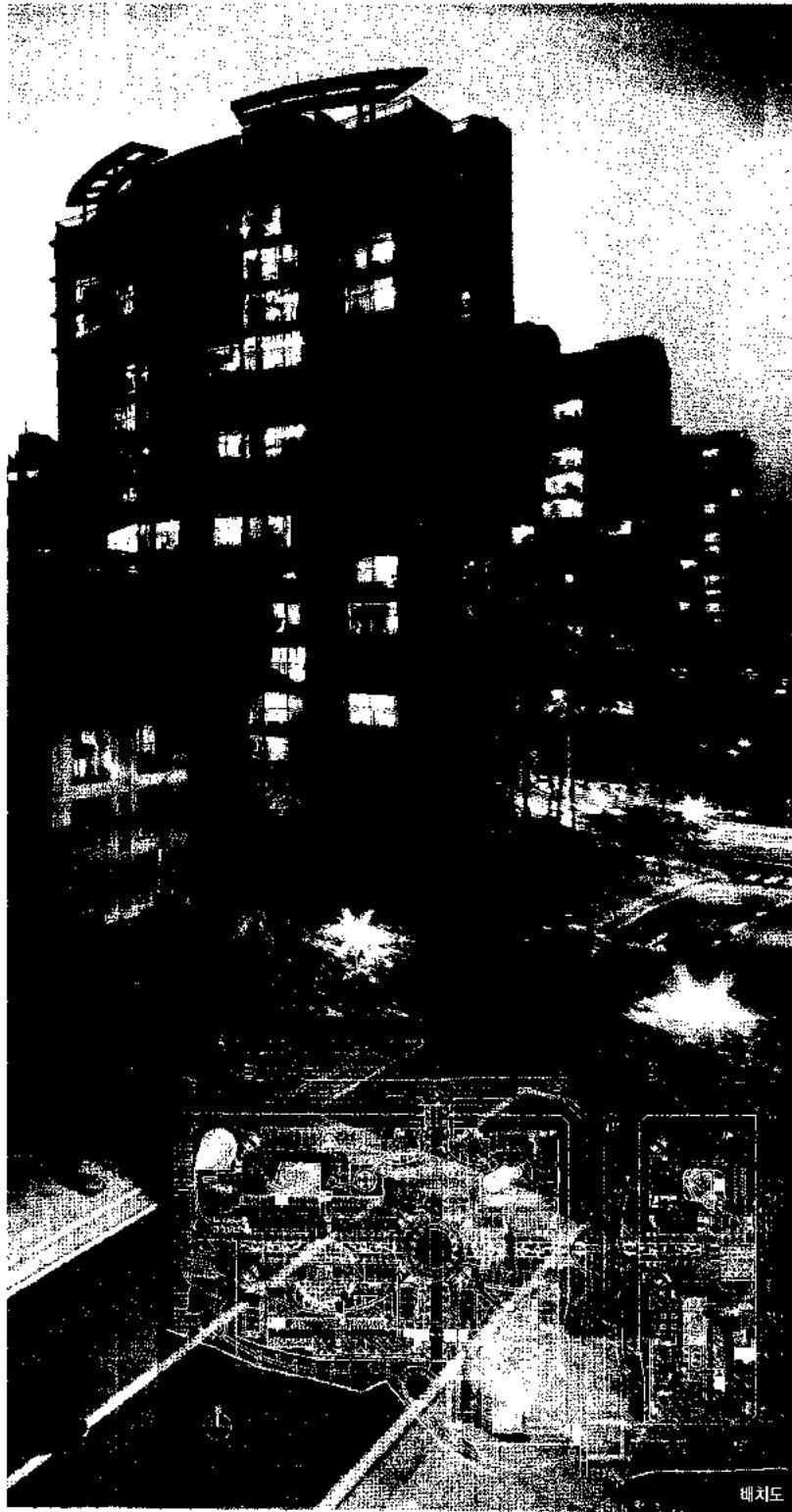


2008년 4월 준공된 의정부 녹양지구 A1, 2블럭 고민입대 공동주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블록형 주거모델을 도입하여 계획된 유럽형 저층집합주택단지이다. 기존의 공동주택단지가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형 단순배치와 고층개발로 인한 도시경관과의 부조화를 양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계획은 자연과 만나는 생활가로를 테마로 친환경 중정형 서층 집합 주거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블록형 개발은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고밀 개방방식으로, 중정형 주택을 가구 블록형으로 계획, 도로와 인접하게 만들어 안접동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할 수 있어 필지의 절약이 가능한 배치안이다. 단지 중앙에 중정을 형성하고 외곽에 시설동을 배치하는 블록형 개발은, 영역성이 뛰어난 양질의 외부 공간 형성을 통해, 단지 내적으로는 사회적 접촉, 증대되고, 단지 외적으로는 가로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블록형 저층 주동 구조의 연속성을 활용한 배치와 가로구성은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드문 휴먼스케일의 다양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며, 도시와 삼합주거 건축의 조화로운 결합의 실험적 시도를 보여준다. 가로와 배수적으로 계획되어 생활권의 폐쇄성 및 주변가로의 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했던 대단지 개발과 달리 블록형 개발은 가로를 중심으로 면 위계적 공간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블록형으로 이루어지는 중층고밀 개발은, 가로악의 관계 설성이 용이한 방식이다.

부분적인 복합용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단지 내적으로는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난지외석으로는 가로공간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본 계획 단지 내를 가로지르며 조성된 중심 생활가로축은 보행친화적 생활공간을 형성하며, 동시에 경관적 측면에서도 보행자와 거주자의 휴먼스케일에서 다양히 도시경관을 연출한다.



볼록형 주거 모듈의 조합에서 핀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 결절점의 가각부와 경관축의 주요 지점에는 각각 타워형 주거동과 사각 광장을 계획하여 옥외공간을 효율적으로 분절하고, 사각축의 중심성을 강조하였다. 낮은 매스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최상층부 구조물과 밝은 색재 계획, 그리고 볼록의 결절점에 특징적으로 배치된 원형 캐스의 입면계획은 볼록형 주거 단지의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가로 입면을 효과적으로 보완한다.

연도형 주동의 결절점에는 각 주동으로 동선 진입에 필요한 코어기능을 한곳에 집약시킨 커뮤니티 코어를 개획함으로써 주동내 주민 공동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수민들 간의 공동체 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도형 주동을 녹양천과 녹지공간축 방향으로 계방시킴에 따라 분절된 주동을 커뮤니티 브릿지로 연결하여 주민들간의 균리교제의 연속성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시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녹동 대시개발사업지구내 서부 2블록

지역지구 양현동지구와 토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시설, 부대시설

대지면적 45,940m²

건축면적 16,969.805m²

연면적 72,592.139m²

건폐율 36.94%

용적률 158.01%

규모 아파트 1,738호 (지하 1층~지상 35층), 주민복지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리본구조

생활가로변의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의 분절을 통해 가로를 걷는 주민들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한 타워동의 경우 단지 주신 입도로에서 인자되는 위치에 배치됨에 따라 원형 매스볼 적용하여 진입 시각으로부터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단지 전체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종종 규모의 공간은 인간적 척도가 인자되는 친근한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한다. 특히 L, D, 모자로 둘러싸인 느낌을 주는 주동의 배치는 가로의 번화함에 대하여 조용한 오픈 스페이스를 공유함으로써 주택의 인성, 거주성에 유리하고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주며 균형교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독립적인 층정 공간은 주동의 개방된 축을 향해 열림으로써 외부의 중정 공간 및 생활가로와 연계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거동 하부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내부 중정은 공동 녹지 및 놀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支 **우현**
通鑑

Jibunhe

설계자 : 황두진(주.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장학건설(주)
건축주 : 김유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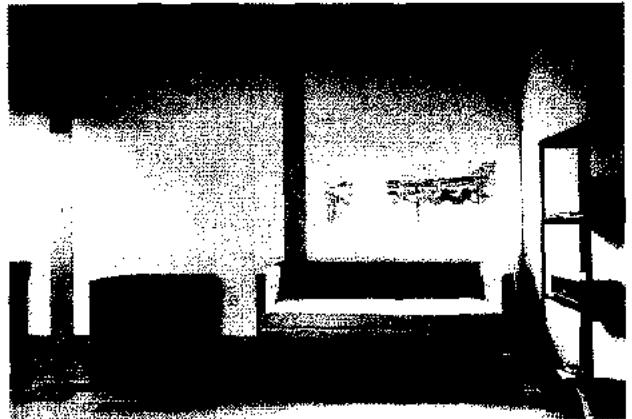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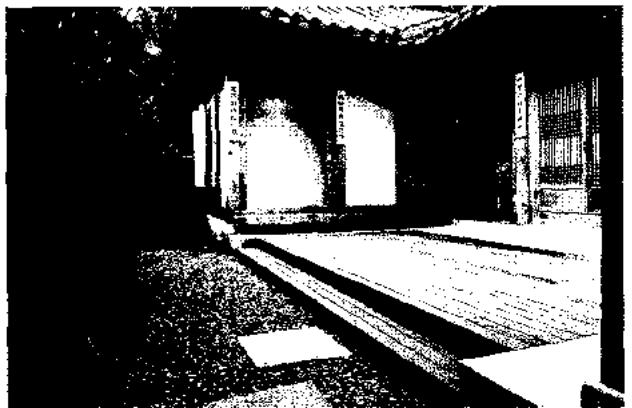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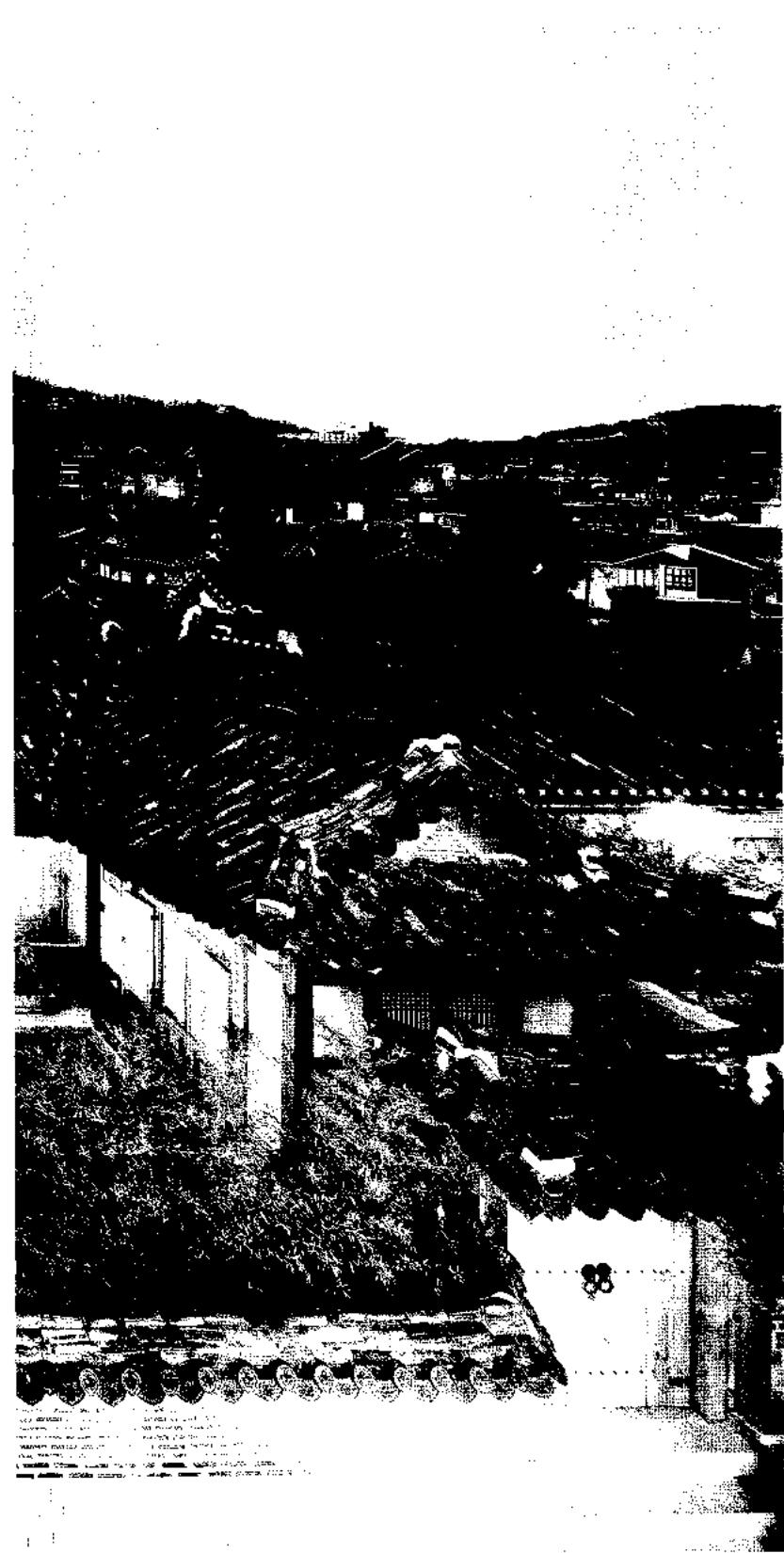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에서도 한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은 31번지와 11번지 일대다. 그중 11번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긴 골목길에 위치한 이 주택은 '우리 시대의 한옥이란 어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한옥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인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일컬을 수 있다.

이 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실 위에 선동면구조를 충실히 구현한 사
상부가 올려져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세탁, 수납공간 등
이 배치되어 있고 사상부에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주된 생활공간이 자리 잡았
다. 따라서 이 주택에서는 전통한옥의 맛과 멋을 충분히 즐기면서도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 또한 충족할 수 있다.

전형적인 도시형 'ㄷ'자 한옥의 유형을 바르고 있는 집운현은 주택의 중심을
사지하는 마당에 목재 테크를 설치하여 굳이 산을 신지 않아도 쉽게 들고 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뒷마루 아래에는 지하실을 위한 채광장을設이 넣었다.
또 다른 특징은 천통 창호와 현대식 시스템 창호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주택으로서 필요한 기밀성 단열, 방음 등의 기본적 조건을 충족
시키는데 전통 창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옥의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농의 설비를 핵리적으로 설치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붕을 건식으로 구성하여 그 내부의 공간에 배관, 덕트 등을 설치하고 실내 단면의 고지차를 이용, 내청의 측면벽에 냉난방용 뉴출구 등을 배치한 것이 그 좋은 예다.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희동 51-39

지역구역 역사문화재관리구역

용도 주택

대지면적 205.31㎡

건축면적 8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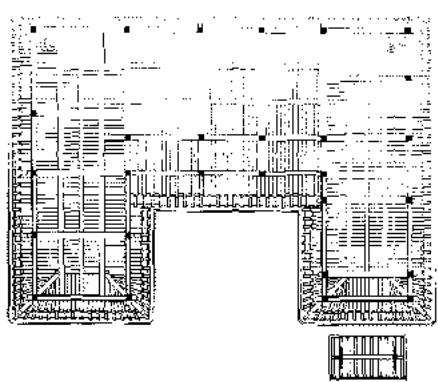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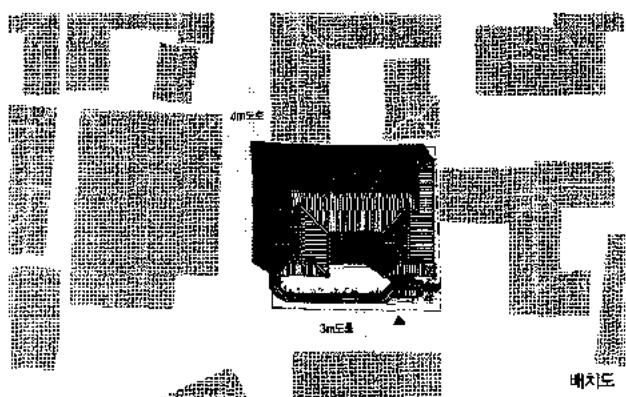
연면적 181.15㎡

건폐율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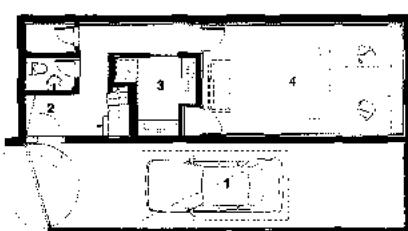
용적률 42.1%

구조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목구조



양시 평면도



01. 수지정
02. 현관
03. 드레스룸
04.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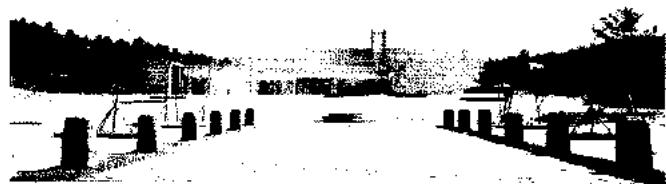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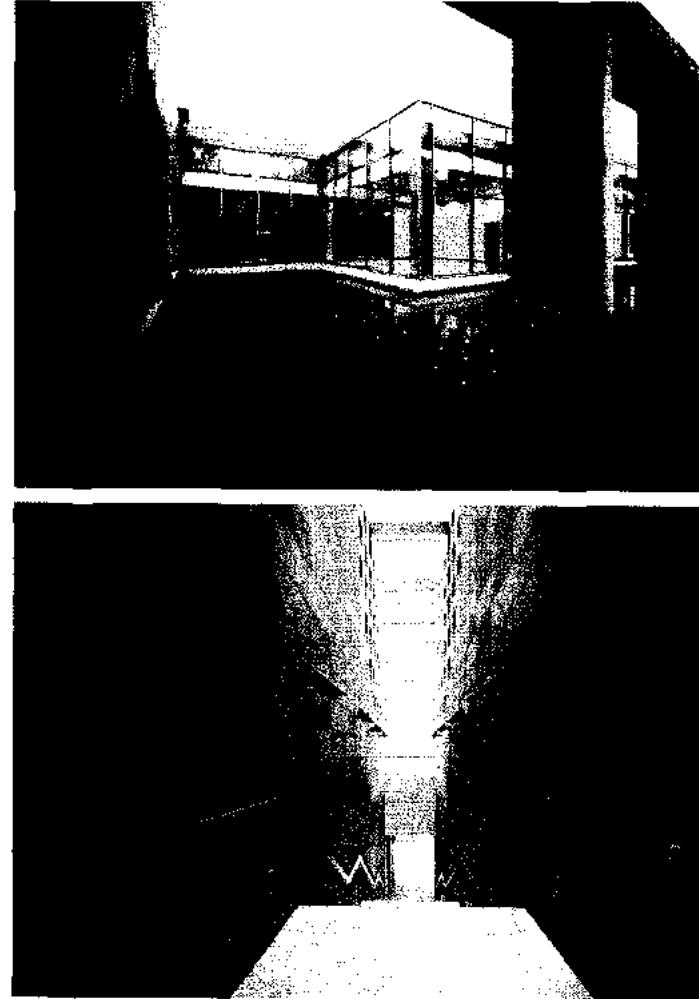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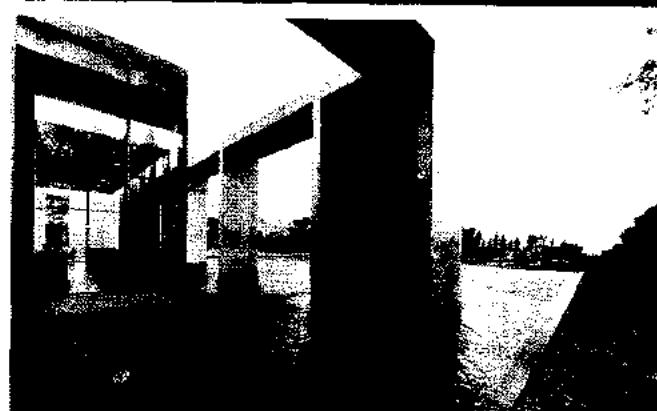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BTL Jeju Museum of Art

설계자 : 김태집(주.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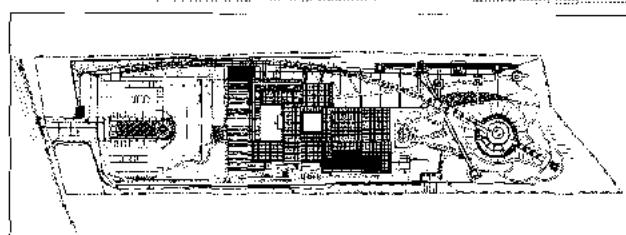
시공자 : (주)한화건설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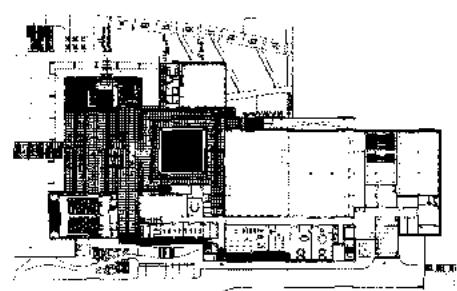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동 1680-7
지역구역 드시나역, 생활복지자연, 조연느니 지역, 상대보건복지
면적 대지면적 39,759m²
건축면적 4,359.80m²
연면적 7,087.00m²
건폐율 11.26%
용적률 16.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인식구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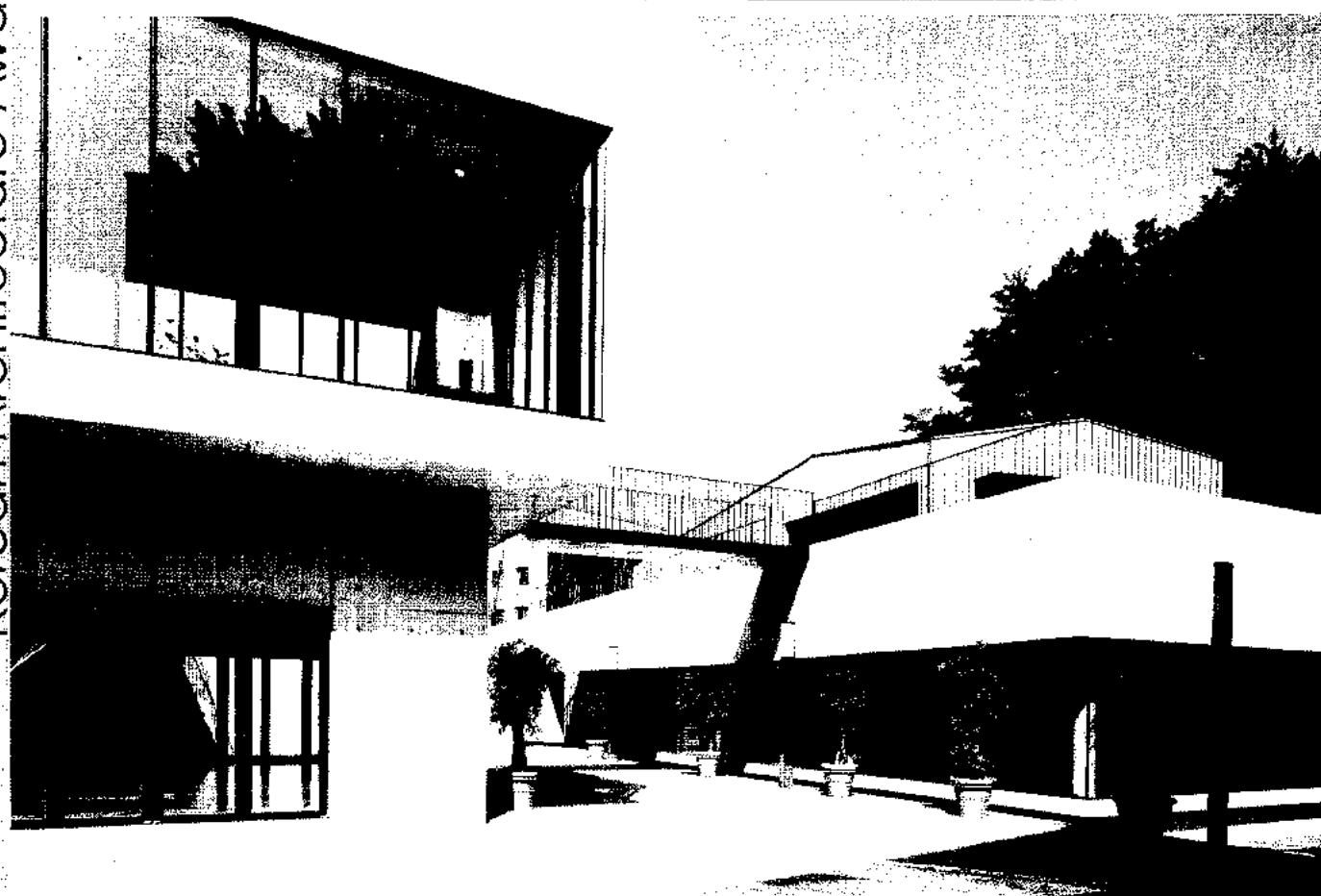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엔 아트 스페이스 Zien Art Space

설계자 : 조성룡(주.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시공자 : 케이알종합건설(주)

건축주 : (주)지엔



지엔아트스페이스(Zien Art Space)는 서울에서 30km쯤 떨어진 서울 구교에 위치한 아트갤러리와 아트숍, 공방, 이벤트홀, 레스토랑과 카페로 구성된 복합 문화시설로 도예미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배경 역할을 하는 북쪽 언덕의 빽빽한 참나무 숲과 디불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같은 분위기의 지붕 풍경과 전체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자

통로와 다당이 특별한 경관을 이룬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인접한 백남준 미술관(독일 건축가 Kirschen Schemel이 설계)에 도달할 수 있다. 주변 풍경에 반응하여 각각의 건물들은 지상의 대국, 다리와 연결되어 있다. 대부분이 노출 콘크리트와 티타늄아연판 미감의 경사지붕 건물인 빈면, 레스토랑과 카페 벽면은 적삼목, 이벤트홀은 유리커튼으로 계획되었다. ■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지역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아트갤러리, 아트숍, 공방, 이벤트홀, 레스토랑, 카페

대지면적 4,324m²

건축면적 829.3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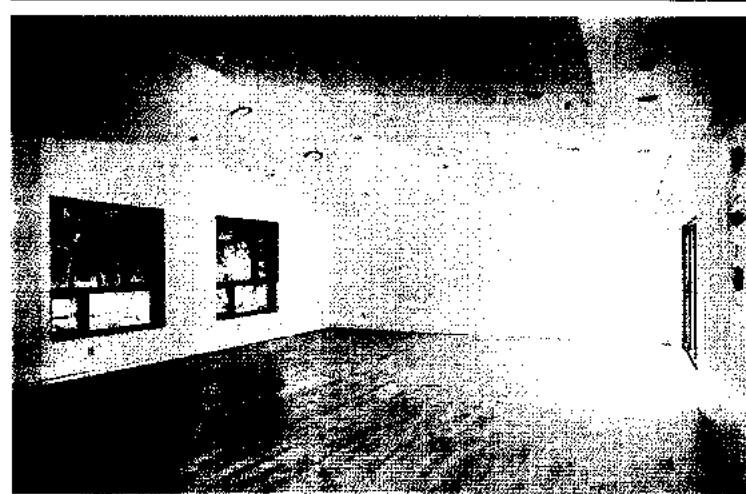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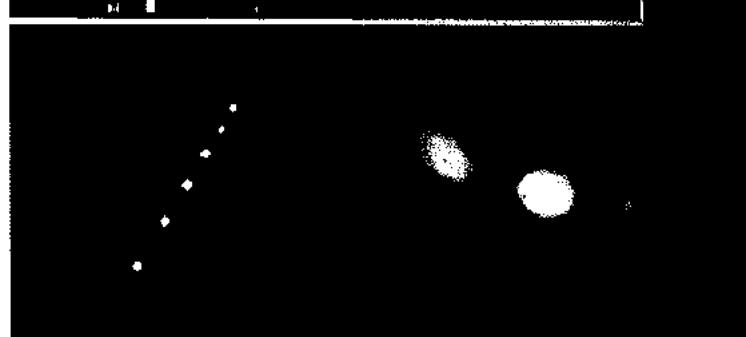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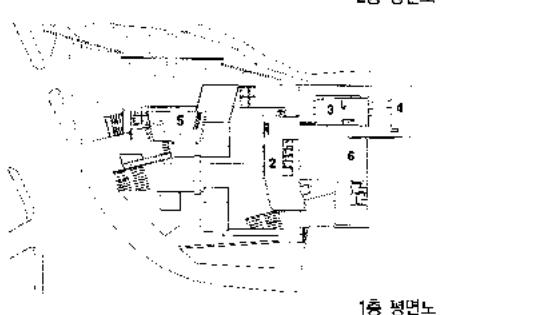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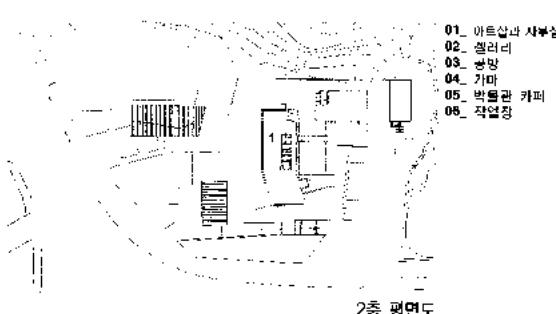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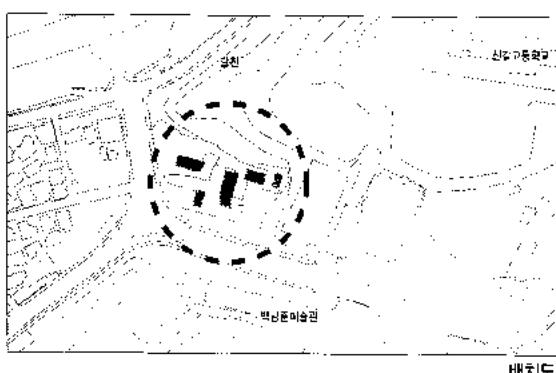
영면적 1,978.79m²

건폐율 19.2%

률적률 20.3%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청강문화산업대학/창작마을 Creation Village

설계사: 신준규(주)건축사사무소 씨지에스

시공자: 강산건설(주)

면적: 청강문화산업대학

배경 '창작마을'은 13년 전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설립 시 구상하였던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계획안이었다. 그와 동시에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청강대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했으나 물론, 새로운 청강대의 영상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했다.

부지는 캠퍼스를 들어서자마자 정면에서 보이는 작은 소나무 숲이 있는 언덕 지형이다. 상징성이 가장 강한 입구 측의 오픈 스페이스로서 학교 측은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기본 정신을 손승하는 계획안을 요구했다.

배치계획 기존의 마스터플랜을 유지하며 산학협력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IT관과 소나무군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기숙시설과 강의시설을 커다란 두 매스로 분리하고, 지형의 고저자를 이용하여 기능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도로 측에 낮은 강의시설을, 높은 기숙사는 기존 숲에 대응하여 북측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강의시설과 기숙시설 사이에 중정을 두어 기능을 분리하여, 동시에 저층부는 전체적으로 강의시설을 계획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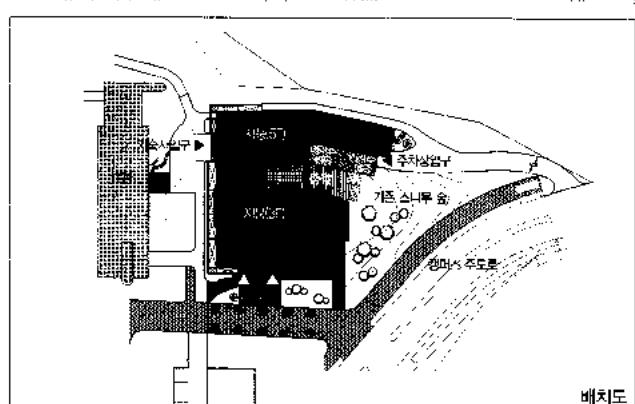
평면계획 주어진 지형 고저자를 최대한 이용 서로 다른 기능을 분리하고 내부에서 다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에 배치하



고 정문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처팡과 자연환경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하였다. 캠퍼스 주드로에 면한 매스는 지상 2개층으로서, 지하 1층과 1층의 CCRC 시설 및 강의시설은 캠퍼스 주도로의 경사를 이용하여 2개의 층에서 각각 출입이 가능하며, 안쪽으로는 승강을 두어 기숙사와 분리 되도록 배려되었다. CCRC 상부에 들어올려진 다목적홀은 두개층에 걸쳐져 있고 이동식 좌석을 적용하여 다목적인 기능을 충족시켜 준다. 기숙사의 출입은 '장작마을'과 IT관 사이의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2층으로 연계되므로 강의시설과 완전한 동선의 분리가 된다. 내부에서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연결되는 내부 지선계단을 두어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도모했다. ■



대지 위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3 일 300지
지역구	농협지역, 관리지역
용	교육연구시설
대지 면적	144,499m ²
건축면적	12,331.32m ² (학교전체 10,794.34m ²)
연면적	11,277.50m ² (학교전체 10,364.21m ²)
건폐율	13.01%
용적률	34.54%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질근본코리트조



수원화성박물관 Suwon Hwaseong Museum

설계자 : 김진구(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주)케이씨씨건설

건축주 : 수원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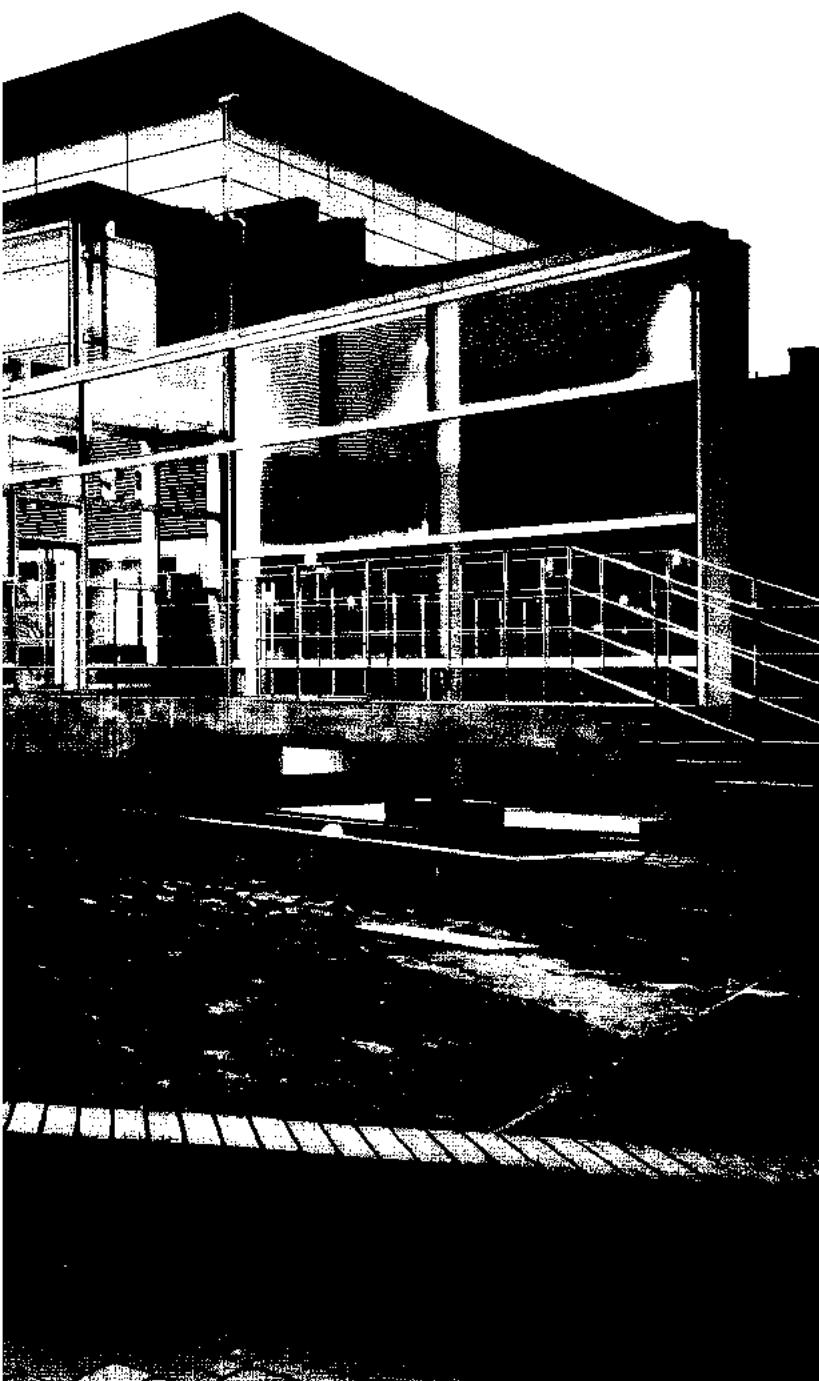
華城 안에서 華城 바라보기 _수원 화성박물관은 화성(華城)의 축조정신과 축조과정 등 18세기 화성신도사에 대한 모든 내용과 더불어 세계성곽을 비교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건립된다.

설계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부시가 실제 유적지인 화성 안에 건립된다는 점이었다. 비단,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빼고라도 당대의 모든 미학과 기술의 억량을 모두 발휘한 사적지 안에 현대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였고, 과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과제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도 건축 수 없는 부담이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무난하게 세워질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화성의 성곽이나 수비시설물 등의 형태적, 공간적 미학과 공존할 수 있는 형태를 추상화

하여 과거의 화성 안에 현대화된 새로운 화성을 표출하려 하였다. 바로 화성 안에 현대화된 또 하나의 화성을 만드는 방법론이 주제가 되었다. 또, 유적지 안에 건립되는 사적지 박물관으로 실제 사적과 건축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화성박물관은 화성을 관람하는 관리투트 중에 하나로 실제 유적인 화성성곽을 함께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람자는 성곽을 따라 걸으면서 자신이 지나온 구불구불한 성벽과 성벽사실들을 성가퀴 틈이나 총구를 통해 마주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박물관에서도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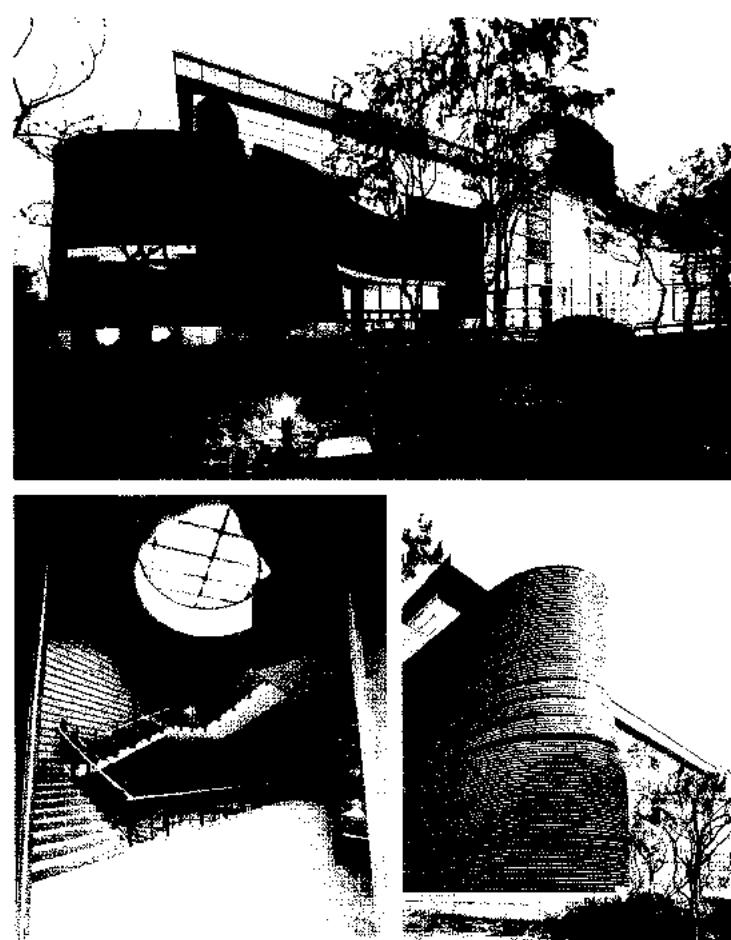
전시장 설계의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사업체광을 도입하면서까지 전시장에서 봉준이나 서장대와 같은 주요유적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시각적인 흔적과 성곽의 공간경험을 통해 실물유적을 설명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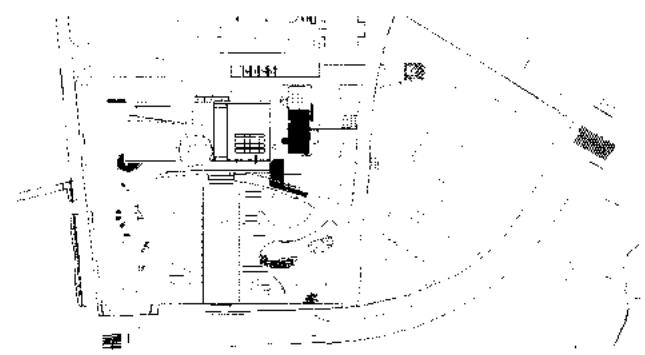
성의 공심돈을 공간화한 전망대에서 화성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했다. 바로 화성에단, 화성 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축적인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박물관 구성에 있어서 주력한 점은 상설전시장을 2층에 구성하고 1층을 무료개방공간인 Free-zone으로 배치하여 박물관 활성화 유도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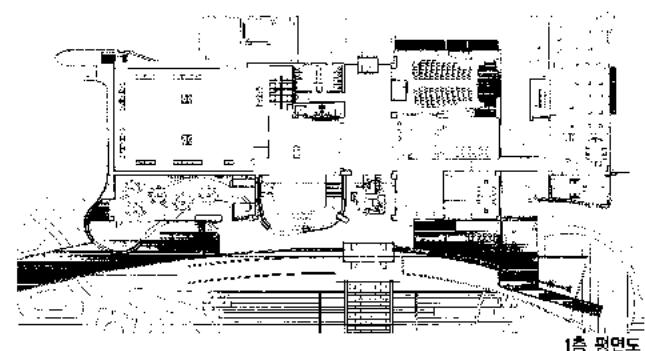
Free-zone은 중앙의 메인홀을 중심으로 카페데리아는 전면 수공간과 연계되고 입장객의 접근이 가상 용이한 위치에 뮤지엄샵과 자료검색실을 배치했다. 이러한 의도는 외부의 옥외전시시설과 조경공간, 건축공간이 일체화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의 장으로 제공되어 박물관 이용시간외에도 개방되어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구현하는 열린 박물관을 실현하는 정지가 되도록 한 것이다. ■



대지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항동 49번지 19외 124필지
용적률 둘회 및 접회시설
대지면적 23,150m²
건축면적 2,489.55m²
원면적 5,634.72m²
건폐율 10.75%
용적률 16.46%
구조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버지도



1층 평면도



대지 읽기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운암택지개발지구내 위치하며 주변 공동주택 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대지, 전면도로 간너판의 균린공원과 마주보는 주거 단지내의 공공시설로 대지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방향은 둘러싸인 주거시설의 암미당이면서 전면 균린공원의 연속된 자연으로 균린공원과 연계된 또 하나의 공원으로 인지되길 기대하며 건물 후면 공동주택과의 근접으로 인한 조망과 채광의 불리를 고려한 거실등의 베지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후면 베스 처리에 중점 계획하였다.

도서관 기능의 공간별 조성 및 관리체계 확보 사료 및 열람, 사무 및 관리, 문화 및 휴게 등의 공간을 기능적으로 조성한 평, 단면 계획으로 도서관 기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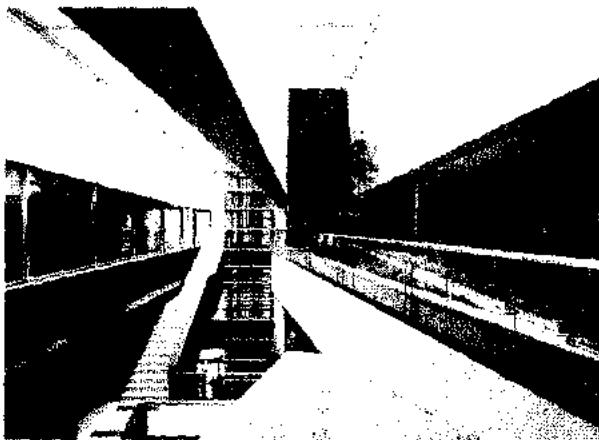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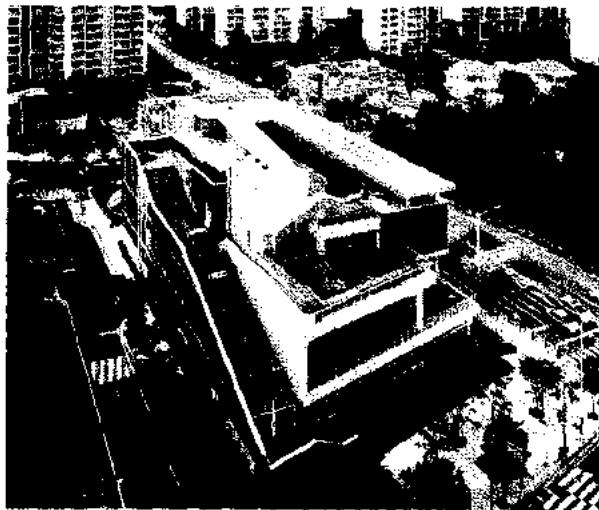
명확한 체계를 수립하고 특히 관리사무존의 수지, 수평적 연계로 어린이자료실, 종합정보자료실, 문화시설존의 중앙서비스카운터와의 직접적 연결을 고려한 서비스 동선의 분리를 고려하였고 다목적홀,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의 은화/휴게시설의 충분한 용도 구분으로 기능적 조성을 형성했다.

중앙의 오픈된 아트리움을 통한 구심적 공간 구성_수직동선의 중심이 되며 개개의 공간들을 어우르는 충체적 공간구성의 구심적 공간인 아트리움 세획으로 도서관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실내조경을 통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의 연출을 도모하고 2층 종합자료실의 일부분을 오브제 형태의 타이팅 박스화하여 공간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시각적 풍요를 우도하며 천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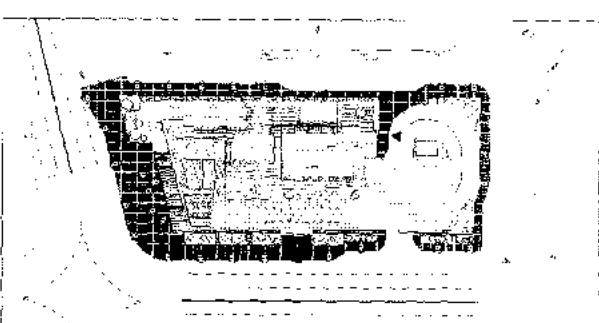


분을 이분화하여 공간의 다양함을 구성했다.

외부공간의 시퀀스를 통한 지속적 연속 자연마당(Eco-Palette) 대지 전면 가로 및 격물내 각기 다른 레벨의 연속된 자연마당(Eco-Palette)은 기초 공공 공간 정보마당에서 시작되어 건물후면 오정마당을 거쳐 3층의 옥외교실과 4층의 휴게공간 및 옥상정원으로의 연결동선은 나서 4층의 카페테리이 옥외공간과 연계되는 순환형 동선을 확보한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의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주출입구 전면의 자작나무 군식은 가로와 바로 멀리는 거실의 시작점 원통요소이며 건물 전면의 우드플로어 패턴은 재료의 맥락성을 기자며 옥상까지 연계되는 공간적 연속성을 표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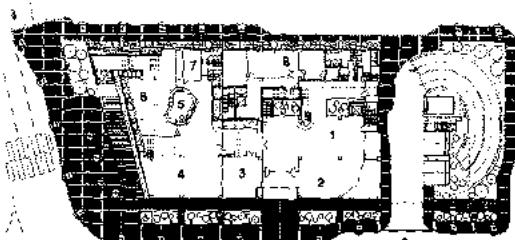


대지 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0-3
지역 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2,970.1m ²
건축면적	1,772.33m ²
면적률	6,421.36m ²
건폐율	59.67%
용적률	137.8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1층도

- | | | |
|-----------|-----------|-----------|
| 01. 로비 | 04. 미팅디자인 | 07. 청습체육실 |
| 02. 주사랑고 | 05. 아이기방 | 08. 방재센터 |
| 03. 실내체육장 | 06. 유아체육장 | 09. 강내미술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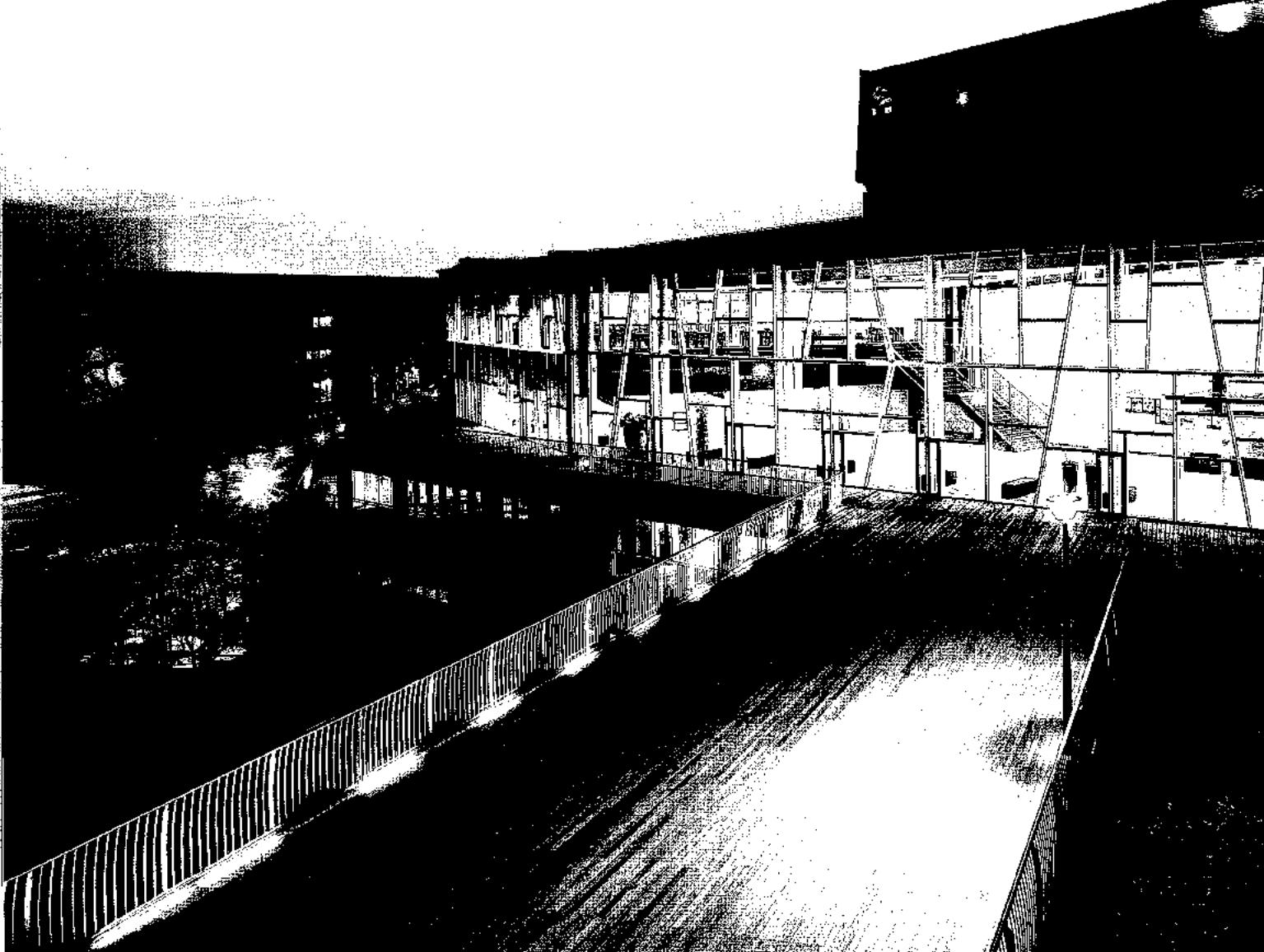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서울시 서천 연수원

설계자 : 한종근

시공자 : 주택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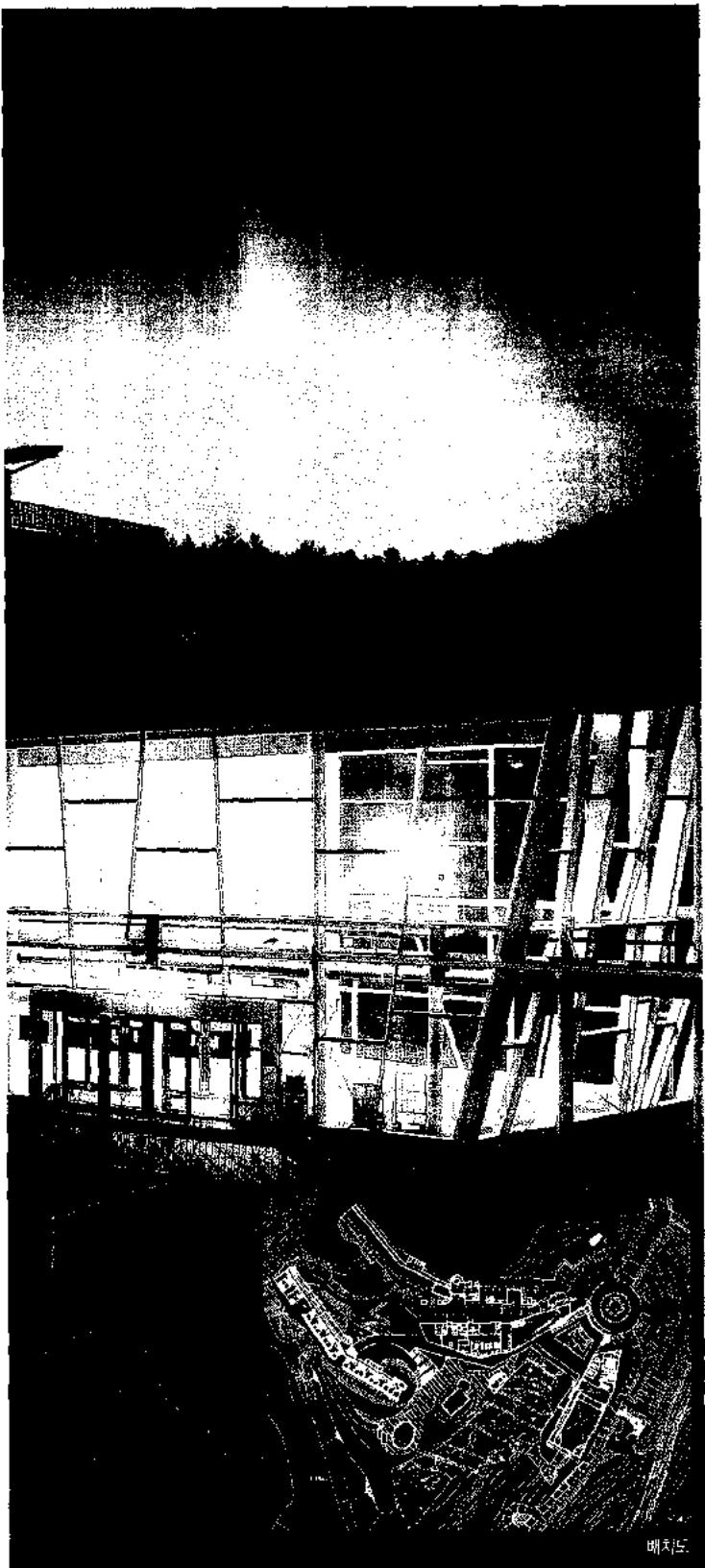
건축주 : 서울시



서천 연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한 휴식복지시설이다. 서해안 비인만의 끝자 란절경을 낚은 대지 위에, 건물은 그 자체가 땅과 풍경의 일부로 자리잡는다. 비 인만은 자연습지, 갯벌과 사구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한적한 어촌 마을들이 살아 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환경과 갯벌 보존, 지역주민의 생업 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디자인은 '울림, 순응, 여정, 풍경'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 공공시설을 지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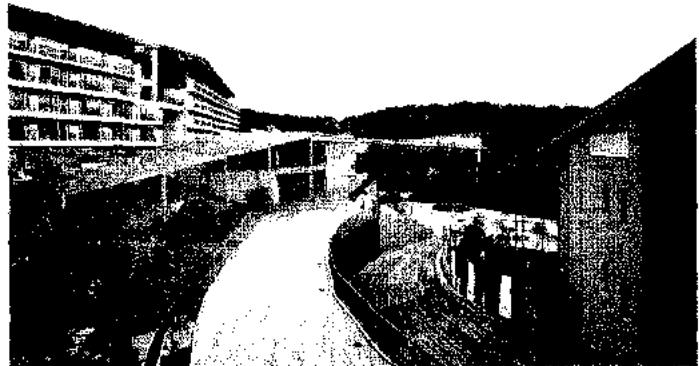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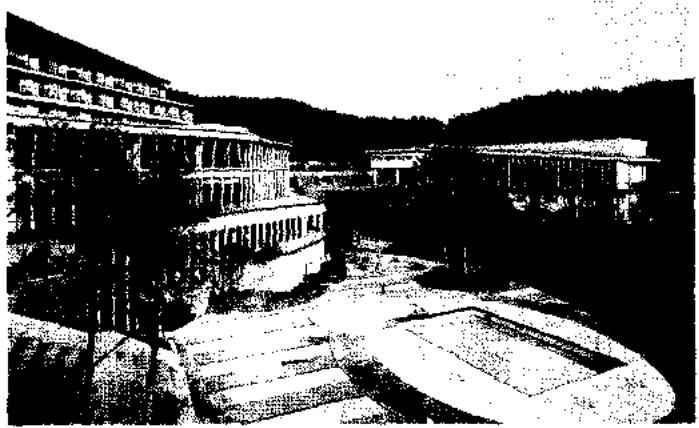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기존 자연군락을 노존하고 통경 축을 확보하는 가운데 각 건물들은 편의, 숙박, 연수 기능별로 분동하여 프로그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편의동과 연수동은 서로 마주보며 생태 흐름을 이어주는 열린 V자로 배치되고, 숙박

동은 황과 조망을 고려하여 Wood Village와 Sea Village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고지대의 Wood Village는 주변의 소나무 숲을 테마화 한 것으로, 객실의 넓은 창으로 무른 바다를 감상하고 숲 속을 걷는 듯 복도를 걸을 수 있다. Sea Village는 발밀으로 바다가 등을 듯 해안과 적극적인 연계를 꽤한 집이다. 이들 각 분동은 1층의 그린 코리더와 치하 1층의 블루 코리더를 통해 연결되며 방문객을 자연으로의 여정으로 이끈다. 특히, 1층 공간은 숙박동과 연수동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갤러리 및 문화 휴게실이 함께 갖춰져 있다. 배치계획_생태의 흐름을 이어주는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편의동과 외부로 열려있는 연수동이 위치한다.



좋은 진정과 힘을 갖는 숙박동, 하나는 산을 안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맞이한다. 편의동과 연수동은 서로 마주보는 V자로 배치되어 주변의 생태 흐름을 이어주고, Wood Village와 Sea Village로 테마화된 숙박동은 바다 및 숲과 어우러지며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를 더한다.

배치개념_연수원은 '자연 친화적 공공 시설'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열립, 순응, 어정, 풍경'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건축적 요소로 계획하였나, 즉 바다로 열리고 땅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로서 방문객에게 자연으로의 여정을 아પ이며, 그 자체로 땅과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건축물로 계획하였다.



대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시면 월호리 621-1,

지역 구역 계룡관리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 면적 43,241.00m²

건축 면적 6,898.8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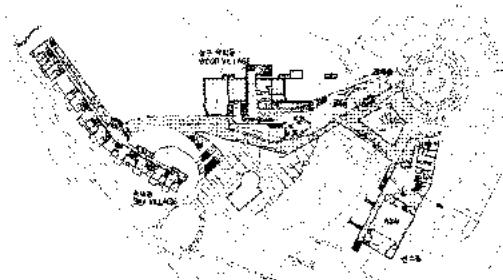
연면적 18,925.88m²

건폐율 16.18%

용적률 31.23%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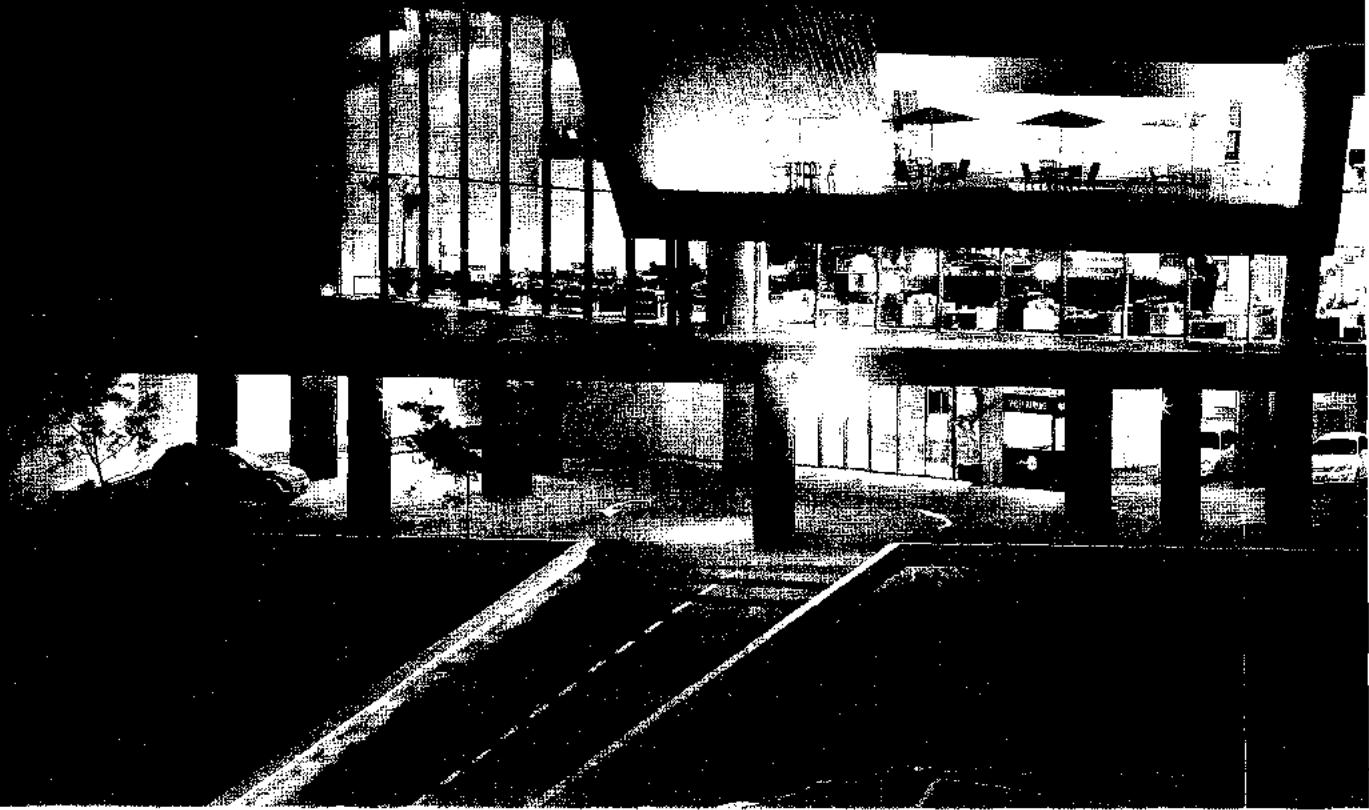
카페 오라

cafe ora

설계자: 임재동(건축사사무소 OCA)

시공자: 대왕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축주: 정홍채



Cafe Ora는 올왕리와 왕산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에 위치한다. Cafe Ora는 바다를 바라보는 틀이다. 대지 바로 앞을 가로 막고 서있는 고층의 콘도미니엄 덕분에 틀은 자연스럽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조금 큰 틀은 왕산 해수욕장을 향하고 작은 틀은 올왕리 해수욕장을 향한다. 이 두 개의 틀은 주차장 상부의 데크 위에 위치한다. 틀의 형태는 주변의 숲을 배경으로 가장 단순하게 만들고 싶었다. 최대한 건물을 형태를 버리고 난순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틀의 재료도 단순한 형태를 따라 노출콘크리트 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틀이 바다를 향하듯 내부 마감재도 바다를 향 한다.

내부 마감은 벽에는 알루미늄 앵글, 천정에는 알루미늄 루버를 사용 하였는데 벽과 천정 모두 내부에서 외부로 바다를 향한다.

바닥재는 내부와 외부 모두 목재를 사용 하였는데 바닥 패턴의 방향 역시 바다를 향해 질주 한다.

내부에서는 수어진 틀 안에서 바다를 보지만 외부 공간에서는 틀과 틀 사이를 통해 바다를 본다. 대지에 박혀있는 지붕판 위에서는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73-6

지역구 보전동지역, 철도고도지구

용도 제1종 균형 생활시설

대지면적 2,505.0m²

건축면적 505.8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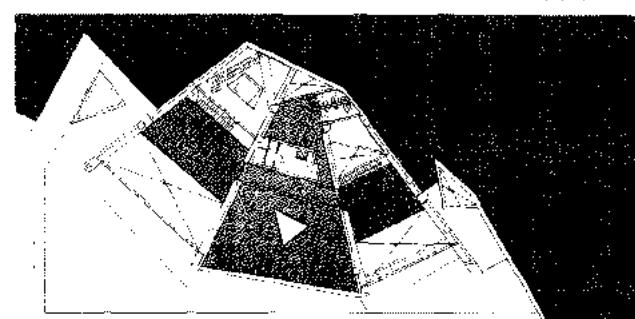
연면적 2,157.86m²

건폐율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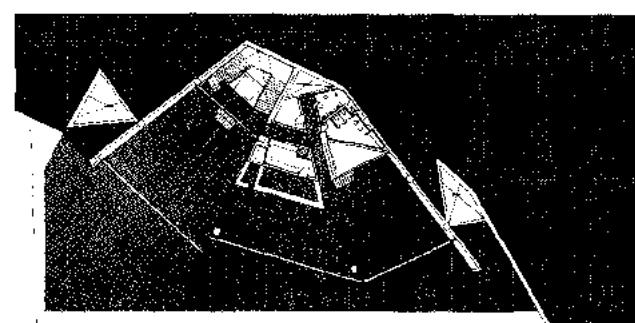
용적률 10.93%

규모 지하 2층, 지상 1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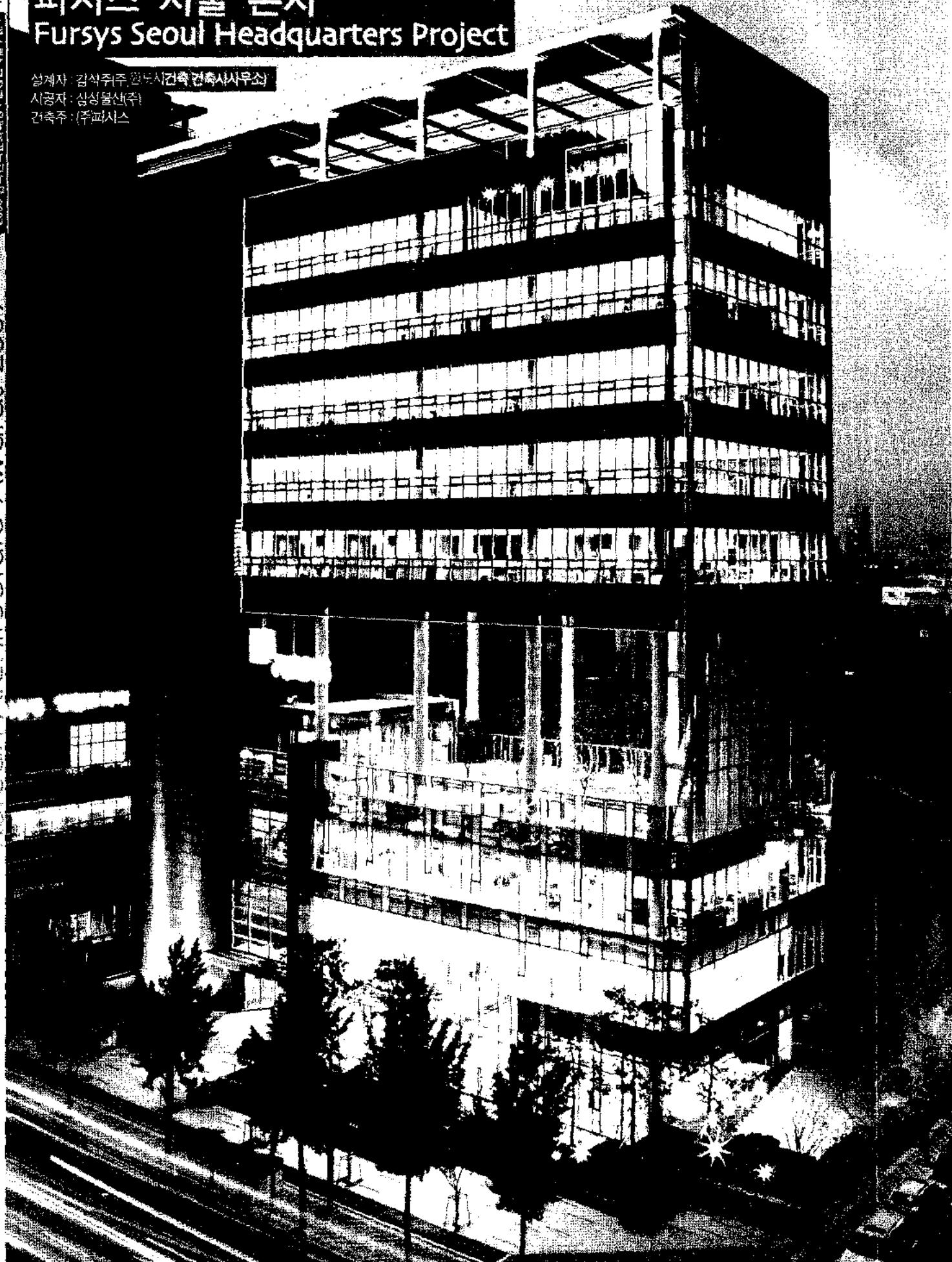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퍼시스 서울 본사
Fursys Seoul Headquarters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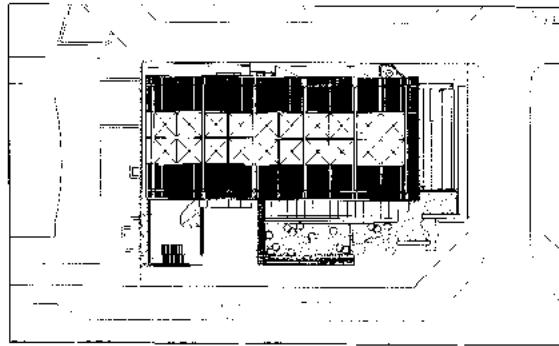
설계자: 김석주(주) 원도시 건축 건축사사무소

제작자 : 삼성물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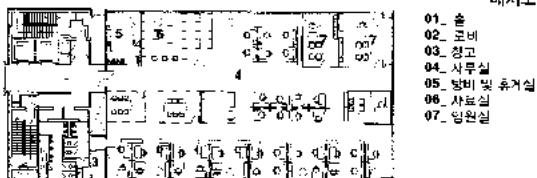
건축주: (주)파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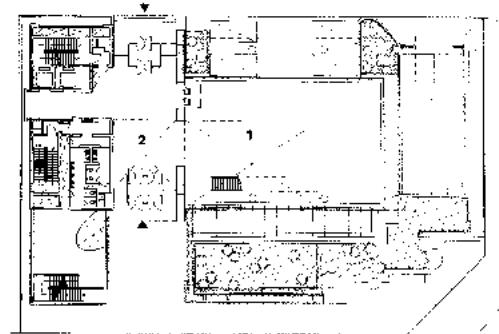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5-1
지역구	준주거지역, 역사문화이관지구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681.20m ²
건축면적	771.68m ²
연면적	11,391.85m ²
잔폐율	45.90%
용적률	383.73%
구 모	지하 4층, 지상 10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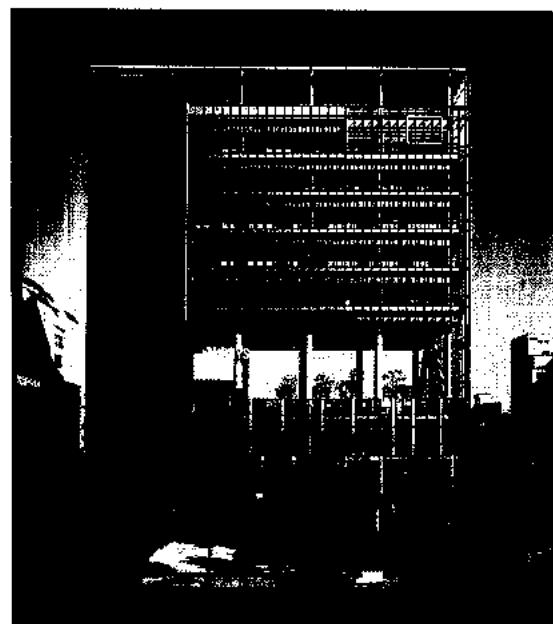
배치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는 오금로에 면하여 약 500여평의 더지에 자리잡은 2종규모의 수불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본시를 신축하는 작업과 함께 소魯의 대지오는 후면 6m소로로 인접한 현 사옥을 거보수하여 활용더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였다.

설계가 한참이나 진행된 후에야 현 사옥에 대한 개보수는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진행과정에서의 제안은 실현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언젠가는 건축주가 선택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다.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은 간단하며 명료했다.

건물전체를 '전용사옥으로 계획하여 최대한 효율적이며 주변건물과 비교해 당당 할 수 있어야 함' 이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100% 사주식 주차획보, 시하 1층에 가능한 넓은 다목적 강당의 설치, 임여 바닥면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안, 낮은 크아비, 직원 휴게공간의 소성 등 세부석인 문제들이 불어 나갔다.

한정된 대지의 규모로 소화해내기 어려운 과제들도 고민이었지만, 대지가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도 하나의 난관이었다. 백제고분군과 연결된 송파루에 접하여 역사미관지구로서 대지전면의 12m후퇴선 지정, 대로와 접하여 있지만 준주거 지역에 둬 있어 용적률이 갖는 한계 등이 그것이었다.

물리적인 조건인 자주식주차, 지하의 약 270석 규모의 강당 형성, 16m 무주공간에 30m 깊이의 활용성을 높인 업무공간의 형성, 낮은 코아비 등을 하 -> 하 -> 전개시켜 짚지만, 낮은 용적률로 인하여 기능적 배지를 적층시킬 경우 주변건물에 비하여 상당히 웨스턴 스케일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새로운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매스 구조에 대한 고려는 두 가지의 개념의 조화를 통하여 전개시켜 나갔다.

첫째는 내지주변에 형성된 자연 소건과의 연계이며, 둘째는 건물의 블록에서 오는 외소함을 수직적 확장을 통하여 재구성하여 설계 전제조건인 당당함의 구현하는 것이다.

계획대지는 송파구에 위치한다. 송파구… 서울의 자치구 중 가장 녹지률이 높은 구이다. 주변으로 가깝게는 오금공원, 웃말공원, 가락공원등이 인접하여 백제고분군과 디 흥장되어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등과 더불어 수많은 삼지형 공원들이 자리잡고 있다. 오금역 사거리에 근접한 대지는 주변으로 송파우체국과 오금 중교교 등이 낮게 형성되어 동측으로는 매가를 러단위의 녹지공간인 오금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며 북측으로는 시계가 하남의 이성산 등성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지역적, 수평적 오픈 스페이스와 전형 녹지의 수직적연계를 고려하였다. 이는 건축지정선 내의 녹지형성-하늘정원-구사옥의 옥상의 녹화다당-시무준의 수직적 보이드와 플랜드화-옥상 정원의 수직연결고리를 통해 실현하였다.

약 13m의 높이를 갖는 4층의 하늘정원은 수직적 보이드를 통한 가로의 시각적, 각각적 개방감 확보와 더불어 10주의 교목으로 위요된 녹지공간으로 계획하여 건물내의 외부로 열린 휴게공간의 제공과 보행자에 대한 시각적 보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물리적 오픈 스페이스의 자연의 연계와 융합되도록 투명소재의 스키를 고려하였다. 즉, solid한 면의 파취를 통한 강력한 프레임 형성을 통한 시각들의 형성이 아닌, 투명한 소재의 물리적 경계의 안-밖의 연장과 흐름을 통한 계면을 약화시켜 보다 확장된 시각적 연속성을 가진 프레임을 형성하여 배경속 건물이, 건물속에 배경이 융화되도록 하였다.

이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변과 가구전문회사로서의 아이콘을 강조한 입면을 제안하였으나 간결하여 정형화된 이미지를 요구한 건축주의 요청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익스테리어에서는 절제된 선과 맑은 이미지/인테리어에서는 심플한 라인과 재질적 러스티케이션의 대비를 통한 내외부의 연계와 조화를 컨센트레이션하여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동탄 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 반도유보라 아파트

Dongtan Narumaeul Worldmeridian Bando U'bora

설계자 : 전영성(주.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월드건설(주)

건축주 : (주)반도건설



동탄 신도시는 면적이 분당 신도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인구밀도가 낮고 녹지율이 높은 쾌적한 환경을 지닌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를 목표로 건설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속의 청단자족도시, 개성 넘치는 친환경 주거단지라는 목적으로 따라 문 프로젝트는 사람과 환경이 우선되는 주거환경의 트렌드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획 능력은 서남향의 사다리꼴이나, 경관녹지 부분과 고등학교 부분을 제외하면 V자 모양의 대지가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세대를 남향 배치하는 동시에 동간 거리 확보와 조망성 향상을 위해 매스의 모양을 다양화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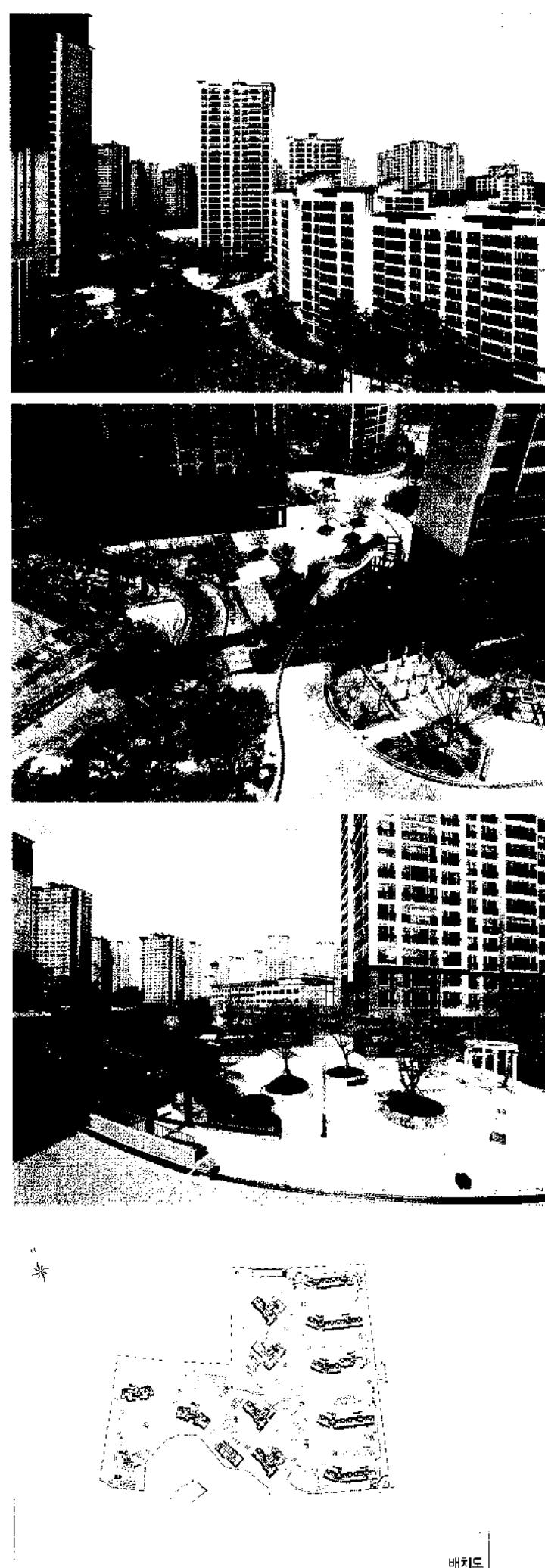
도로레벨 보다 높은 데크 계획과 명확한 보치분리, 주차공간의 지하화를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입체적인 외부공간은 다양한 체험을 유도한다.

필로티 계획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공간의 연속성 및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단지 내 대규모 경관녹지와 특색있는 조경계획은 도심 속의 쉼터처럼 수려하고 특화된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다.

세대 계획에 있어 재광과 통풍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외기에 면한 전면폭을 극대화하고, 변화되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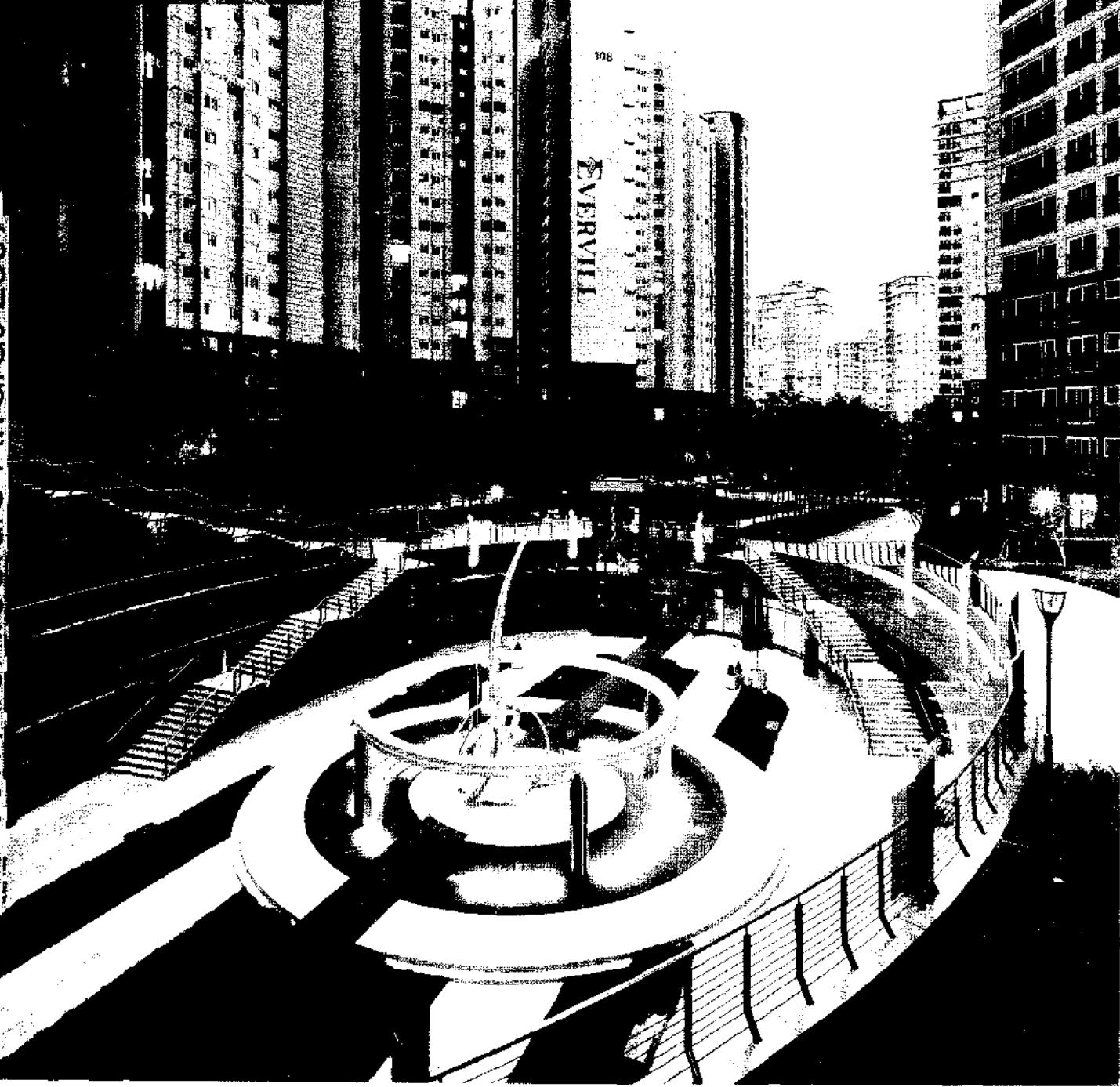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등탄택지개발지구 3-9블록
지역구역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57,693m²
건축면적 7,394m²
면적률 146.180.3968m²
건폐율 12.77%
용적률 179.63%
규모 지하 1층, 지상 30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구미 읍계 현진에버빌 엠파이어 Hyundai Evervill Apartment Block 4, Gu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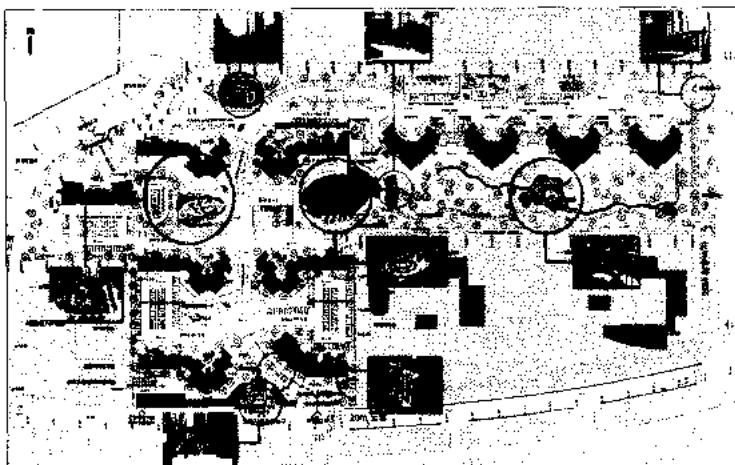
설계자 : 정영균주. 허재경(한국부동산부소)
시공자 : (주)현진
간접주 : (주)현진에버빌



구미시 국가산업단지의 최첨단 이미지와 신 주거문화의 구현을 위해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형성, 친환경적 생태난자 조성, 유피권티스 환경 조성 등 고물격 수기단지를 계획했다. 특히 37층의 구미시 최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담보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혼합형과 탑상형, 두 형태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고층 저밀도의 단지가 되도록 했다. 완충녹지에 안정한 터상형은 대형평형의 조합 및 단지 내 최고층인 37층으로 계획해 랜드마크 타워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거주성 및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세대 남향위주의 배치를 계획했다. 충분한 활기 및 채광 확보를 위한 맞통풍 구조, 3면 개방형 평면, 2면 확장

형 거실 등 트렌디한 단위세대를 계획했으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마스터존 강화, 서브존 드라마로운 가변성을 구현화했다. 단지중심의 중앙광장과 연계한 단지 내 보행가로를 구성하고 주동의 저층부를 필로리로 계획해 가방감 및 바람길을 유도해 쾌적한 단지를 구현했다. 풍부한 조경시설 확보로 다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야외골프장 및 친환경적 생태연못 조성했으며, 단지전체를 연결하는 산책길을 제공했다. 난지 내 수면의 친근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중앙에 선큰가는을 조성하고 휴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계획해 입주민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지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18-1블럭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균형 생활시설
 대지면적 79,577.00m²
 건축면적 24,353.95m²
 연면적 244,523.74m²
 경제율 30.60%
 용적률 247.03%
 규모 모 11개동, 지하 2층 / 지상 3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배치도



35형



39형



48형



68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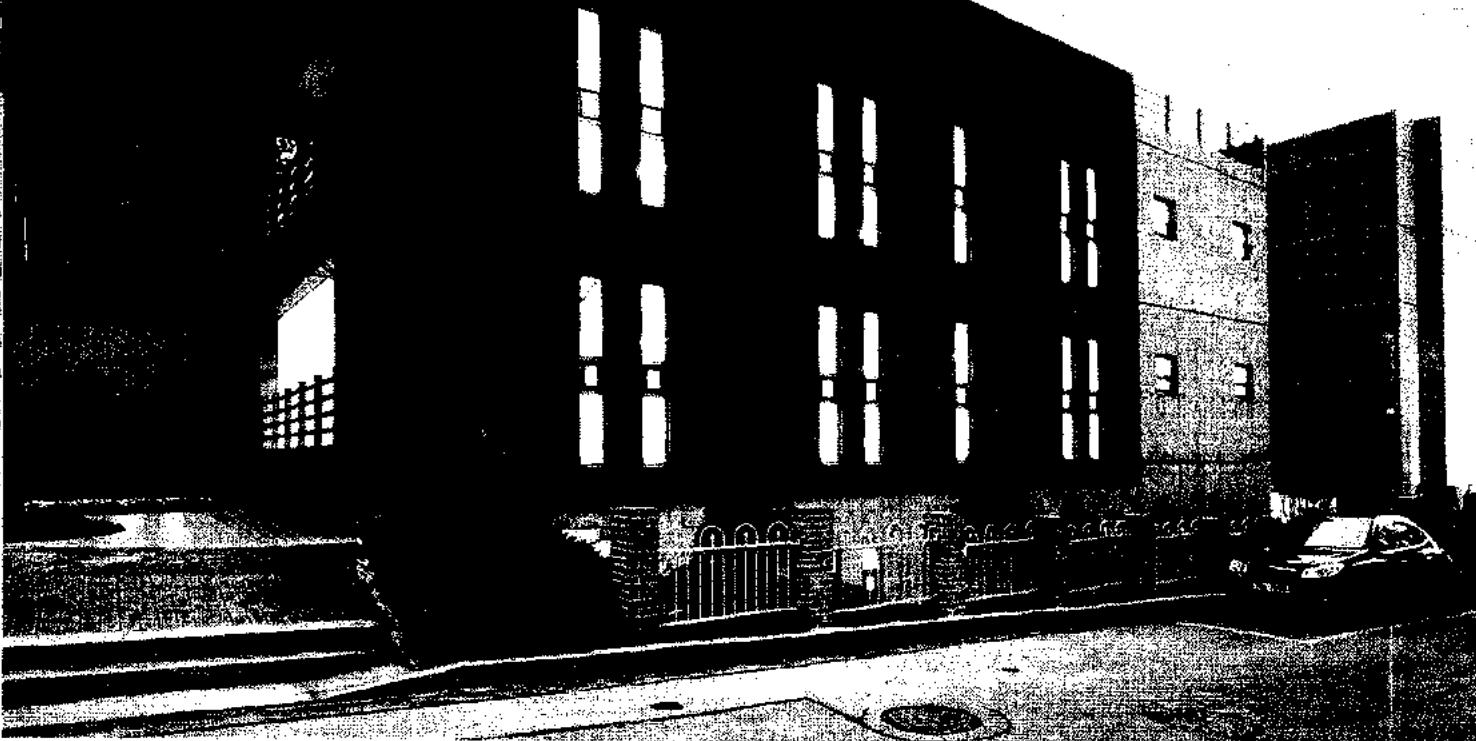
용인 사랑의 집

Yongin Residence for The Aged

설계자: 서영선(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대경운건설 주식회사

감독주: 사회적협동조합 충연회



건축주는 그동안 암만 보고 달려온 그간의 우리에 대한 빈성으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우리 모든는 책임감을 나누어 취지를 같이했다. 이에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시설을 주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건강이 잉호한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도의 [용인 사랑의 집]은 건축적으로 창고할만한 사례로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소외된 계층을 드러낼 것인가…

사회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또한 이것의 유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고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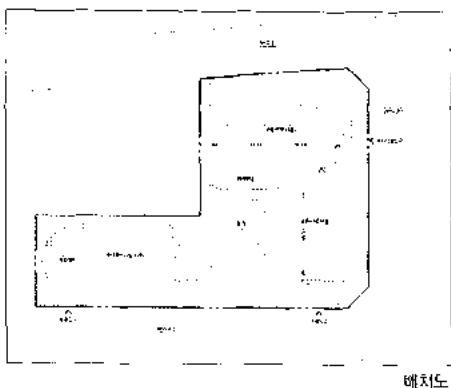
초기의 용인 사랑의 집은 협오시설로 생각되어,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시설로 설계했는데, 협오시설로 인식되니 부담은 되었지만, 지역에 잘 융화되는 건축물로 만들어 더불어 사는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마치 사람 서는 동네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병원도 있듯이 말이다. 이 독거노인용 공동주택도 그렇게 어울려서길 바랬고, 함께 공존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했다. 그러한 바탕으로 주거동과 별도로 복지동을 만들어 복카페, 브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강당을 배치하였고, 접근성을 고려한 좁은 오솔길과 쾌적한 중정을 두어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해주고

커뮤니티를 도모하였다. 또한 1층의 데크식 휴게마당은 입주노인들에게 인근 주민과의 커뮤니티와는 별도로 그들만의 쉼터를 주고 싶은 설계자의 마음이 있다. 휴게 마당은 녹음이 가득한 커뮤니티의 장인 증장과 연계되면서도 주동 에서의 진출입 편리성을 극대화하였기에,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우리 할머니의 마실터처럼 그런 부담감 없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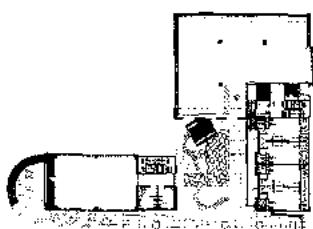
하지만 무엇보다 고민이 많았던 곳은 역시 노인들의 주기공간이었다. 독립된 가구로 할 것인지 2인 1실로 할 것인지, 식당은 개별로 할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세탁 등등 실제 사용자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운영시스템이 모호한 상태라 작은 면적이지만 하나하나가 고민덩어리였다. 사업예산관계나, 운영 및 유지관리로 여러 가지 익록을 가졌던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세대규모만큼은 노인 두분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1인1실로 계획하였고,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낙향위주로 세대를 배치하였고, 복도는 차량이 잘되는 유리커튼월로 계획하였다. 노인주거라 자칫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밝은 분위기를 살 수 있도록 건축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입주노인들의 외로운 주거공간을 좀 더 활기차고, 기념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복지동이었다. 초기에 주거공간과 유기적으로 엮어진 복지동을 계획하였으나, 관리상의 문제와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중성에서 별도 출입하는 복지동으로 계획하였다. 그로 인하여 입주노인들의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었고, 복지동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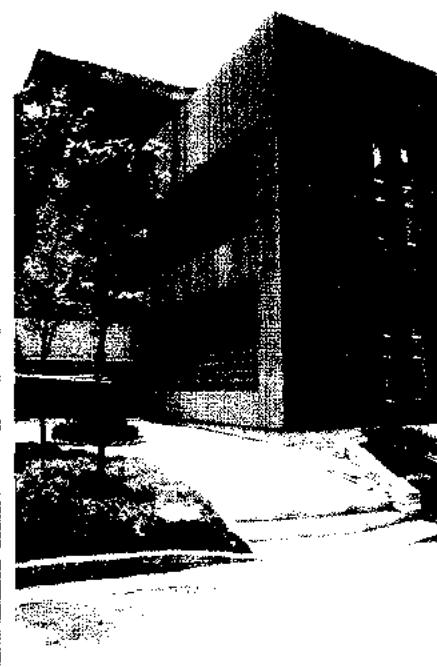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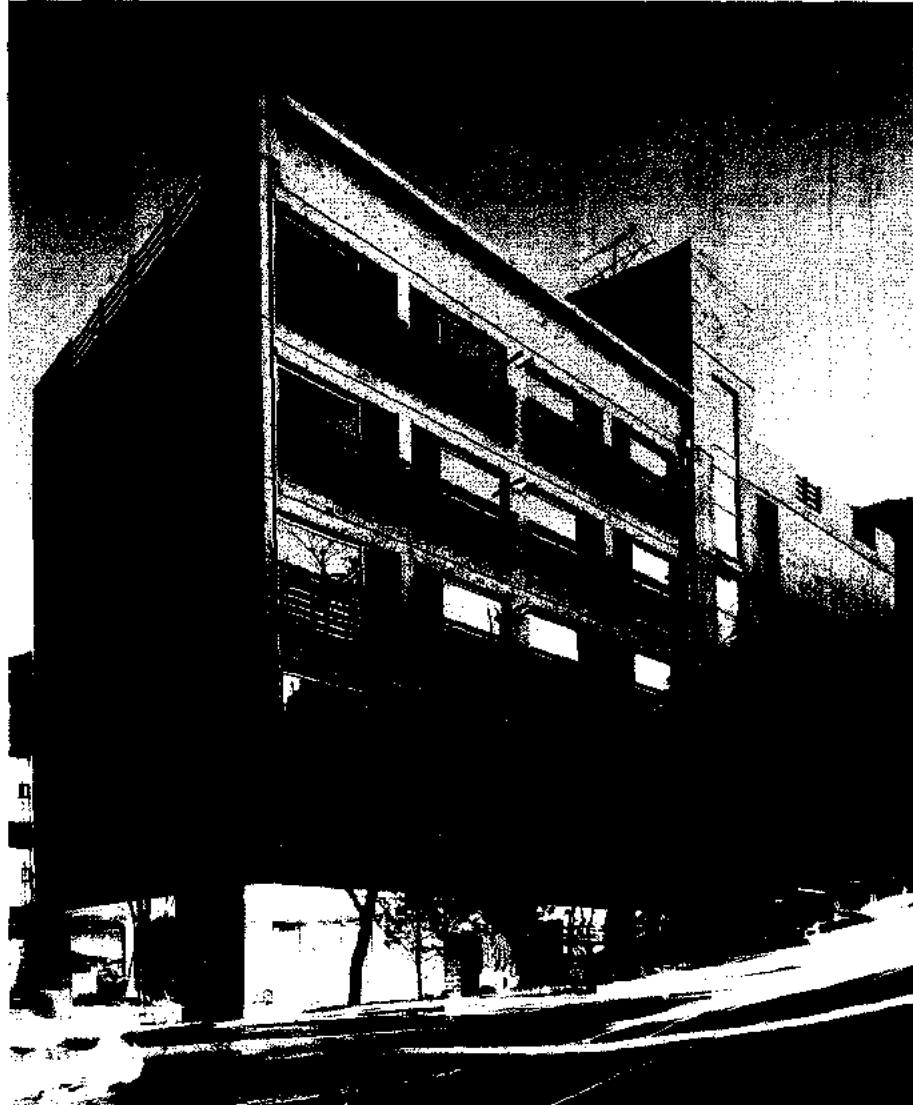
대체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63번지
지역 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용 도 공동주택(노유자시설)
대지면적 1,500.00m²
건축면적 814.92m²
연면적 2,413.37m²
건폐율 54.32%
용적률 110.22%
구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배치도



1층 평면도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9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 철암, 새 옷을 입다_신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우수상

- 양(良)의 신단(信丹) 중심성 회복을 위한
임금나루터 재현성화 개혁안
- 잊지 마라! 벽을 긁히면 나라가 된다
• 청강(淸江) ~ 리조그-피룡 통한 도시회복의
새로운 방법론
- 다시 턱으로 계 하다
- 연천, 태극(太極)

특선

- 산대와 도시문화가 어우러진 낙동강 빙물관 개혁안
- 달허전·강계~에서의 gradation(진증법)을 통한
도시의 순환

승자 입은 자유시, 소유도

- 노치마당(노치마당) 시자생활 위한 비움과 소통
- 유수지에서 머무르니
- 지역재(재민)와 공동주거를 기반으로 한 구릉지
도로수거지역 재생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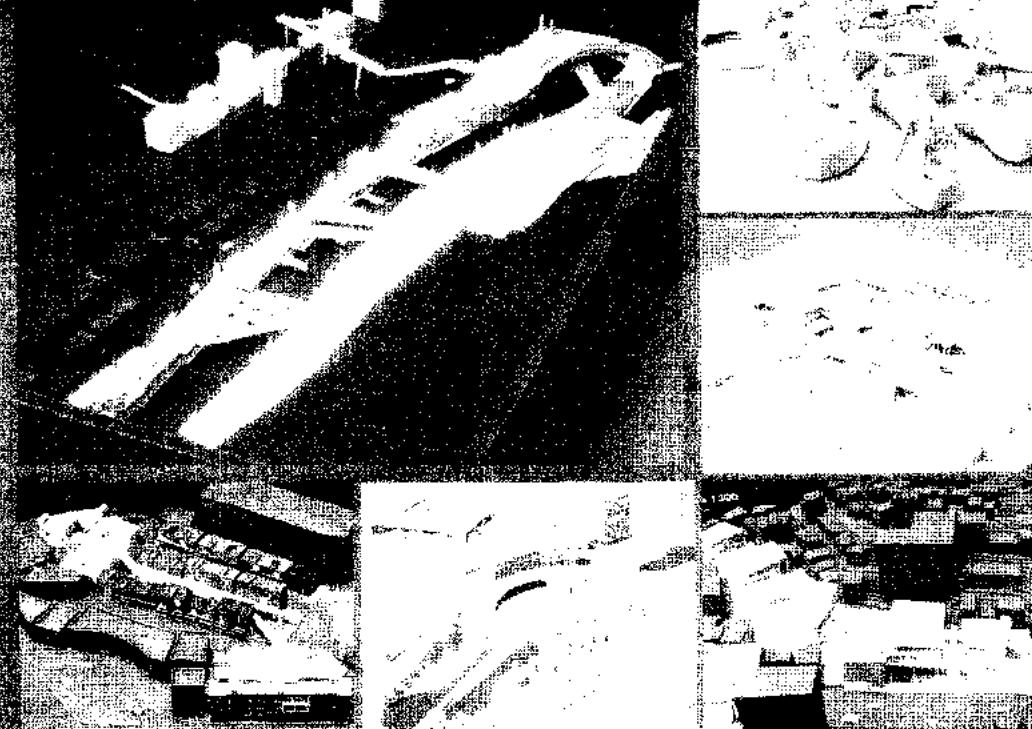
입선

- 경계의 저구성
- 회복 잊어버린 해방촌의 기억
- 문화의 언덕 ~ 주산공원
- 제3의 공간
- 치자도(漆子島)의 회복과 서유를 통한 개인의
기억 찾기
- 미디어 플랫폼
- 서·갓 속에서 재생하는 옛 것
- 다시 걷는 정방의 기억

• 복학적 종종성 도시의 성성, 변화, 발전 그리고 서예

- 풍습보정과 역사적 가치보존과 주민인정개선의
실상을 위한 전통경 전통문화시설 개혁안
- 경계의 저구성, 판문점의 황적분단에서
총석연경을 통한 절경지대의 재구성
- 신문, 도심지의 서성
- 오래된 미래
- 문화에 상상고
- 강성적 자유... 그리고 공간
- 변화의 기운에서
- Weaving the cultural narratives
- 조비늘
- 표원역의 또 다른 시작
- 문회 충돌 극복을 위한 문화적 미미너리티의
새로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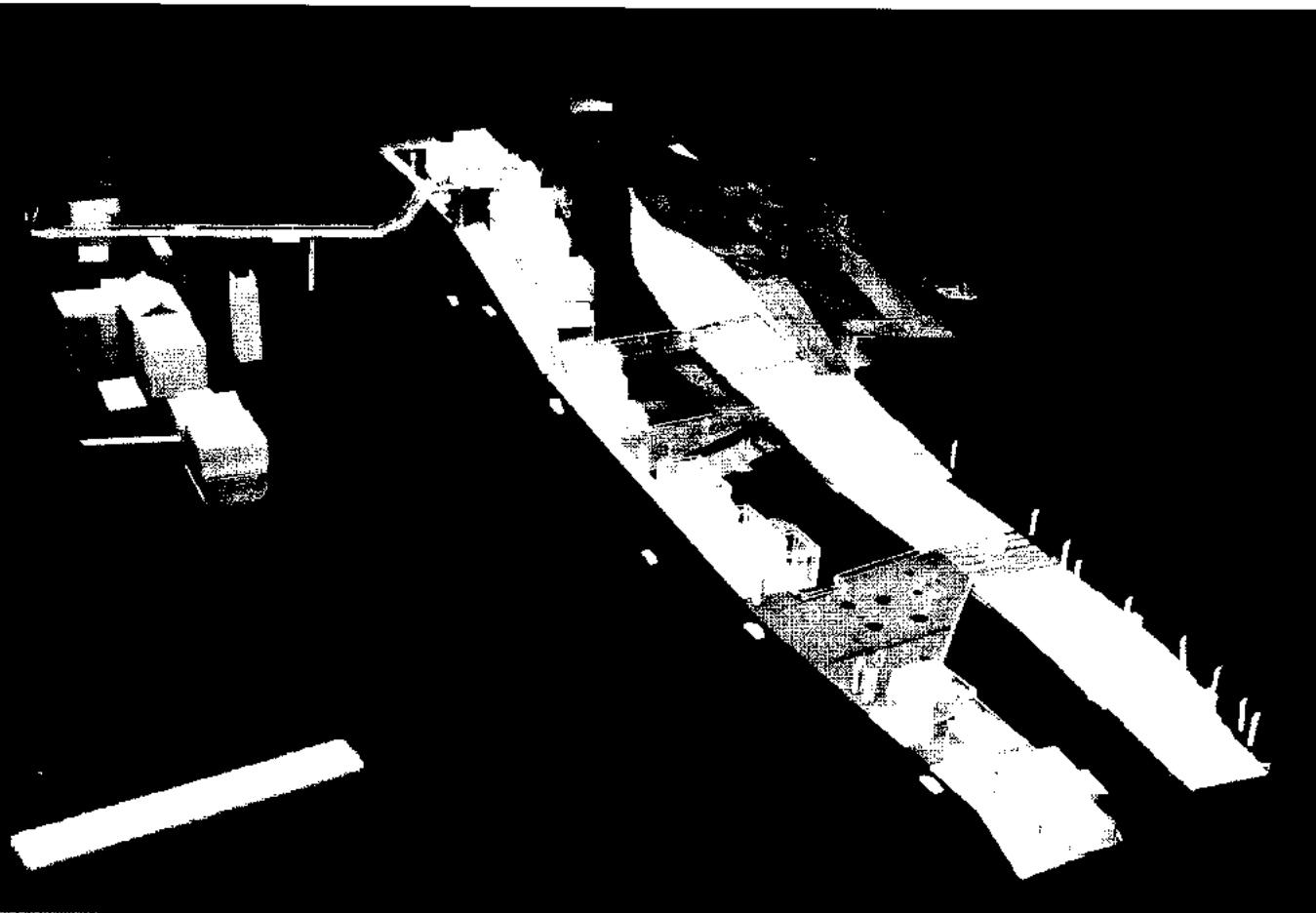
대상 철암, 새 옷을 입다_신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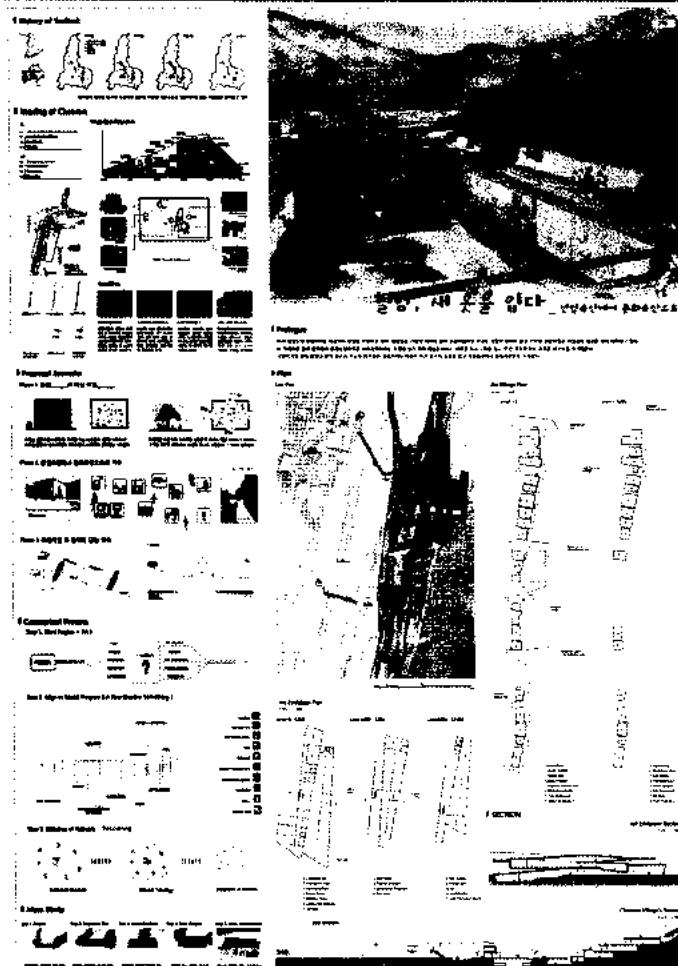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46

철암, 새 옷을 입다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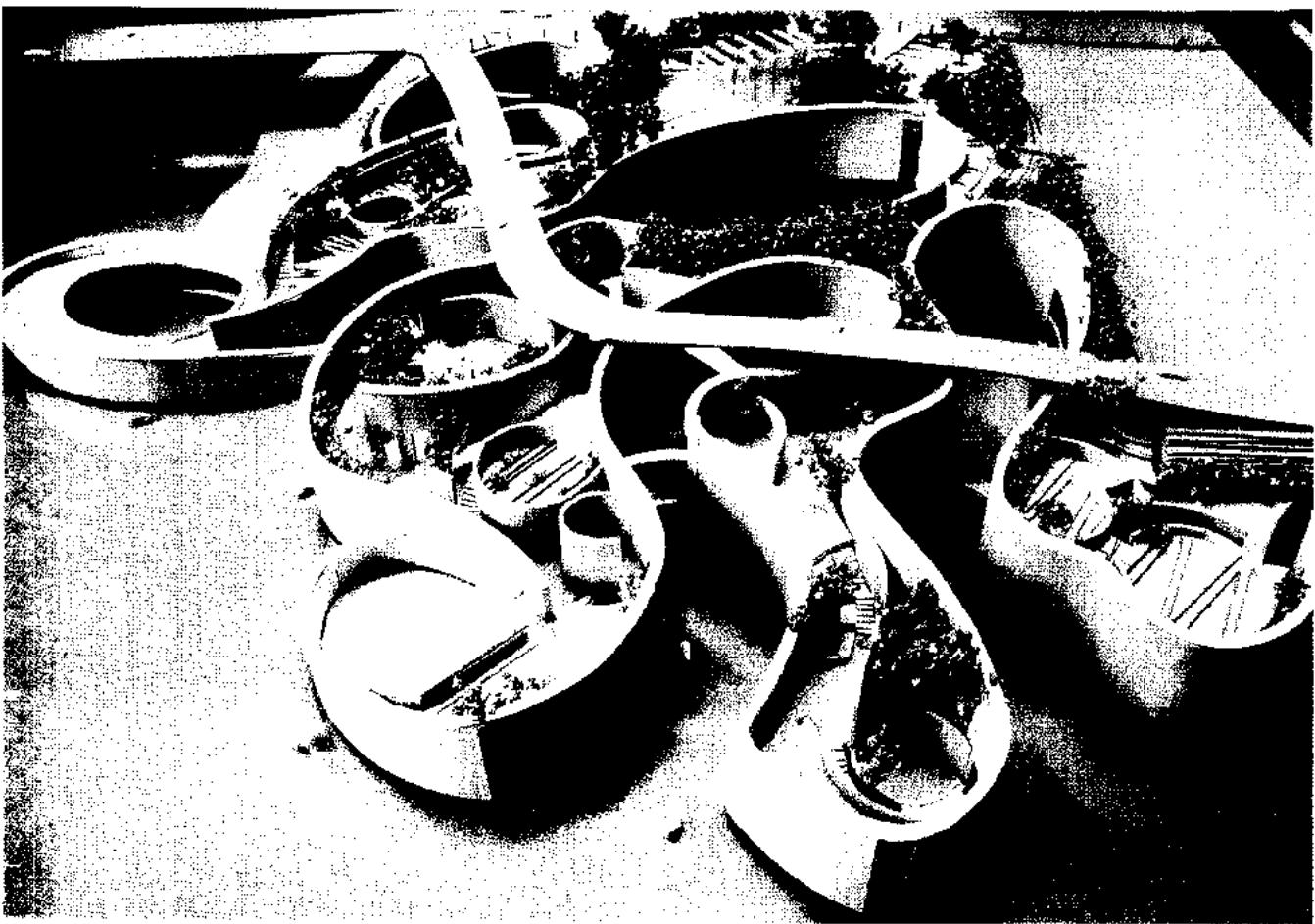
유성문, 권지훈, 최재영_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강원도의 폐광 살리기 정책으로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고 그러한 예술로시의 움직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상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적층화된 건물을 예술가를 위한 집과 공방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철암천변으로 데크를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건물을 만지며 과거의 철암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암천 맛은편으로는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도와 줄 수 있는 공동 작업장 및 미술관 그리고 지역박물관을 두어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을 감상하며, 지역을 알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건물을 자음으로 써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옥상을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산의 능선을 타고 랜드마크로 연결된 건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반대쪽으로 보이는 예술촌, 저탄창, 선탄창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랜드마크 건물을 통해 동쪽의 마을과 예술 촌과 커뮤니티 장소가 만들어 졌으며,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선탄창으로 접근을 원활하기 위해 데크에서 연결된 브리지 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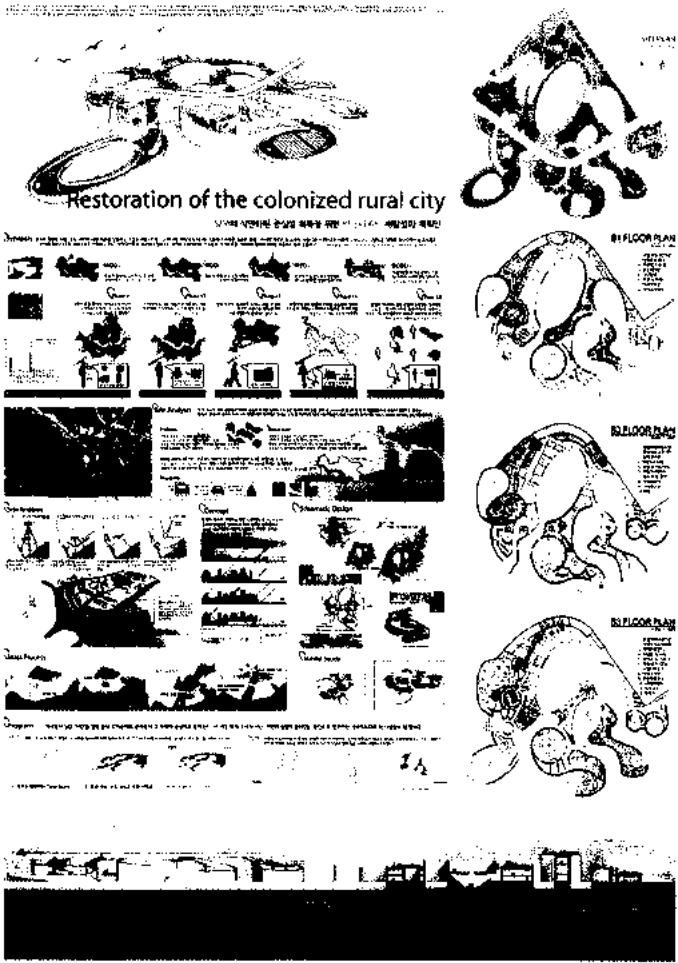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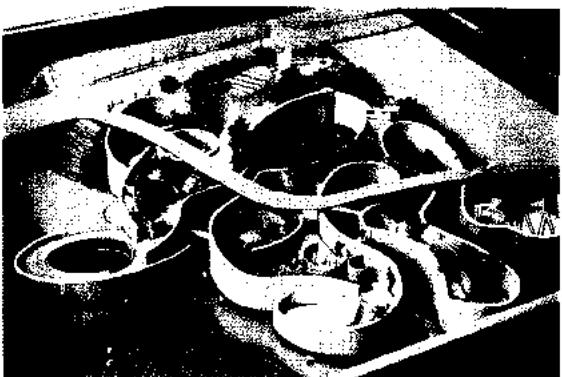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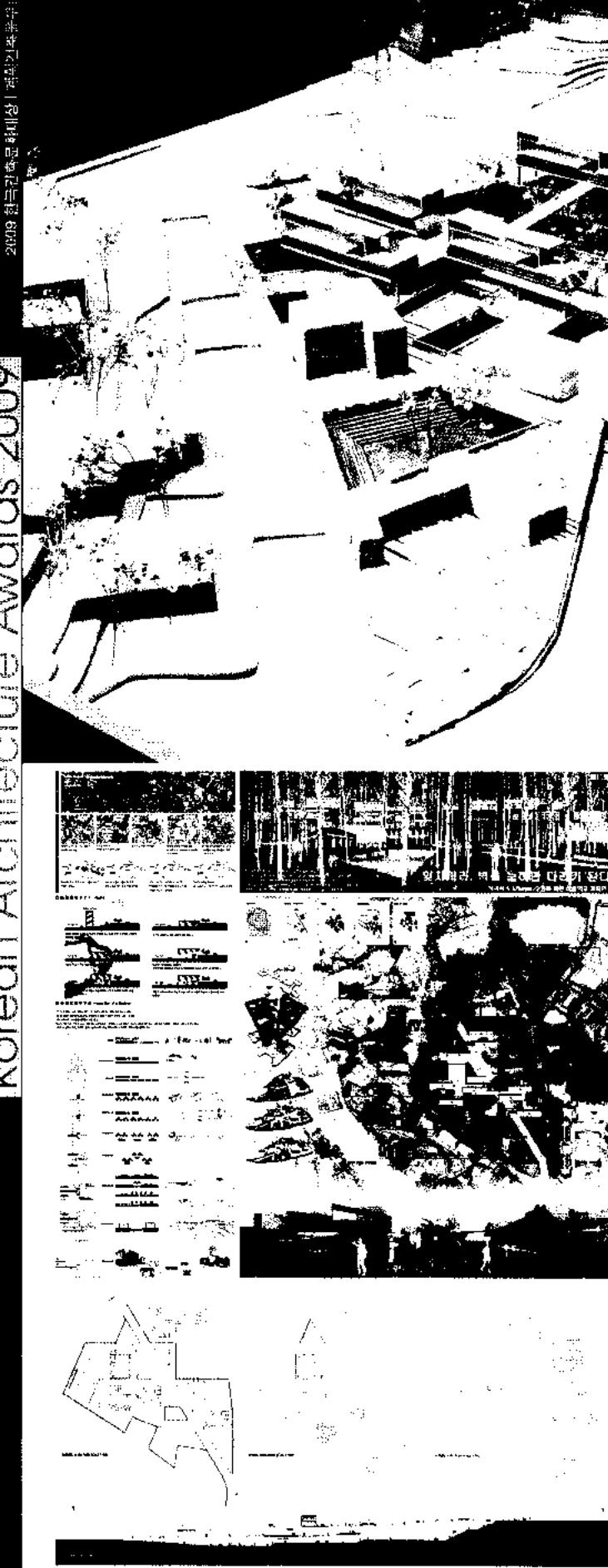
양평의 식민화된 중심성 회복을 위한 양근나루터 재활성화 계획안



최지훈, 김설이, 연주혁 / 흥의대학교 건축학과

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고통로에서, 최근에는 휴식과 레저의 장으로 변한 중에 주목하여 0.13m옹벽에 긴축적인 작업을 통하여 6번국도와 맞닿아 있는 이 가능성 높은 내시에 낙하강과 양명읍내의 수식스인 차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대지는 과거의 양근나루터 지역으로 현재는 그 이름만 남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있다. 저방 상단부는 석재공장의 악적장으로 옹벽기단 상부에 놓여진 땅을 수습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지를 포함한 긴 형태의 블록이는 양평군청, 양평초교,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지만 단절된 질벽의 끝에 위치하여 난순한 행정식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수변공간으로서의 그 어떠한 기능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제방 상단의 간선도로를 보존하여 동시에 그 하부공간으로 물을 끌어들여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물과 양명을 내를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양평 각지의 정체성인 자연 그 자체를 담아내기 위해 철저하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의 이디지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양평 곳곳의 계곡을 형상화한 Canal Space와 숲과 마당, 산을 오르는 듯한 산책로 등의 건축적 언어로 이들을 표현해내고자 한다.





2009 한국건축문화상 우수상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정동희, 노정재, 변재희_홍익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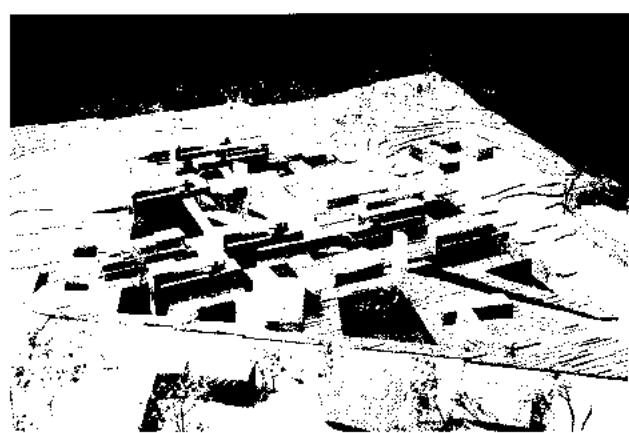
눌려진 다리(예온학교)는 난지 눕혀서 다리를 헤는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정동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상호작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학교의 교실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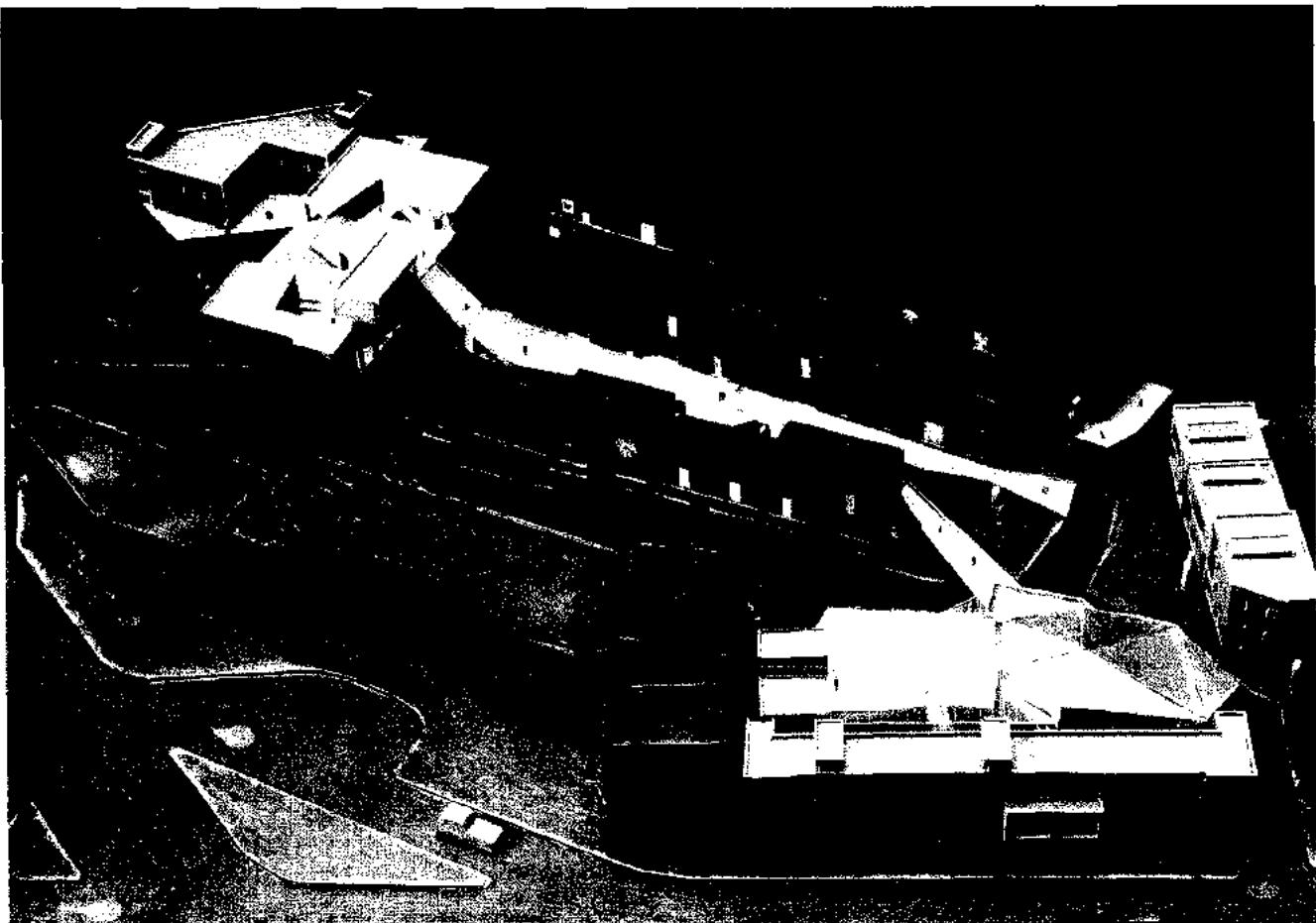
교실은 다 교실과 상호작용하여 그룹을 이루고 그 그룹들은 또 다른 학급의 그룹들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것들이 또 하나의 그룹이 되어 그 그룹들은 수면의 문화재와 문화시설과 또 한 번의 그룹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모여진 그룹들은 모여서 하나의 학교가 되게 된다.

뭉쳐서 학교가 된 그룹들은 주변의 문화시설과 또 한 번 그룹을 이룬다. 이 그룹들은 주변의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의 흐름을 연결시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학생과 문화 그리고 자연의 유입으로 뭉쳐진 이곳은 주변의 역사와 연계하여 또 한 번 그룹화를 이루며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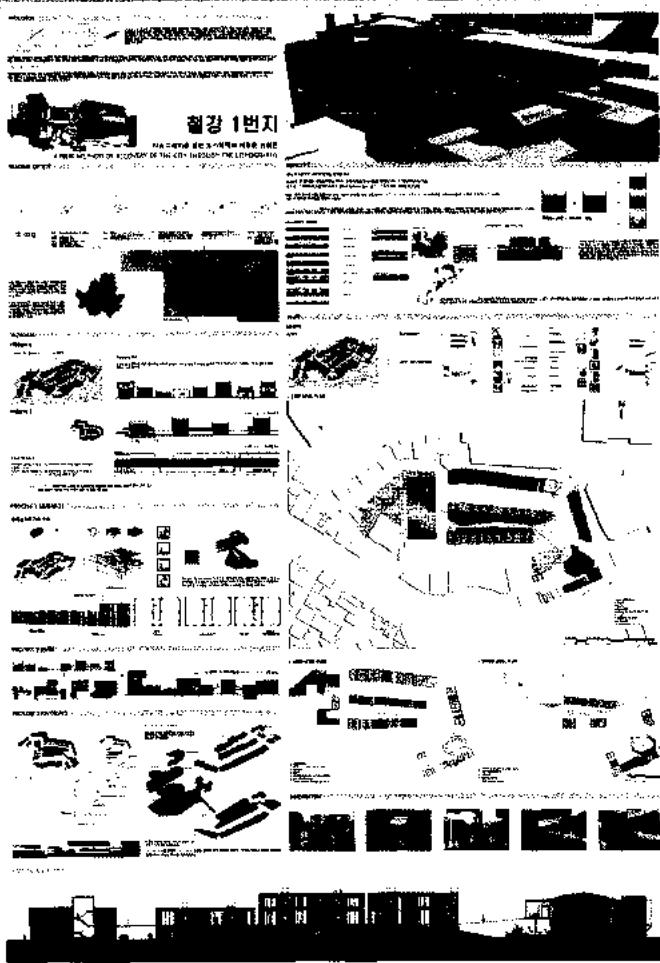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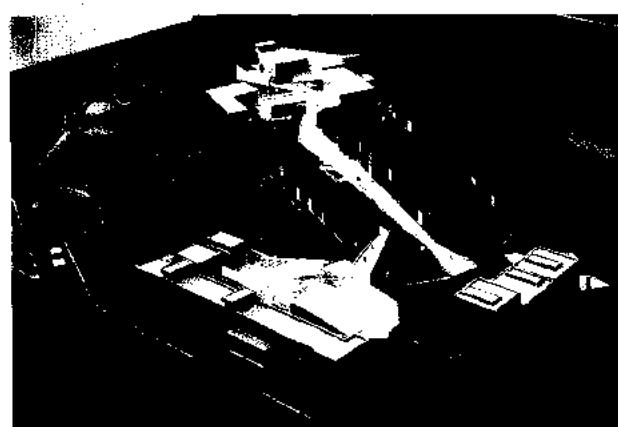


철강 1번지-리소그래피를 통한 도시회복의 새로운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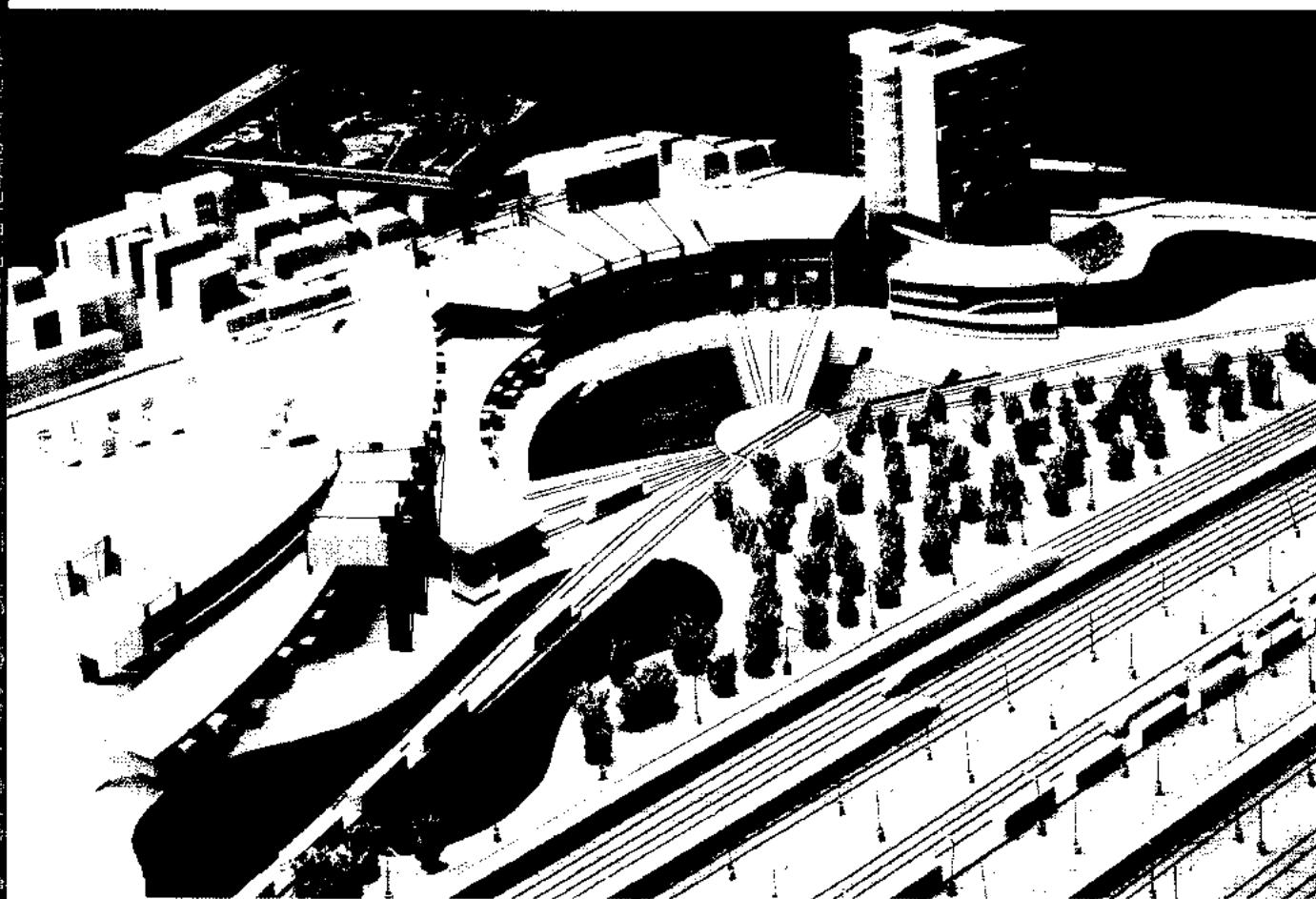


오윤경, 박홍수_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우리는 '리소그래피'의 개념을 통하여 도시(문래동)를 회복시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리소그래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석판화라는 뜻이다. 석판화는 흰 종이 위에 순차적으로 찍어내는 레이어가 오버랩되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멋진 그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처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땅위에 바운더리를 정하고 과거의 흔적이 적용되어 있는 땅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건축에서 공간간의 오버랩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멋진 건축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문래동 철재상가와 예술작업실은 그 공간이 오버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적절한 오버랩으로 인해 조화된 문래동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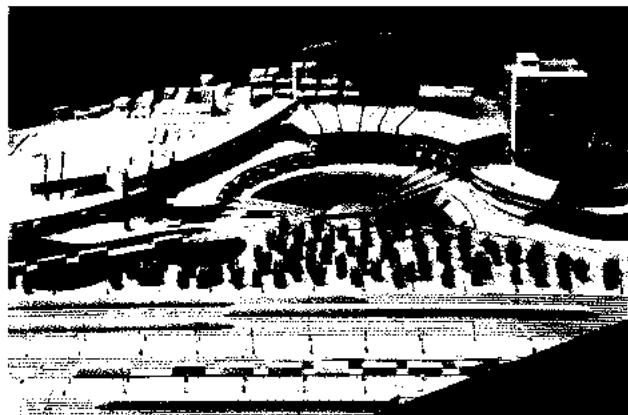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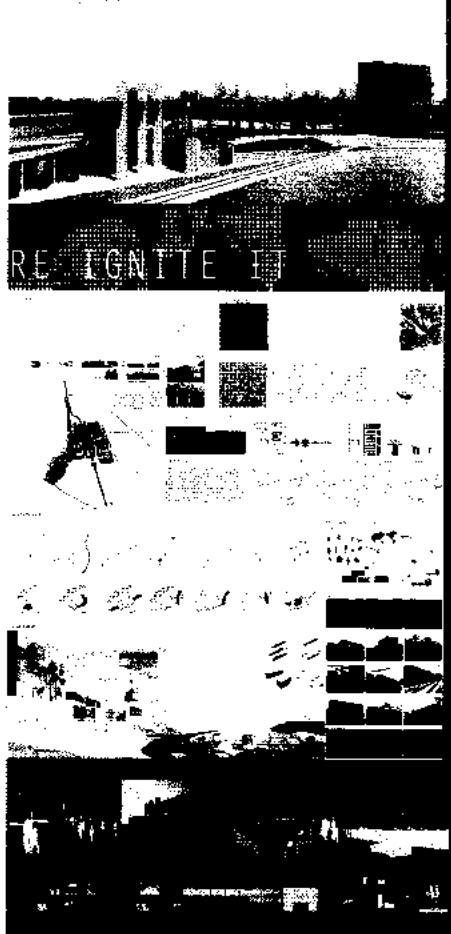


다시 타오르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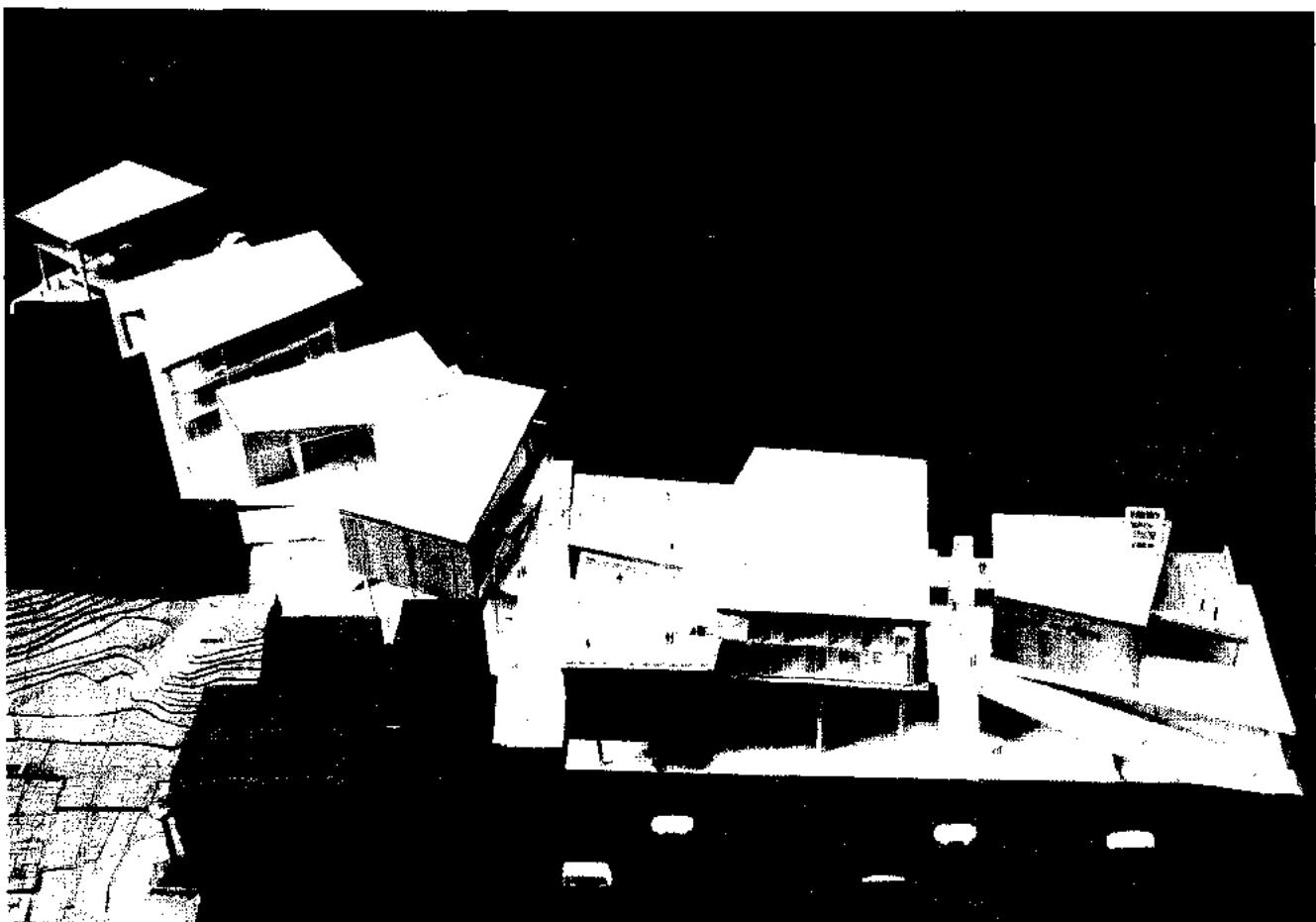
신상용, 박준석, 김인정_총의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청량리 선형기관구의 역사적 삼재성을 가지고, 사라져가는 건축역사문화가 보존과 현시대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문학적인 요소들을 융합 시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의 고존과 새로운 건축물의 자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청량리가 앞으로 철도를 활용한 대륙운송체계가 구축되어 전세계의 물류통로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면 세계적 문화 건축스트들을 노킹시키고 순환 시킬 수 있는 culture docking s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단지 과거의 역사적 흔적만이 아닌 현 시대의 변화와 흐름까지 통섭할 수 있는 세계문화의 장을 열어줄 장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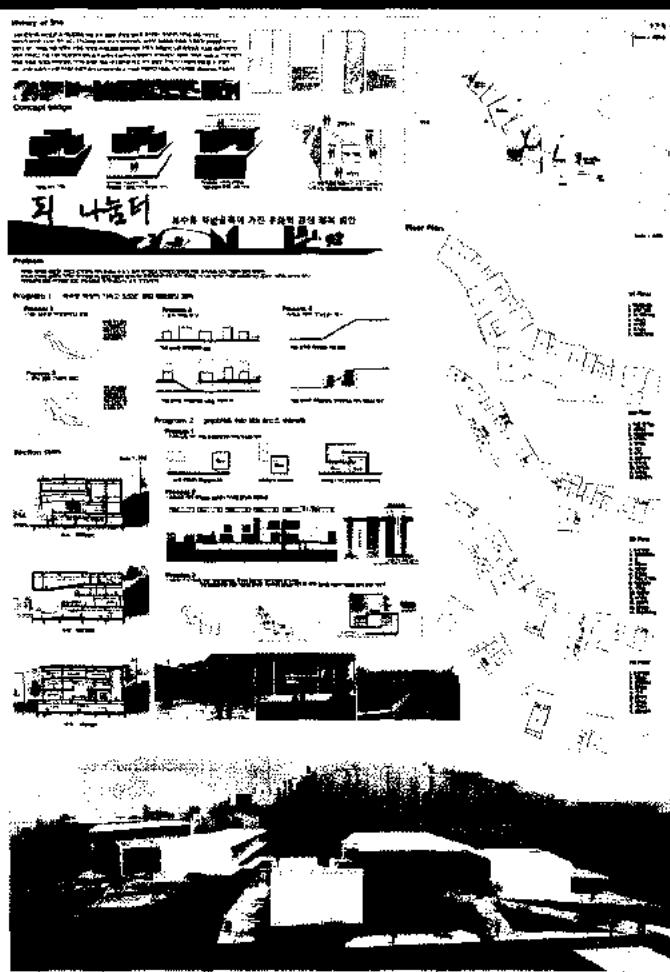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한책, 되나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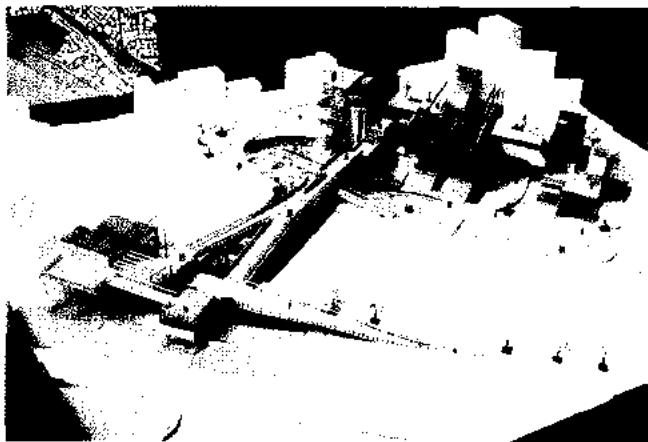
이상호, 김용찬, 김희준_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잊히기는 보수동 책방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많은 추억이 간직된 기존 책방골목의 보존과 문화공연이 가능한 터 그리고 상시 열려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책 벼룩시장의 공간을 제시하였다. 기존 책방 골목을 유지한 상태로 경사지형을 따라 골목의 상부와 하부에 공간을 생성 시킴으로서 골목길을 다양화 시킬 수 있었다. 기존의 책방골목과 주거지로 이어지는 골목계단을 통하여 상하로 생성된 문화,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책방 골목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의 통합을 위하여 상하부 공간!을 Void와 겹침을 통하여 감싸준으로써 통합된 한책방 골목을 형성 하였다. 이렇게 부산 보수동 한책방 골목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풍부한 역사적 가치와 고유한 장소성을 지닌 곳에서 디지털 매체나 새것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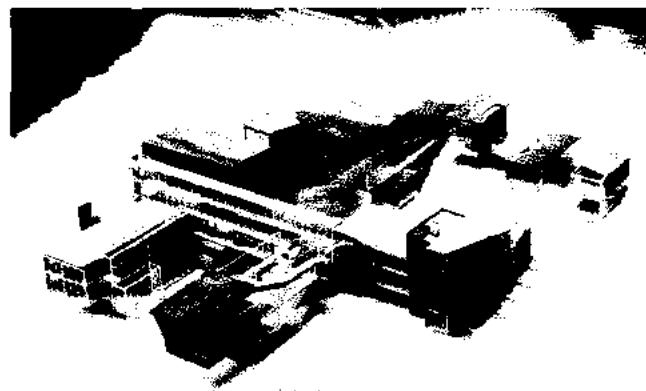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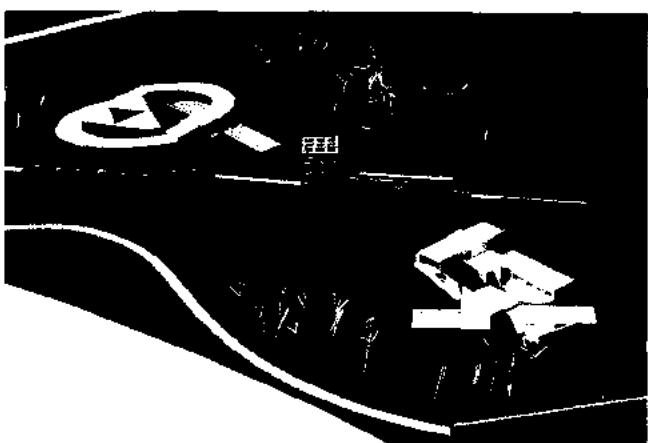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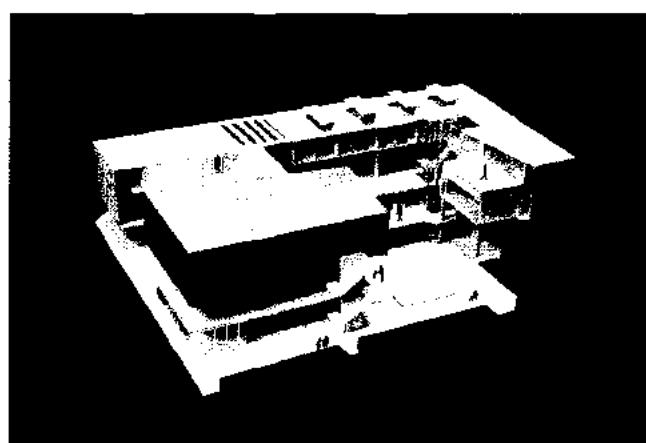
생태와 도시문화가 어우러진 낙동강 박물관 계획안
| 강진주, 한진경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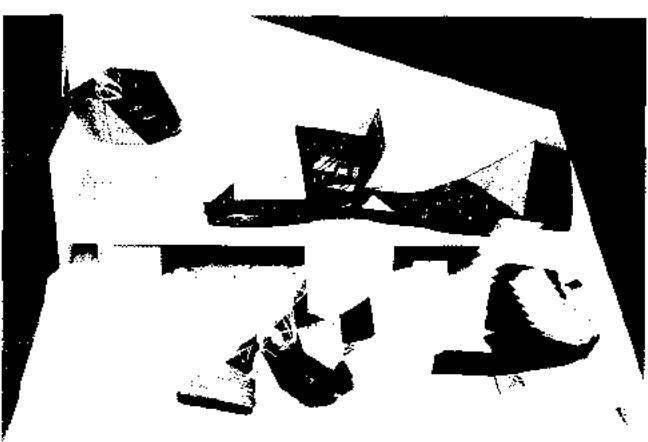
단혀진 경계 내에서의 gradation(점층법)을 통한 도시의 순환
| 박일훈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상처 입은 치유자, 소록도
| 정인섭, 윤진용, 송유정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도시마당 (도시재생을 위한 비움과 소통)
| 최경석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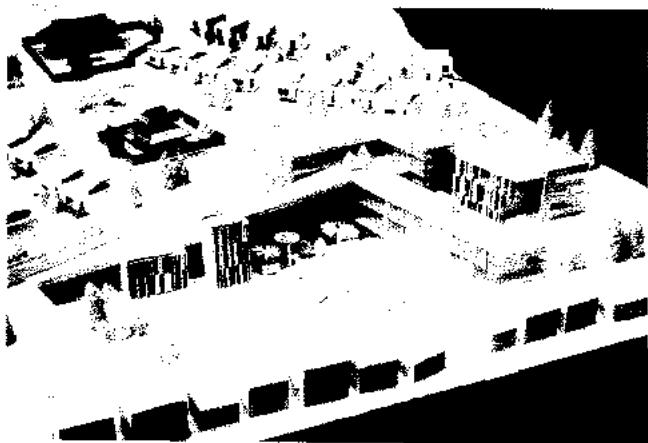


유수지에서 떠오르다
| 김희준, 이병하 흥국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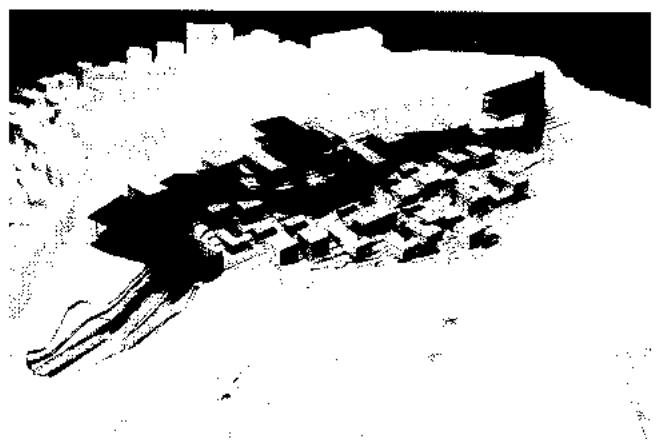


지역케어센터와 공동주택을 거점으로 한 구릉지 노후주거지역
재생방안
| 신주영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2009 전국건축전시회대상 _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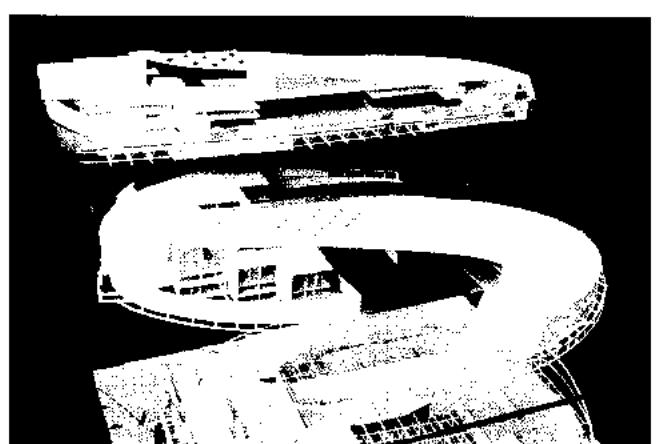
경계의 재구성
| 노승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회복 - 잃어버린 해방촌의 기억
| 염혜진, 정용석, 김준호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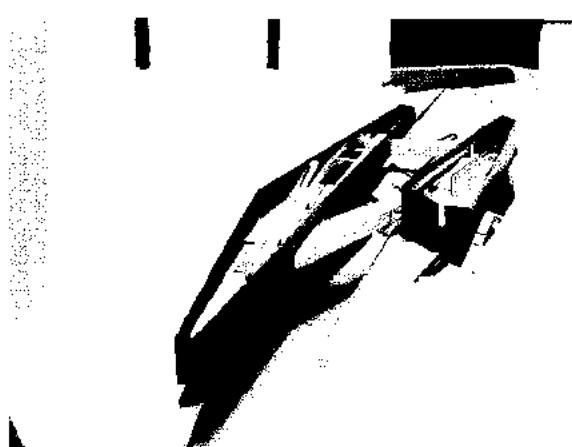
문화의 언덕 - 추산공원
| 김동수, 전지훈, 오상일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제3의 공간
| 정수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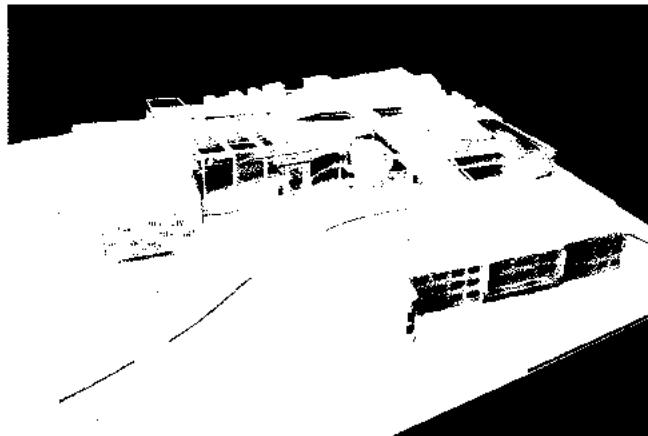
저자도(楮子島)의 회복과 치유를 통한 개인의 기억 찾기
| 이정보람, 손경민, 김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미디어 플랫폼
| 이동우, 유강민, 이은애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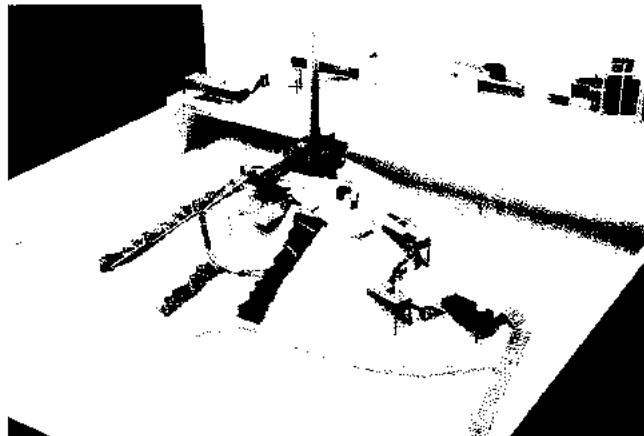
인상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_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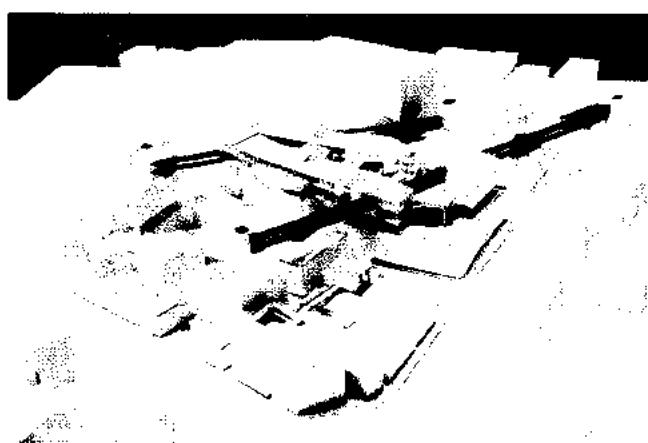
새 것 속에서 재생하는 옛 것

| 임동호, 안광섭, 이인준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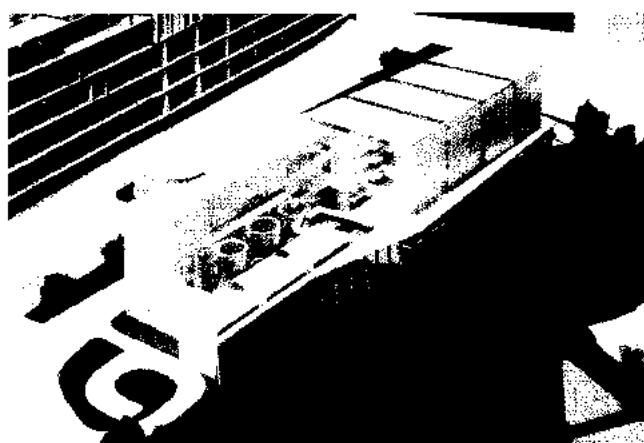
다시 감는 장항의 기억

| 정대희, 함정훈, 지경선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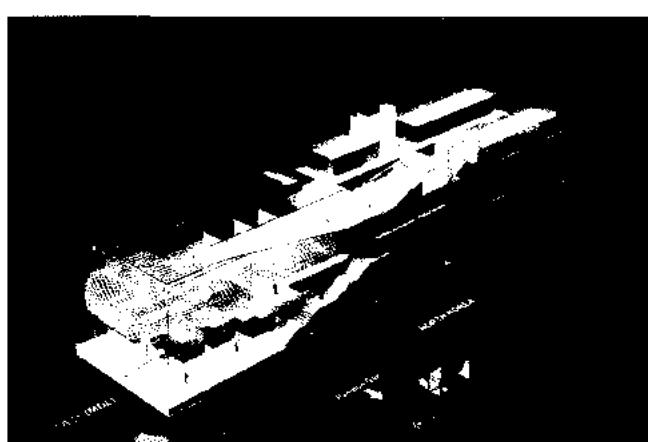
복합적 중층성- 도시의 생성, 변화, 발전 그리고 쇠퇴

| 조은정 공주대학교 건축학과



풍납토성내 역사적 가치복원과 주거환경개선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 전통문화시설 계획안

| 윤비아, 문성우, 이재남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경계의 재구성, 판문점의 횡적분단에서 종적연결을 통한
접경지대의 재구성

| 이수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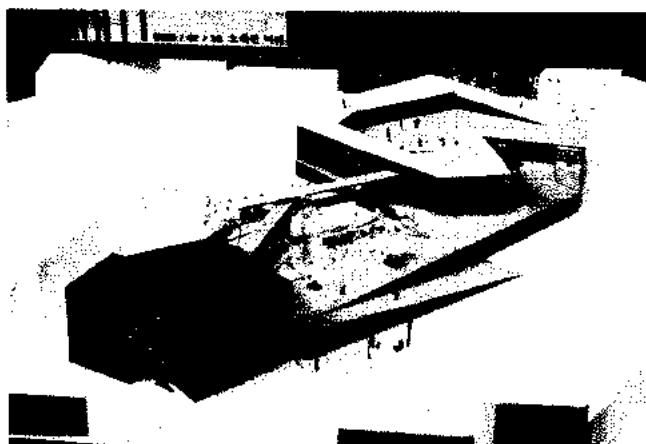


잠든 도심지의 재생

| 김영호, 정우혁, 민경찬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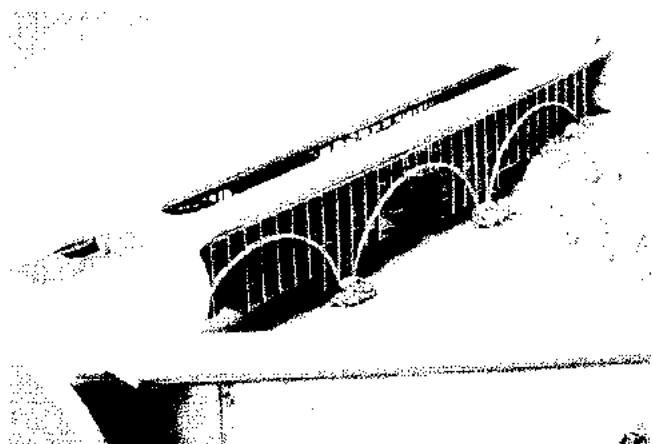
인상

2009 한교건축문화대상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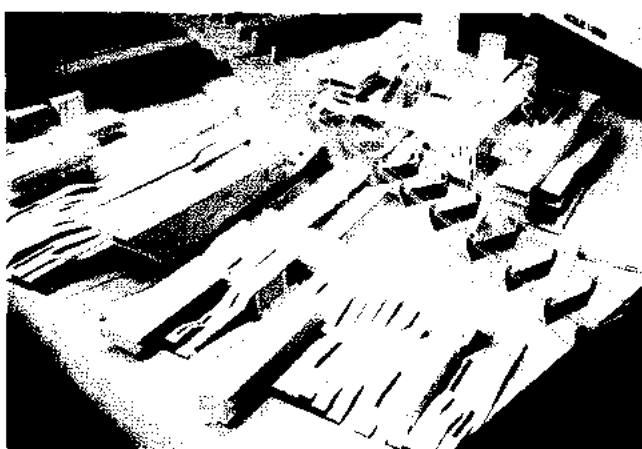
오래된 미래

| 김우현 흥의대학교 건축학과, 박정호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축학과,
강호영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문화의 상상고

| 윤현진, 김나래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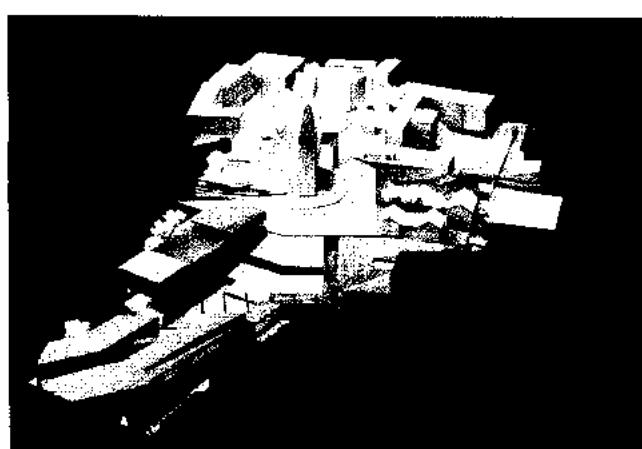
감성적 치유…그리고 공간

| 박경민, 이경진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변화의 기로에서

| 김종우, 박선현, 정윤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Weaving the cultural narratives

| 김수영, 정다운, 이민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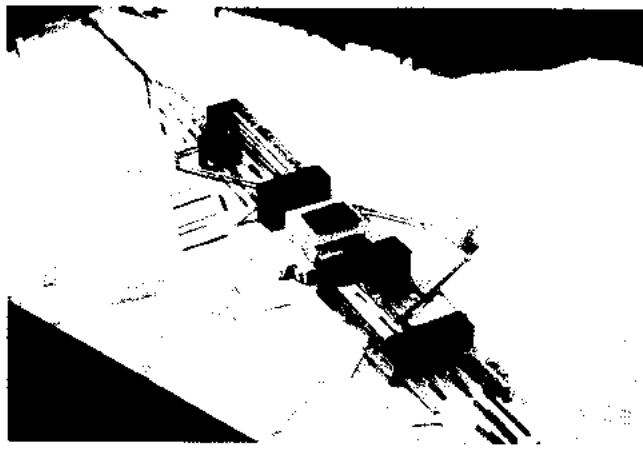


초비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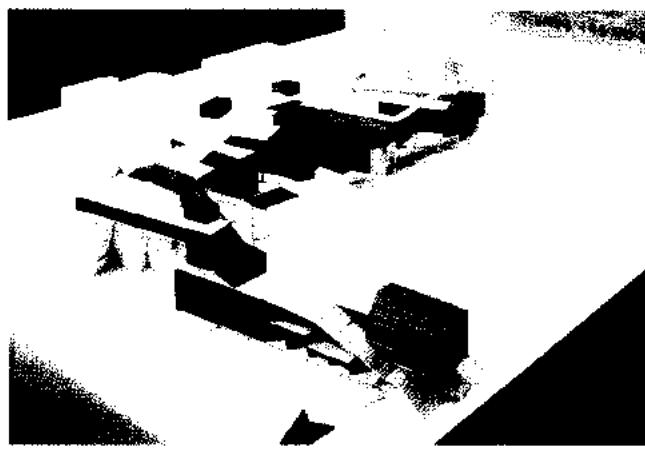
| 김민식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인상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_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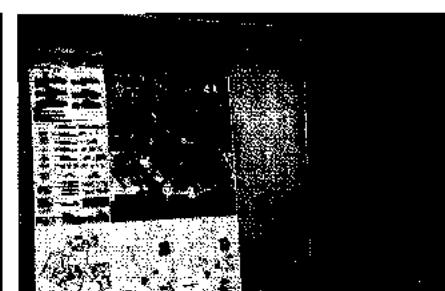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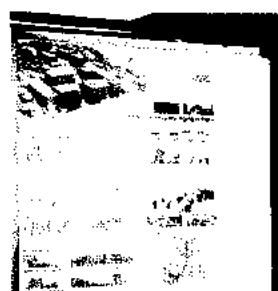


포항역의 또 다른 시작
| 흥명진, 강성웅, 서평균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문화 충돌 극복을 위한 문화적マイ너리티의 새로운 제안
| 김희동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심사 이모저모





건축사단체 통합에 관한 공청회

건축과 건축사의 미래를 위하여

Public Forum for Architects Group Unity

Contents

건축사 단체통합 추진 현황

가. 건축사단체 현황	92
나. 통합방침	92
다. 단체통합 관련 주요 추진경과	92
라. 대표자회의 및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명단	94

단체 통합에 관한 글 모음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95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킬 것!	96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무!	96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97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할 때"	98
400년의 송사	99
건축 3단체 통합의 변수	99

[별첨자료]

단체 통합에 관한 Q&A	101
---------------------	-----

건축사 단체통합 추진 현황

가. 건축사단체 현황

구 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설립 근거	건축사법 제31조 (법률 제1536호 : '63.12.16 공포) ※ 1951.10.23 창립총회 개최 (65.12.3 정관 제정 · 인가)	문예진흥법 제7조 ※ 1962년 설립인가	민법 32조 국토부장관 및 철도청장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직	본회, 시·도 건축사회(16), 지역건축사회(107)	본회, 시·도지부(10개부), 해외지부(2개)	본회, 시도지부(3개)
회원수	정책원(건축사) : 8,083명(09.9월기준)	정책원(건축사, 건축관련종사자 등) : 2,979명(09.9월기준) ➡ 건축사 1,393명	정책원(건축사, 교수 등) : 1,018명(09.9월기준) ➡ 건축사 662명

나. 통합방침

- 대한건축사협회 :
 -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명칭변경
 - 현행 정관 개정추진
-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 범인청산을 추진하며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귀속

다. 단체통합 관련 주요 추진경과

- '06.~07. 건축단체 통합고류 및 통합에 관한 논의
- 회의 등 9회 개최
- '07.12.14 건축단체통합에 관한 기본사항에 합의(FIKA 송년회)
- 단체통합 논의를 위한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구성
- '07.12.18 2007년도 제12회 이사회 개최
-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사항에 대하여 주인카로 의결하고, 건축사통합혁신위원회 위원(5인)선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함.
▪ 위원 5인 선임(백만석, 송평문, 심재호, 전영철, 조충기)
- '08.01.03~'09.01.20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개최 (31회)
- '08.01.11 2008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개최
- 건축단체통합에 관한 기본 합의 사항을 주안하고, 통합의 방법, 시기, 명칭 등에 대해서는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 '08.02.21 건축단체통합 협약서 체결
- '08.6.30까지 '통합건축사협회' 설립 추진
- '08.06.12 2008년도 제4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 '통합대한건축사협회' 명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하기로 하고, 명칭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함.

'08.06.17	2008년도 제6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대표자회의에 참석할 본협회 대표위원 10인을 아래와 같이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에게 그간의 경과를 알려주기로 함. • 회장, 고문(김영수), 부회장(송평문) • 이사 5인(전영철, 백민석, 심재호, 장양순, 조충기) • 시·도건축사회 회장 2인(강희달, 박대웅)
'08.07.10~'09.2.9	통합건축사협회 대표자회의 개최(3회)
'08.07.15	2008년도 제7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에 대한 문제는 협회 위원들 간에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우선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08.09.09~'09.01.19	단체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10회)
'08.09.25	2008년도 제5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개최 - 단체통합 간담회('08.9.24)에서 논의한 대표자회의 상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 결과를 타 단체 와 조율한 후 통합건축사협회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1) 통합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함. 2)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은 통합건축사협회대표자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작성 3) 각 단체는 2008년도 11월 말까지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2009년 2월말까지 총회를 통하여 의결 4) 등록원은 건축사협회 주체로 운영 또는 동 조항 삭제 5) 통합 이전까지 각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
'08.09.29~'09.02.02	총무기획분과회의 개최 (11회)
'08.10.17~12.24	정관소위원회 개최 (5회)
'08.12.16	2008년도 제12회 이사회 개최 - 통합 정관(안)에 대하여 단체 간 합의가 되면, 우리 협회 10인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09.01.13	2009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개최 - 통합정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보완한 후 자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09.01.20	2009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 통합 정관(안)증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의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09.02.10	2009년도 제2회 이사회 개최 - 단체통합 및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제43회 정기총회에 상정하되, 내용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나 어휘 등을 이사 2인(조충기, 전영철)이 수정·보완하기로 함.
'09.02.25	단체 통합 및 정관 개정 승인 (제43회 정기총회)
'09.03.10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승인 (제3회 이사회)

'09.05.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 결과 : 주무관청으로 동시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 ※ '09.8.4 주무관청 동시등록에 대한 동의공문 회신(문화부→가협회)
'09.06.02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 결과 : 주무관청으로 동시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 ※ '09.8.17 주무관청 동시등록에 대한 동의공문 회신(국토부 → 본협회)
'09.08.07	통합 정관(안)에 대한 단체장 합의
	- 제1조(명칭) :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 건축기본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진흥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 부처 : 국토해양부 장관 → 주무부처 장관

라. 대표자회의 및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명단

□ 대표자 회의			□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소속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장	한명수	(주)예도 건축사사무소	위원장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고문	김영수	(주)건축국 종합건축사사무소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대 한 건 축 사 협 회
	부회장	류춘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송평문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상근이사	전영철	(주)열린모임장 건축사사무소	심재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이사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전영철	(주)열린모임장 건축사사무소	
		심재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장양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칭건축	강철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조충기	건축사사무소 간향	김병윤	총리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	
	서울회장	김희달	제이 건축사사무소	곽재환	(주)칸 건축사사무소	
한 국 건 축 가 협 회	충북회장	박대웅	(유)예가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충수	해안 건축사사무소	
	회장	김창수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영예회장	윤석우	(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익수	(주)암엔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립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권문성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심칠	
	부회장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김용미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정호	경북대 건축과	이충기	(주)한예 건축사사무소	
		강철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조상훈	(주)향도시 건축사사무소	
	이사	곽재환	(주)칸 건축사사무소	함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이관직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조충기 위원은 중도 사퇴		
세 건 축 사 협 의 회	조익수	(주)암엔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지회장	허동윤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회장	이필훈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임회장	최관영	(주)일건씨엔씨 건축사사무소			
		김용미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조상훈	(주)향도시 건축사사무소			
		함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권문성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심칠			
	이사	이충기	(주)한예 건축사사무소			
		최동규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감사	정현화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상임위원	안우성	HNA 온고당 건축사사무소			

단체 통합에 관한 글 모음

•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킬 것!	간축문화신문 28호(2007년 12월 16일자)
• 통합에 즈음하여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 건축사 단체 통합은 시건이 아닌 의무!	본지 484호(2009년 8월호) ※해당호 참조
•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이필준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하야 할 때”	간축문화신문 28호(2007년 12월 16일자)
• 대한민국건축사협회(KIA)의 출범을 앞두고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400년의 송사	건축문화신문 64호(2009년 6월 16일자)
• ‘건축 3 단체’ 통합의 변수	전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건축문화신문 70호(2009년 9월 16일자)
	신준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본지 482호(2009년 6월호) ※해당호 참조
	곽재환 한국건축가협회 통합추진위원장
	박재웅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부산 건축사신문(2009년 6월)
	이봉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건축3단체 통합에 즈음하여— 어렵지만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김영수

건축 관련 단체 통합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 건축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이었던 지난 1998년에 건축3단체 통합을 위한 원로모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의 3단체는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이었고, 우선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가 먼저 통합하고 다음에 건축학회와 통합하는 절차에 대해 6인소위원회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건축학회대신에 새건축사협의회가 자리했습니다.

새협회에 대한 제 냉정한 생각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에 대한 합의가 무르익은 시점에 사상스레 활기랄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시지탄이나마 건축가협회와의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교육지침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가(家) 아닌 사(士)로의 통합은 사실상 성사단계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성한 직업명은 건축사(建築士)입니다.

건축가(家)와의 혼동과 충돌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은 것도 사실입니다.

산적한 혼란들은 갈래가 아닌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해결은 빨라집니다.

안으로는 생업과 불황 등 혁명적인 건축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밖으로는 국제적인 무한경쟁에 재빨리 대처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조국통일이 당면하듯 적어도 家와 士와의 단체통합은 숙명이고 필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뚫고 뚫어 겨우 통합의 물꼬는 터놓은 상태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척지 않은 산을 넘고 또 물을 건너야 달을 고난의 길입니다.

단체별 정체성과 활동영역 그리고 회원의 구성여건과 사고방식 등에서, 하니가 되기까지에는 또 다른 설득논리와 실천의지가 그 권위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솔직히 가장 큰 난관은 다른 아닌 바로 우리 건축사협회 회원의 설득과 동의를 얻는 일입니다.

그간 통합의 필요성과 절대성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통합절차에 대한 이해와 논의 과정이 생략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임시총회까지 연기된 마당에 집행부의 설득노력이 여기에 총집중되지 않고서는 종회의 통과를 장담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회원의 절대적 동의 없는 통합의 의미 물론 물어볼 가치조차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통합문제는 현재의 우리 건축사 들을 위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미래 건축계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배 건축인들의 긍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자는 뜻입니다.

차제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관련 단체의 임원들께서는 결자해지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양보를 계속 이끌어야 할 것이며, 산하 회원들께서는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주시고 현실적 쟁점과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과 질책을 끝까지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뜨거워 질대로 뜨거워진 감자와 같은 통합숙제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뜨겁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혀서라도 꼭 먹여야만 하는 우리의 비상식량과도 같습니다.

건축과 건축사의 장래가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위상이 또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킬 것!



내한건축사협회
고문 한명수

2007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서 큰 기쁨을 감출 수 없기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22일 국회에서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경경사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14일 FIKA 즉, 한국건축단체연합 송년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등 건축사 3단체가 통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우리 건축계 내부의 숨겨진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사건인 (가칭)한국건축사협회 창립에 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지 6개월 만에 맞는 경사입니다. 과거 우리건축계는 어려운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개인과 집단별로 각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가당착에 빠져 온 우리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 3단체가 통합을 선언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사)새건축사협의회는 그 동안 10차례가 넘는 실무대표 회의를 거쳐 건축계통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건축계의 진정한 통합은 물론이고, 건축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라면 회장 자리라도 던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저는 이번 통합의 선언이 건축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들의 뜨거운 가슴의 열정은 바뀌어가는 시대를 직시하여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분열된 모습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천만한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취임 시부터 추진해 왔던 건축계의 화합과 단합은 이제 썩을 티우고 잘 자라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가 잘 자라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 되기로 한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어 건축계에 새 희망과 새 바람을 일으키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건축사로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을 때가 다시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건축사들의 밝은 미래와 생존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뛰고 또 뛸 것입니다. 하울 좋은 말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오히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구체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건축사 3단체의 통합에 결단과 합의를 해주신 (사)한국건축가협회 변용회장님과 (사)새건축사협의회 이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건축사 단체 통합은 사건이 아닌 의무!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김광현

지난 12월 14일 FIKA 송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3개 건축사 단체 실무위원이 모여 통합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이를 중재한 이로서, 이 단체들의 통합만이 우리 건축의 미래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모인 이 회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각 단체마다 사정이 있고, 조건이 있겠지만, 필자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전체 조건을 거는 것이었다. 설계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대지를 관망하고 인간이 쓰고자 하는 바를 크게 읽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도 그 사고처럼 커다란 관망이 먼저 있고, 디테일은 나중에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건축사 3개 단체가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통

합한다는 그날의 합의문이었다.

필자는 왜 세 건축사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가 통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따로 말해야 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것은 이미 이 세 단체의 통합은 오래 전에 이루어져야 했을 문제이고,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미우리 각자 안에 다 있다. 이 세 단체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철실하다고 제일 먼저 역설한 것은 2년 전 한국건축가협회 변용회장이었다. 그때 변 회장은 필자의 주장에 매우 신중했지만, 마음에 새기는 듯 한 느낌을 표정에 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한 명수 회장은 당선한 후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필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었다. 그런 한 회장에게 필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해야 할 제일 큰일은 건축사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말부터 꺼냈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다. 이

번의 건축사법 개정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련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것은 이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란 이미 건축사 면허를 획득한 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저 미래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내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축사등록원'의 설립이 그 한가운데 있다. 이제까지 너무 긴 시간을 이 '건축사등록원'의 설립 주체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건축사등록원'과 통합된 새로운 건축사협회는 피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수많은 논의의 결말은 결국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건축의 미래, 한국건축의 미래를 여는 저 학생들의 미래는 바로 이 점 통합된 새로운 건축사협회가 성립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건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이는 부디 이 결론을 가볍게 보거나, 정략적으로 이해하거나, 한 교수의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나, 그런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들어 왔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오늘의 이 사정에서는 그럴만한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으며, 어떠한 명분도 달리성립하지 않는다. 건축사법 개정 이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짧은 문장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전처럼 그냥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으며 또 추진될 리가 없다. 협회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미룰 수가 없는 것은 이미 건축사등록원 설립이 늦어 버렸고, 이 때문에 이미 5년제 대학졸업자는 실무수련에 등재 과정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엄격한 인증 실사는 진행되고 있고, 대학은 이에 열중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말이다. 만일 이 새 건축사법이 지연된다면,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당당할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며, 기만에 가까운 일인가? 대학은 이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내부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이 사회가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나라에서 건축사협회는 두 개일 수는 없다. 새 건축사법은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건축사를 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협회가 두 개라는 것은 건축사가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국제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설립되어야 할 건축사등록원의 업무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건축사협회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문제는 각 단체의 의지에 와 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는 협회 회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이가 이 세 단체를 존중하는 것은 협회의 문제가 곧 건축계의 문제를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협회가 오늘날 건축계의 문제를 미래에 떨쳐 놓고 생각하지 않거나, 협회 이기주의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협회를 벗어난 다른 건축하는 이들의 이해를 결코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새 장이 열리려고 한다. 부디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전통도 이 건축사 단체의 새로운 통합을 방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통합될 새로운 건축사협회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서 건축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을 기억하고, 또 이들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이 통합된 건축사단체에서 이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되기를 그리며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건축사라는 직업을,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이 사회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게 될 새로운 건축사협회로 통합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건축사 단체의 통합은 사건이 아니라 의무다.

□ 2009년 6월 16일자(64호-칼럼) 건축문화신문 기고 글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과정


대한건축사협회
상근이사 전영철
지난 5월 21일 한국건축가협회의 임시총회에서 통합정관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을 통과시킴으로서 건축설계관련 3단체의 통합은 본격적인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는 지난 2월에 정기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승인하였으나 한국건축가협회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뒤늦게 통과시킨 것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통합정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통합3단체의 대표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부분 변경시켰다는 점이다. 정관 제1조에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삭제하고, 각 조문에 나타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수정시킨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해양부 소속이며 한국건축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니 양 부처에 공동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사실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건축사협회가 양 부처에 등록을 하여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이라는 문장을 삭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건축설계관련 3단체 통합의 물꼬는 2005년도부터 활동하던 건축문화포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3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던 모임이었다. 당연히 건축설계단체들의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비공식 통합모임이 계속되었지만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와의 통합 무산, 한국건축사협회 창립발기인 대회 등이 발표되면서 건축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였다. 결국 매주 한 번씩 새벽에 교대역

부근의 곰탕과 역삼동의 콩나물 해장국을 먹으며 가졌던 20여회의 모임은 서로간의 의견대립만 확인한 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에 건축사법 개정안(합의)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김 광현교수 주재로 다시 모인 각 단체 대표들은 등록원 설립 등 건축사협회에 대한 견제적인 이견이 표출되었었으나 단체통합의 조건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건축사법 개정을 빌미로 다시 통합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이 불씨는 2007년도 FICA송년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명수 회장, 한국건축가협회의 변 용 회장, 새건축사협의회의 이필훈 회장이 3단체 통합 추진합의서를 작성, 서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각 단체대표 5명씩으로 구성하는 건축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통합준비를 시작하였고 2008년 2월21일 한국건축가협회장 이 취임식에서 건축단체통합협약서를 체결하였다. 3단체를 대표한 건축통합혁신위원회의 모임은 60여회에 달 하였다. 각 협회입장을 대변하며 설득하고 무수한 토의와 언쟁 끝에 합의된 의견을 만들었으나 각 단체 내

에서의 보고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하기 일쑤였다. 이에 3단체대표들은 합의된 의견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3단체를 대표한 의결기구 구성에 합의하였다. 회장, 고문, 부회장 및 임원을 포함한 대표단 30명으로 구성한 통합건축사협회 창립준비 대표자회의는 이렇게 탄생하였고 2009년 2월9일의 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통합정관(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제 3단체는 총회를 통하여 통합정관을 통과시켰으나 통합창립총회를 위한 통합창립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들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통합건축사협회의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시등록은 양 부처의 이해로 해결될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합의된 정관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결여부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지금의 우리를 위함이 아닌 미래 건축계 후진들을 위한 따뜻함이 요구된다. 서로의 이해 속에 모든 이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통합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09년 9월 16일자(70호-삶과일터사이) 건축문화

“아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할 때”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선 춘 규
요즈음 건축 3단체의 통합문제로 한창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본 협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이 문제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협회는 1965년에 법적 단체로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의무가입단체로서 편안하게 협회의 입지를 굳혀왔으나 얼마 전 임의 단체로 전락되고 난 이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들이 건축설계업무 대가의 폐지, 설계 경업의 허용, 건축사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화 폐지, 설계 강리 업무의 분리 등으로 볼 수가 있다. 다 우리의 업역을 위협함과 동시에 건축문화를 말살하려는 모종의 조치로 보여진다.

이미 45년 동안 제도권 아래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제재를 역으로 당하기도 해왔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된 지금이나 과거를 보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꼴이 되었다. 소위 건축전문가라는 우리들이 경제부흥과 지역균형발전을 가치로 하는 정책기조에 일조를 해왔고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개발이나 후손들에게 어떠한 건축/도시문화를 남겨주어야 하는지를 논하기도 전에 건설정책의 하수인이 되어온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건축전문인이고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전문가이니 존경해달라고 한들 누구하나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가 건축사 명칭법에 도시를 만드는 전문가 중의 주요 전문가로서 건축전문가 등은 당연히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과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선배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현실이다. 그래서 협회를 대표하여 오랫동안 협회 정책의 중심에 있던 직전회장이 재직 시 이 한계를 심히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정권으로 바뀌고 정부기관 개편이 있을 때에 지식경제부로 갈아타겠다고 아우성쳤을 때가 있었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가협회가 가입되어 있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당시 협회 이사들과 논의를 거쳐 상정했으나 정부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기회가 왔다. 2007년부터 초석을 다져온 통합이 무르익을 때가 되었다. 많은 고생들이 있었다. 통합을 위한 시간적 소모 와 열정의 소모 등…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 통합이 되면 분열되었던 건축전문인들의 목소리가 통합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를 참석했을 때 15만명의 건축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칭피이겠는가?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상황이 가슴에 깊게 파고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3단체로 있으면서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냈던 우리들인가? 서로의 무능함을 탓하는 사이 제도권 인사들에게 서로의 눈치를 보며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고 본다. 통합이 가능하다면 문화관광부에도 중복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거가 있고 없음을 떠나 법정단체로서 문광부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능성은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법적 근거는 국토해양부에, 활동근거는 문화관광부에 둘으로 우리의 활동범위를 문화적으로 굳혀 나

간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간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화뿐이 없다고 믿는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각론에 대한 것은 염중히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고 협의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기준 제도의 회생양으로 만들어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본다. 기존의 제도로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과감히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발전은 개혁과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밝은 미래에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견전한 논쟁을 벌이고 조금의 차라도 다수결이 되어 의결이 난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400년의 송사



경북건축사회
회장 박재용

안동에서 400년의 송사가 얼마 전 양측의 화해로 막을 내렸다. 학봉(김성일)과 서애(류성룡) 선생의 위폐 자리를 놓고(의전서열) 400년 이상을 후손들이 다독였으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길이 남을 사건이다. 무엇 때문에 그리 집착하였는지는 알겠으나 형식에 대한 집착은 본질을 흐리고 다수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모적 행위가 될 뿐이다.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편법과 폐법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혈통을 이어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형식이 본질을 지배한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집을 희망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참다운 문화를 한국에서 꽂피울 수 있지 않을까?

건축3단체 통합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통합에 대하여는 찬성하지만 자신의 형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형식이 본질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이다. 집행부에서도 왜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통합의 목표는 건축사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통합이라는 변화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살기 어려우니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이 회원들의 갈망을 지도부는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 건축사협회는 추락하는 우리의 권익을 반전시킬 여력도 노력도 없었다. 법개정, 건축인증원, 입찰제도, 김리대가, 설계·감리 분리, 유사명칭사용, 비건축사에게 법인소유 허용 등 수없이 일련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여 건축사의 위상은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파괴되어 왔고,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산된 건축인의 힘을 하나로 합쳐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자는 통합에 대한 고민이 과거부터 있어왔고, 지난 회기의 집행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그 성과를 도출하였다. <변화하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3단체 통합선언을 이끌어낸 직진 집행부의 결단력에 친사를 보낸다.

형식이 다소 바뀌어도 통합이라는 본질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선배 회원님들의 노움이 필요하다. 현 집행부에서 과거의 노력을 단질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한다. 희망의 꿈을 바꿔놓고 송사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부산 건축사신문 2009년 6월 기고 글

'건축 3 단체' 통합의 변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이봉준

지난 5월 21일, 가는 봄이 아쉬웠던가, 하필이면 진종일 웃은비가 내리던 그날, '2009한국건축가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비록 서울 외곽 모 건설업체 '전시 갤러리'였지만, 이날 상정된 안건만은 정말 중요했다.

건축 3단체 즉,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를 하나로 묶는 합의안과 '통합정관'을 의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어쩌면 50여년 전통의 협회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지 모를 현안 중 현안인 것이다. 물론 "통합을 통해 새롭게 거듭 난다"

할 수도 있고, 또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문을 닫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청산(해산) 충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 및 통합 합의서 승인의 건'이라는 안건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종회가 통합으로 가는 결정적 수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 순간임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일까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가파롭고 무거웠다.

생각하면 그도 그럴 것이, 벌써 2005년 7월부터 '단체 통합 관련 워크숍'을 시작으로, 그 동안 수없는 논의 속에 '결의와 무산'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게다가 지난 2월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가 각각의 정기총회에서 이미 합의안을 원안 통과 시킨 바 있다. 따라서 '협회'로써는 달리 해 볼 방도가 별로 없다. 그게 '통합추진혁신위원회' 및 집행부의 딜레마이다. 자칫 잘못 했다간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대내외적인 원성과 책임 또한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게다가 향후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벌써 일부에선 집행부의 행작(行作)을 탓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회의는 순조롭지 못했다.

출석 회원 170여명과 위임장 500여장을 합하여 정회원 수의 1/4인 정족수는 가까스로 넘겼으나, "과연 이정도의 참석 회원으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타와 함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제안 설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 '통합정관' 내용 및 '가협회' 법인 청산 등에서 볼 때, '사협회'에 편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 흡수 되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느냐, 안된다면 유사타 단체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 두 부처에 동시에 등록은 가능한가? ▲ 가치 단체인 '가협회'와 이익 단체인 '사협회'의 통합이 과연 정체성에 맞느냐? ▲ '대한건축학회'가 빠졌는데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 현재의 FIKA 제제로 단체 연합은 불가능한가? 등이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라는 명칭 문제, '통합정관' 상 정회원을 건축사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분 한 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유지 문제와 교수 및 비 건축사 회원의 이탈 움직임 등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졌다.

이에 집행부는 뚜렷한 있는 해답을 내 놓지 못했다. 세계화의 시대적 환경 변화, 건축 문화의 항구적인 발전, 건축계의 권익 보호 등 상투적이고 원론적이었으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를 위한다" "향후 문제 발생 시 보완하겠다. 잘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등의 막연하며 안일한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지방 회원

을 중심으로 원천 무효 주장 등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찬반토론 끝에 '통합정관'에 대한 수정안이 대안으로 제시 되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명칭) 우리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대한민국건축사협회 (이하 "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약칭 KIA)라 한다'에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를 삭제하고, 부칙 내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표기된 부분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집행부가 파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라는 설이 있지만 아무튼 당초 3자 합의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집행부와 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를 구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총회 절차를 걸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제 다시 공은 '대한건축사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로 넘어 갔다. 각 단체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한건축사협회'로써는 국토해양부와 건축사법의 근거를 배제한다면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어차피 건축사협회도 임시총회가 불가피 해졌다. 그러나 이땐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무(無)에서의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통합'이다. 이는 기득권 및 구성원간 이해득실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惡)인양하며 도외시 할 순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다수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다. 그래서 어렵다. 설불리 명분만 앞세운 통합, 오로지 통합만이 선(善)인양 하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안 된다. 또다시 분란과 분열로 이어질게 뻔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 삶의 역사가 통합과 분열의 반복"이라며, "일단 해 놓고 보자"라는 식인데 결코 안 된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고, 그로 인한 손실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단체 통합에 관한 Q&A

1. 총론에 관한 사항

1-1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건축사협회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축계의 모습은 사분오열되어 법제도 개선 시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등록원 등 건축사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건축 관련 제도개선에서 건축계가 정부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단체가 아닌 복합 단체로서 국내건축계의 분열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각종 국내행사들도 비슷한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건축계가 통합되어 큰 단체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통일된 모습으로 쇄신하여 국내외의 신뢰를 쌓아 미래건축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함입니다.

1-2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서로의 활동영역과 정체성이 다른데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협회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건축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들의 업무영역 확보와 권리 보호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는 건축학과 교수들과 함께 건축의 예술성, 문화성을 전시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활동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라는 명칭보다는 건축가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더욱 예술적이고 적극적이며 건축설계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인식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사는 행정 처리만을 하는 건축의 행정서사 역할을 한다는 인상이 강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런 잘못된 인식은 하루빨리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의 해법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하여 법제 활동과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건축사협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우리회원의 입장으로 하게 될 것이며,

건축사가 바로 건축가라는 인식을 단숨에 국민들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활동영역과 정체성이 달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가협회의 정체성과 활동영역을 건축사협회의 영역으로 합쳐서 건축계의 모든 역량을 건축사협회 하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합의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1-3 통합할 경우 우리 협회는 어떻게 바뀌며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는 법인인정을 하게 되는가?

우리 협회는 명칭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개명하여 명실상부한 건축설계업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도 정관을 우리정관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법인은 우리 법인으로 대체되며 같은 명칭으로 번한 한국건축가협회의 기존 법인체는 청산될 것입니다. 또한 새건축사협의회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흡수되며 법인체는 청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의 모든 재산과 행사의 권리 등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4 지금 통합을 위하여 추가로 임시총회를 해야 하는 원인은 건축가협회가 지난 임시총회에서 우리협회와 합의된 정관을 변경하여 통과시킨 결과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임시총회를 하여 수정 합의한 내용을 통과시킨다 하여도 건축가협회가 지난번처럼 변경하여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건축가협회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건축가협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득권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어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법인등록이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 모두 가능할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국내 역사상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협회의 정관내용 일부 변경의 의마는 바로 양 부처의 등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양 부처 장관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 내용이 건축가협회회원 모두에게 전달되었기에 다시 수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건축가협회 임원들의 예상입니다.

1-5 본래 통합문제는 건축사등록원을 협회가 설립하는 것을 힘의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지 말고 건축사법의 개정 내용 중 건축사등록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건축사등록원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통합의 모티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 건축계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등록원의 문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이유가 등록원 설립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등록원 문제와 같이 항상 건축계의 의견이 각 협회의 입장으로 인하여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전제로 등록원을 건축사협회가 설립한다 라고 합의를 보았지만 정부는 별도의 독립된 등록원이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록원 대부분의 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위임하겠다고 합의된 것이 현재의 건축사법개정안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통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계 내부에서 다시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므로 그나마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내용들마저도 위임하지 못 한다라는 결과가 나올까하는 걱정입니다. 등록원은 건축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운영의 주체는 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등록원이 그렇고 영국의 등록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건축사협회가 등록원을 운영하려면 건축계가 정부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통합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통합을 통하여 정부에 건축계의 통일된 의견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은 정부와 건축계에 선언된 공식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최소한 건축가협회의 정기총회인 12월 초까지는 통합총회 또는 통합대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통합선언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그런 행사를 확정되지 않으면 건축가협회는 다시 차기회장을 비롯한 임원개선을 해야 하며 우리협회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빌미를 주어 통합의 모든 노력이 깨질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2010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시작되므로 양 부처의 승인 등 각종 절차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통합이 되더라도 건축사 아닌 사람들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기존 건축가협회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면 결국 통합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많은 회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중심의 협회가 되면 건축사가 아닌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사 아닌 회원들, 특히 건축학과 교수들과의 공존을 위함이 통합의 큰 목표중의 하나이므로 그렇게 협회의 운영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의 이유로 새로 생길 수 있는 건축단체가 아무 힘이 없을 것으로 그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등록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이므로 추가의 건축관련 법인설립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 둘째, 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에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등록되므로 예총의 모든 지원이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될 것이며 다른 건축단체로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 셋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던 대한민국건축대전을 비롯한 모든 건축관련행사 및 지원금도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승계하므로 건축계의 분열을 가시화시키며 새로 시작하는 건축단체가 건축계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1-7 통합할 경우 우리 협회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통합될 경우에 디 단체 회원들과 같은 회원이 되니, 우리 재산의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첫째, 우리 협회의 기금 또는 부동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다수인 우리 협회 대의원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협회에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둘째, 기존회원에게 적용되는 폐업위로금 등은 타 회원에게 적용되자 않을 것입니다.
- 셋째, 우리 협회와 같은 비영리 특수법인인 경우 재산을 해체하여 회원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통합이 될 경우, 우리 협회의 정회원 수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현재 통합될 3단체의 회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나 건축사 아닌 특별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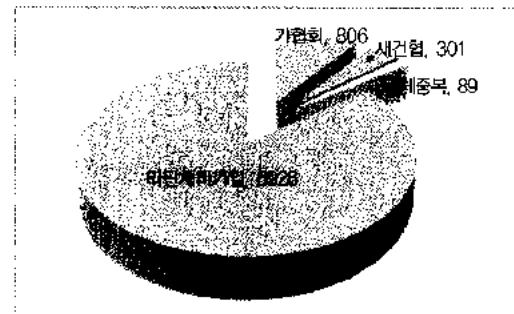
회원은 준회원격인 전문회원으로의 변경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축사단체 회원 중 건축사 현황

- 대한건축사협회 : 8,083명 ('09.9월 현재)
- 한국건축가협회 : 2,979명 중 1,393명, 비건축사 1,586명 ('09.9월 현재)
- 새건축사협의회 : 1,018명 중 662명, 비건축사 356명 ('09.9월 현재)

□ 우리협회 회원 중 타단체 가입현황

- 한국건축가협회 가입자 : 806명(10%)
 - 건축사 회원 중 나머지 587명은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새건축사협의회 가입자 : 301명(3.7%)
 - 건축사 회원 중 나머지 361명은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가협회+새건협 가입자 : 89명(1.1%)
- 타단체 미가입자 : 6,926명(86.2%)
 - ※ 가협회+새건협 가입자 : 78명(우리 협회 회원이 아님)



□ 단체통합 후 정회원 수 예상통계 : 10,823명 (8,903명+1,920명)

- 건축사회원 : 8,903명(8,033명+870명) • 특별회원 : 1,920명

※ 건축사회원 계산과정

- 한국건축가협회 가입자 : 806명 ① : 1,393명 - 806명 = 587명(미가입자)
- 새건축사협의회 가입자 : 301명 ② : 662명 - 301명 = 361명(미가입자) →
 - ∴ ①(587명) + ②(361명) - ③(78명) = 870명
 - ∴ 8,033명 + 870명 = 8,903명
- 우리 협회 미가입자 중 가협회 회원과 새건협 회원 중복가입자 ③78명

※ 특별회원 계산과정

- 한국건축가협회 비건축사 : 1,586명 ① • 새건축사협의회 비건축사 : 356명 ② • 가협회+새건협 중복가입 비건축사 : 22명 ③
- ∴ ①+②-③= 1,920명

교수 약 600여명, 건축사사무소 근무자 550여명, 명단만 기재된 사망자를 포함한
비활동회원을 제외하면 인테리어, 건설사 등의 인원은 극소수일 것으로 추산됨.

※ 타단체 회원의 건축사여부 확인방법

- 타단체에서 보낸 준 회원명부와 우리 협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자료를 비교 검토함.
- 한국건축가협회에서 건축사자격 소지자로 보고한 사람 중 일부는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로 확인됨.

1-9 통합되면 타 단체 회원들이 입회비를 내고 들어오는가?

타 단체 회원들 중에 우리 협회 회원과 중복되지 않은 회원들은 입회비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입회비를 내야 한다면 통합이 아니겠지요. 단체와 단체 간의 통합절차이므로 입회비는 없는 것이 맞다는 것이 통합위원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10 통합되면 건축사 아닌 회원들이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강한 영향력을 주어 건축사단체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지 않은가?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의원 절대다수가 협회회원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건축사 아닌 회원들은 회비납부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준회원 성격인 전문회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 건축사 아닌 사람들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

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닐 경우 회원으로의 입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축사 아닌 자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비하여 건축사들은 현재의 비회원 건축사들을 비롯하여 새로 합격되는 건축사들의 입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건축사 아닌 회원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 통합되면 건축사 아닌 회원들도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아닌 자들이 건축사 업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 아닌 사람들이 협회 회원이 되었다하여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은 현행 건축사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므로 있을 수 없는 오해입니다.

1-12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예상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와 건축계로부터 신뢰도가 땅에 떨어 질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불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축사협회보다 신설되는 등록원에 더 중점을 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사시험 등 기존 위탁업무가 등록원으로 이전 될 가능성과 앞으로 모든 등록원 업무 등의 위탁에서 건축사협회가 배제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축계에서의 건축사협회 힘이 점차로 약화되어 법과 제도 개선, 각종 심사위원의 위촉 등 건축계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제2의 건축사협회 설립추진이 재론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2. 통합정관(안)에 관한 사항

2-1 당초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 바꾼 이유는?

통합되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무부처장관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에 대한 국고자원이 가능하여 지금껏 지방건축문화제 등의 건축문화 예술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축문화진흥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려 건축가협회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의 기득권을 승계하는 것이 건축계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통합대상 단체장들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면담을 통하여 두 부처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구두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공문으로 확인하여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건축계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바꾼 것입니다.

2-2 건축사법이 개정된다는 전제 하에 현행 건축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현행 건축사법상 협회의 정회원은 개업 건축사만 해당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사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회원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건축사법 개정을 조건으로 한 정관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차문완료)

2-3 정관(안) 제7조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건축문화재단」, 「친환경 건축연구원」과 현재까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일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별도의 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한 것입니다.

2-4 이사수가 최대 55명인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지?

3개의 단체가 통합되는 만큼 이사 수의 증가는 필요하며, 우리 협회와 비슷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협회와 비교해 볼 때 이사 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회는 상임이사회의 산설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상임이사회는 현재의 이사회로, 전체 이사회는 현재의 임원 및 시도회장 협동회의와 비슷한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통합 회원 수 약 10,000명 (이사 수 : 55명, 상임이사 수 : 15명)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수 : 9,208명 (이사 수 : 50명, 상임이사 수 : 10명)

2-5 정관이 개정될 경우, 대의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인가?

현재는 대의원이 회원 20명을 대표하지만 개정안은 3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30명을 대표하는 2011년 대의원 수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하여 약 481명으로 추정(아래 참고자료 참조)되며, 2012년 이후부터는 47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당연직 대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20명을 대표한 현재의 대의원 숫자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1년 대의원수 : 481
- 당연직 대의원 : 149명
 - 명예회장 28명 (사협회 : 10명, 가협회 : 14명, 새건협 : 1명)
 - 현직 및 직전임원 121명 (현직 : 55명, 직전 : 66명)
 - 선출직 대의원 : 332명(통합 후 정회원수 기준)

2012년 이후 총대의원 수 : 470명

- 당연직 대의원 : 138명
 - 명예회장 28명 (사협회 : 11명, 가협회 : 15명, 새건협 : 2명)
 - 현직 및 직전임원 110명 (현직 : 55명, 직전 : 55명)
- 선출직 대의원 : 332명(통합 후 정회원수 기준)

2-6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로 처리할 경우, 사업예산 집행 등 협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과반수 가결의 의미가 이미 가부동수는 부결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설명이므로 문제의 소자는 없다고 봅니다.

3. 통합이행 · 운영규정(안)에 관한 사항

3-1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의 대표단이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으로서 과도기간 1년(2010년3월1일~2011년2월28일)의 한시적 규정이며 1년의 예비기간을 통하여 예산, 사업집행 등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통하여 완전히 통합된 이후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당초의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과는 달리 통합총회를 통합대회로, 청산절차에 정관개정을 포함하여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임원선출을 임원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합의과정이 짧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내용 이외에 아래와 같은 일부내용의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통합총회는 예산, 사업 등의 의결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나 실제적으로는 통합을 외부에 일리는 행사이므로 총회의 명칭보다는 대회의 명칭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따라서 대회에서 임원선출은 어울리지 않으니 당초 규정이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추천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한국건축가협회의 청산을 정관개정을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은 것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정관개정을 하여 대한민국건축사협회가 되어도 좋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이 있었기에 정관개정을 추가한 것이지 한국건축가협회의 법인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회장의 결재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각 단체의 예산과 사업의 독립적 의미를 확실히 하여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과 예산 집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되 중복사업, 국제행사 등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의 추가변경이 본래의 통합합의 내용을 변질시켰다는 등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6월 이전을 6월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불가피한 내용만을 수정하도록 타 단체들의 양해를 받아 놓았습니다.

3-3 앞으로 통합이행규정 및 운영규정을 우리 협회 입장대로 수정변경이 가능한지?

수정은 하더라도 각 단체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입장에 맞추어 수정을 하는 내용이 각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일방적인 협회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해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기 이전에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지?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원칙적으로 정관의 발효일과 같으나, 다만 정관발효일 이전에 준비해야 할 통합총회 등의 사전 준비내용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5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2년)를 하위규정인 '통합이행 및 운영 규정'에서 '11.2.28까지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정관에서 위임받았고, 정관에 구체적인 통합원년의 기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가칭)통합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 통합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임기 개시일은 언제인지?

- 법인 등기부상의 이사로 등재해야 하는지? 등재 시점은?

* 정관 시행일('10.3.1) 이전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등재해야 함.

통합총회 또는 통합대회는 자문 변호사의 해석대로 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각 단체가 추천한 자를 통합창립총회를 통하여 형식적인 선출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서 통합원년인 과도기간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2010년 3월1일부터이지만 그 이전에 2010년의 사업계획 등의 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의 이사 66인에 대하여는 정관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이사이므로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과도기간(통합원년)임기 1년의 이사로 등재해야 할 것입니다.

3-7 통합원년 이사회와 우리 협회 이사회의 법적 지위는?

- 통합원년 이사회가 구성되면, 우리 협회 이사회는 자동 해체되는지?

통합원년의 개시일인 2010년3월1일 이전에 건축사법 개정과 국토해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승인이 된다면 우리 협회 정관이 통합정관으로 개정되는 것이므로 이사회는 통합대회 또는 총회에서 추천, 선출되는 이사들로 구성되며 통합원년 이사회의 모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8 통합원년(과도체제) 이사회의 구성이 각 단체의 회원 수와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협회에 배정된 이사 숫자가 이사회의 66명 중 30명, 상임이사는 15명 중 6명 등으로서 과반수 이상이 타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 숫자에 대하여 단체통합을 추진한 2008년도 우리 협회 통합추진위원회들이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째, 추진하고 있는 통합단체의 명칭은 건축사협회라는 이름이므로 한국건축가협회를 춤수 통합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한국건축가협회 회원들의 우려었습니다.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2009년 성기총회의 통합성관을 통과시킬 때 의결주문에서도 춤수통합이라는 단어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요청에 의하여 빼겠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축가협회의 입장에서는 대등한 1:1통합이라는 식의 의형적 위 모습의 명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가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자원에서 한국건축가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통합의 의지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니 양보가 필요 없었겠지만 건축계 미래를 위하여 통합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고심 끝에 양보한 것입니다.

둘째, 아울러 양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이유는 통합이행규정이 1년이라는 한시적인 규정이며 실제로 각 단체들이 각각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외부행사의 조절, 국제관계에서의 단일화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권한(예산포함)이 없어서 상장성만을 가진 임원의 역할이므로 우려할 바가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9 우리 협회장의 임기가 2011년 3월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건축가협회장이 대표회장이 되는 경우, 협회 운영에 관한 대표권이 모두 이양되는 것인지?

우리 협회 회장의 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통합정관에 명기된 대로 2010년3월 일부부터 우리 정관은 통합정관으로 변경되므로 우리 회장은 공동회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공동회장 1년의 기간 중 6개월은 대표회장이 됩니다. 통합원년은 각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간의 체제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통합원년 1년 동안의 예산, 행사 등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의 이름으로 되겠지만 실제운영은 각 단체가 하던 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국내외 행사시 대한민국건축사협회를 대표하는 명예는 대표회장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건축가협회회장이 6개월간 대표회장이 되더라도 1년 동안의 과도체제기간에서는 협회운영권 전체가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행사에서의 대표성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통합관련 자문변호사 질의내용 요약

4-1. 통합하려는 세 단체 중 한 단체가 당초 합의내용과 다르게 정관개정(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한 경우, 우리 협회 총회에서 승인한 정관 개정(안)도 효력이자동 소멸되는 것인지?

답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임.

다만, 그 내용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동 소멸되는 것이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제43회 정기총회 조건부 승인내용

O본 정관 개정(안)은 향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며, 동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는 조건부 승인임.

- 1)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축사법 개정(안)중 정관 관련사항이 원안대로 개정
- 2) 3단체가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 이행
- 3) 정부의 정관 개정 인가

4-2. 정관 제1조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더라도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인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 개정(안) 전문에 '건축사법에 의해 창립된 대한건축사협회와 두 단체의 독자적인 창립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하여 통합한 단체'로 명시

답변) 설립근거를 삭제하더라도 법인격이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통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법인들이 설립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3. 건축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정관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에 명시된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부처장관'으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문제되지 않습니다.

4-4. 통합단체의 정관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구성 및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별도의 창립총회 개최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법률적 의미의 창립총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개 단체의 통합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념식 형태의 (가칭)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4-5. '라' 항의 창립총회가 필요하다면, 그 구성원은 각 단체의 전체 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구성원(우리 협회 : 대의원)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의원들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타 2개 단체의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에 해당하는 회원을 선정하여 참석토록 해야 합니다.

4-6. 지난 정기총회('09.2.25)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중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의결권 행사는 총회의 개최를 진제로 하는 것이므로 총회개최 자체를 서면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7. 6항과 관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정관개정(안)중 근본적인 변경이 아닌 보충 수정하는 의미인 경우 전체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이후에 개정안의 효력발생요건 이행과 (가칭)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경기 | Competition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관 The National Pavilion of EXPO 2012 Yeosu Korea

당선작 / 윤세한 정희원·남기홍·정희원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최명철 정희원 · 김태만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 (에이치 어소시에이츠)

대지위치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가관 부지 일원
 주요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140,200㎡
 건축면적 44,159.87㎡
 연면적 131,300㎡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주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계담당 총괄_주상선, 강현재, 조향민, 이동준
 해안건축_윤정택, 장명동, 강준, 이애란,
 김용훈, 구형천, 한혜원, 서정희, 탁경민
 단우건축_심우근, 최충연, 조영건, 김동우,
 손아영
 H Associates_김진, 배상준,
 Linda C. Daniels, Elan Blumberg,
 Dylan Sauer, 김종국, 천장환

The 3rd Nature® : Metaphorical Archipelago 제3의 자연 : 다도해의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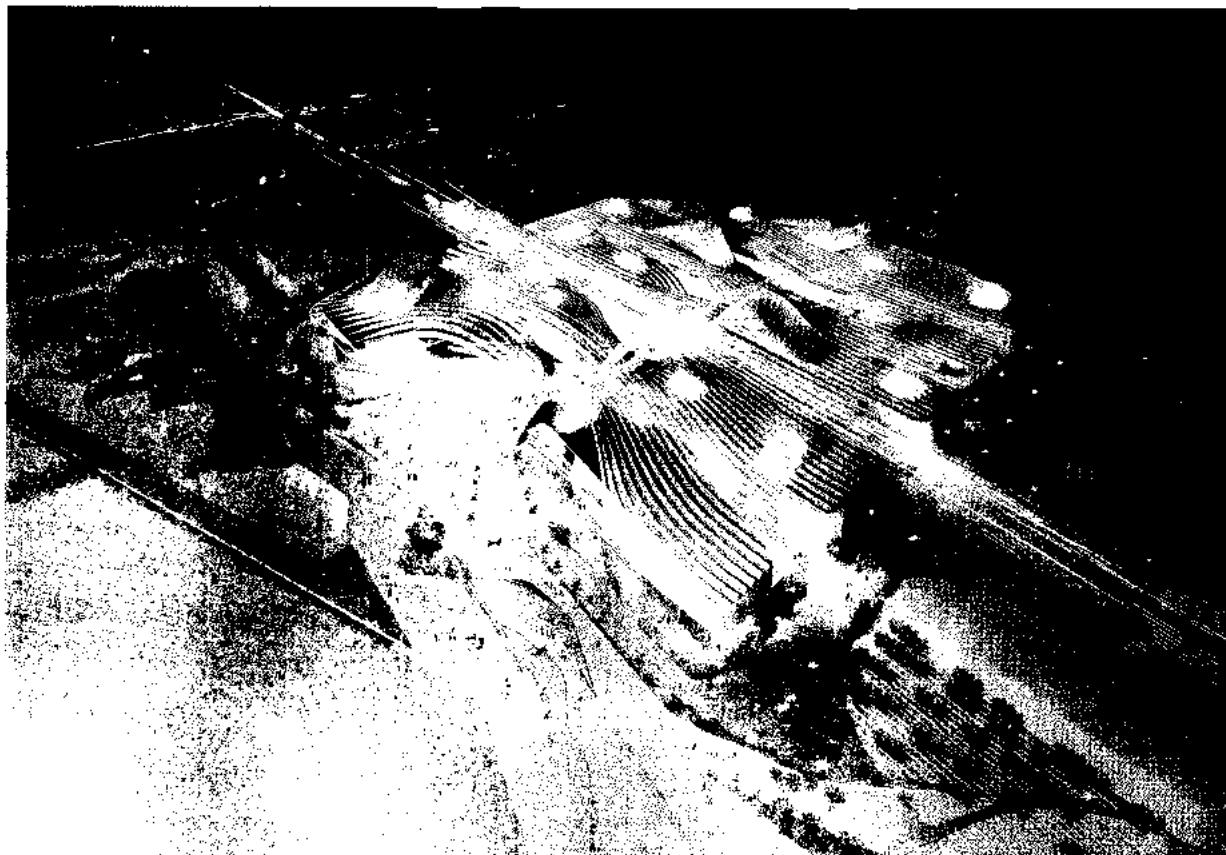
여수는 현상설계들이 그려하듯 여수세계 박람회 국가관 현상설계의 공모지침도 희망과 비전, 전제와 지향,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요구로 가득하였으며, 이 수많은 조건들은 크고 작은 물음으로 설계자가 계획안을 통하여 대답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먼저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답변을 마련할 주요 질문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1건물의 지향과 비전, 2엑스포 기간 중 건물의 쓰임새와 역할, 그리고 3엑스포 이후에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위한 해체와 증축의 용이 등 크게 세 가지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화두,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기조와 맞물려, 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 건물인 국가관은 어떤 선언적인 그러나 실체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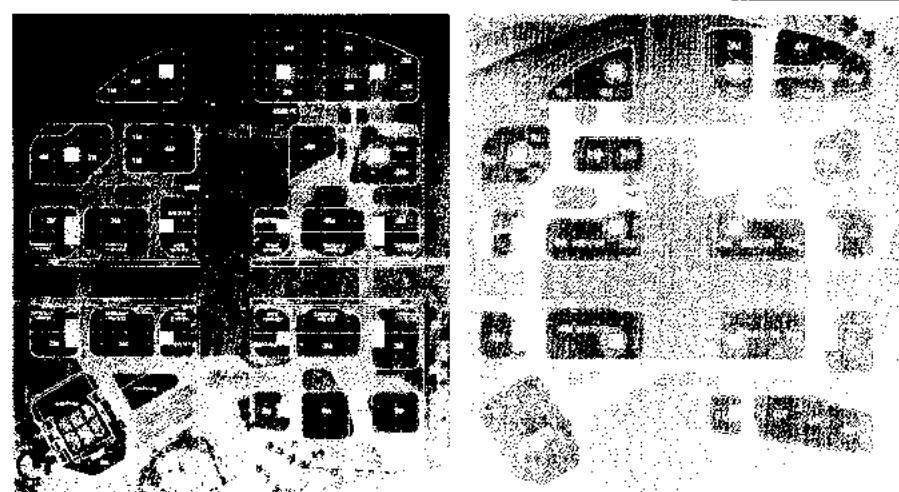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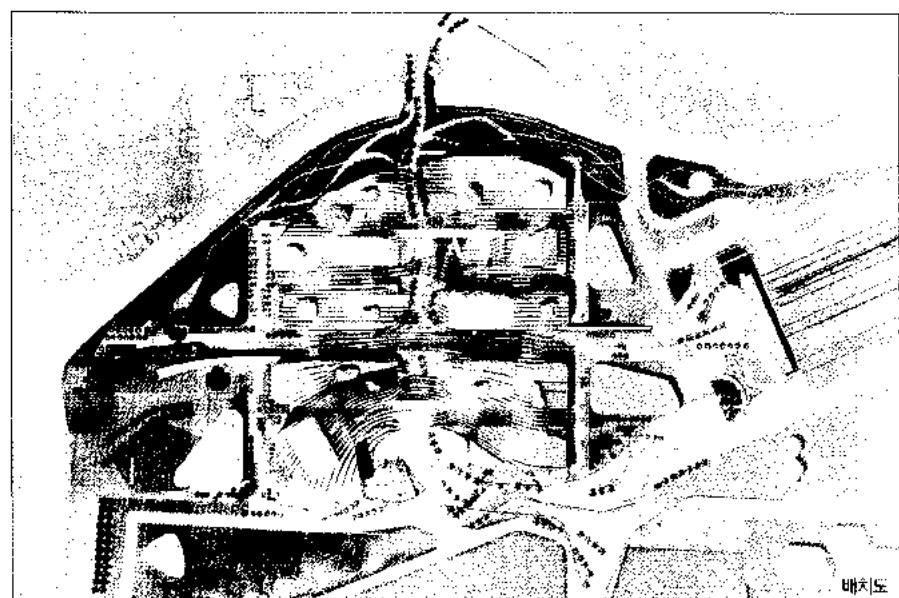
그린Green, 친환경Sustainable, Marine Technology, Ubiquitous, IT 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하는 국가관 현상설계에서 설계팀은 제3의 자연이라는 단어를 이 프로젝트의 태이틀로 결정하였다. 자연 그 자체로서의 자연인 제1의 자연과 그와 상반되는 의미의 인간생존활동의 산물인 인공환경 제2자연을 넘어선,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인공시스템을 의미하는 제3의 자연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적역량을 이용하여 반자연적 요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에 내재된 원리를 응용, 재해석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시스템인 제3의 자연을 국가관 설계에서 구현하였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깨끗이뿐만 아니라 내재된 기술, 건물의 사용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 등을 포함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 산정하고 국가관에 크게 3가지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바다의 표면을 상징하면서 모든 친환경



적인 기술과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지붕면으로서의 Smart Living Roof System, 염습지와 갯고랑, 갯구멍 등 부지주변의 숨쉬는 연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능적인 전시관의 본체를 구성하는 Foreshore Ground System,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목적 수직기능타워로서의 역할과 다도 해위에 떠있는 섬을 은유한 Multi-Functioning Tower System이 그것이다. ■



해외의 BIM 가이드라인 사례연구

Case Study of BIM Guideline on Other Countries

건축시장에서도 지식정보화로 등장한 BIM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전통적인 건축의 2D 해석방법을 보다 실물 그대로의 형태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는 건축시장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이 야기될 전망이다. 건축사무소의 경우 설계 프로세스의 변화, 디자인팀 구성의 변화,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의 변화, 건축사의 역할의 변화 등 많은 변화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우리 건축시장에도 BIM으로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많은 혼란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목 차

1.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
2. BIM Requirements 2007, 핀란드(II)
3.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
4. DIGITAL CONSTRUCTION, 덴마크(II)
5. BIM Guide Series, 미국(GSA)
6.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 미국(NBS)
7. BIM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현황

건축은 건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는 여러 전문집단이 함께 협업(collaboration)하여 이루어 가는 행위들로 볼 수 있다. 여러 관계자간의 상호 밀접한 협업과 분명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국외의 BIM 가이드라인을 조사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내 건축시장의 전통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내 BIM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사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지면을 통하여 갖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필자 : 김길재, 한성운대학교 건축전학과 부교수

by Kim, Kihl-chae

김길재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퀸즈라운드주립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의로 시설의 계획 및 설계와 건축의 정보화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평가원과 기상산업연구단에서 건축 BIM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성운대학교 건축전학과에 재직 중이다.



- 한국의 BIM 가이드라인 역사
- 대한건축학회 디지털건축학회 위원회
- 한국 디지털 건축설계대학원대학원
- 한국 건설관리학회 정보화학회 위원회

5.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3D-4D-BIM Program (미국)

- 공간유효성평가를 중심으로 -

- Focus on Spatial Program Validation -

최근 공공빌주 BIM의 도입 및 적용은 대한주택공사, 행정복합 도시 건설청, 정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BIM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막는 것은 여러 통상적인 문제들 외에 BIM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BIM은 도입단계에 있다. 따라서 도입초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 보급은 혼선을 줄이고 BIM활성화와 저변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은 기술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BIM가이드라인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 3월, 4월, 5월, 6월호의 해외 BIM가이드라인 사례에 대한 연재에 이어 미국에서 조달청 기능을 담당하는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하 GSA)의 국가 3D-4D-BIM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또한 이 가운데 BIM가이드 시리즈 02의 Spatial Program Validation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내용의 상당부분은 GSA의 BIM Guide Series를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GSA의 국가 3D-4D-BIM Program

미국 GSA는 공공 기관 건축 서비스(Public Building Service, 이하 PBS)를 통해 미국 전역 8,500여 개의 소유 또는 임대 건물에 있는 수많은 연방 기관 근무자들을 위해 양질의 작업 공간을 제공 및 유지 관리 한다. 이를 위해 PBS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주택, 사무실, 건물, 국경 초소 및 설비 등을 계획, 설계 및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PBS는 총액이 80억 달러에 이르며 3억4,000만 평방피트(s.f)의 임대 부지를 사용하는 자본 투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70가지가 넘는 새로운 건설 및 수리 그리고 리노베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되도록 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PBS의 매우 중요한 핵심 업무이다.

2003년 GSA의 PBS 건축부 (OCA, Office of the Chief Architect)는 국가 3D-4D-BIM 프로그램을 설립했으며, 미 연방 기관 중 가장 먼저 BI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GSA는 미국 건축 산업에서 전례 없던 개방형 표준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여러 소프트웨어 경쟁업체들이 자발적으로 GSA비즈니스 요구 및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새로운 BIM 가능성을 통합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GSA는 다른 연방 기관들로 하여금 BIM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방형 표준을 고양시키며, 산업 및 소유자들로 하여금 소유자의 BIM과 그 요구 조건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3D-4D-BIM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 표현 기술을 장려하여 정부 프로젝트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건물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3D, 4D 및 BIM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 운용성

과 완벽한 기술 이전을 달성함으로써 기존 기술의 보조하고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와 향후 많한계까지 극복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GSA가 3D-4D-BIM Program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3D-4D-BIM을 단계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정책 수립
- 2) 현재 대형 프로젝트에 3D-4D-BIM을 시범 적용유도
- 3)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3D-4D-BIM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 및 평가
- 4) 업계의 현재 상태와 기술성숙도 평가
- 5) 3D-4D-BIM을 위한 GSA특별 지원 개발
- 6) 3D-4D-BIM 서비스를 위한 계약 언어 개발(GSA의 자체 사용만을 위한)
- 7) BIM 베더, 전문 위원회, 공개표준조직,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 8) GSA BIM ToolKit 구축
- 9) BIM 가이드시리즈 출판
- 10) 지식 커뮤니티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 11) BIM 챔피언스의 커뮤니티 구축

1. 3D-4D-BIM이란?

3D, 4D 및 BIM 기술은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대표하며, 이들 방법은 각각 별개이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낸다.

- 1) 3D 형상 모델은 건물 구성 요소를 형상화한 것으로, 대개 시각화 및 설계/건설 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며,

- 2) 4D모델(3D + 시간)에는 프로젝트 단계별 실행, 건설 스케줄링 등을 알리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3) BIM에는 3D 형상 모델(따라서 2D 및 3D 도면을 직접 생성할 수 있는)뿐만 아니라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및 시스템(예: 벽 유형, 공간, 공조 장치, 지리적 공간 정보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다.

3D 모델에는 건물의 3차원 형상 표현이 포함되는 반면, BIM은 건물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서 건물 층, 공간, 벽, 출입문, 창문 그리고 이들 각 요소와 연관된 광범위한 정보의 배열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BIM은 3D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델에는 비용 계산, 에너지 시뮬레이션 또는 건축 코드 검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정보도 포함된 코드다. 3D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기여하지만 3D 형상 표현은 BIM 개념의 일부일 뿐이므로 3D 모델 하나로는 BIM 모델로 충분치 않다. BIM 개념의 나머지 사와 갈정보를 의미하는 BIM의 "T"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직접 조작되는(컴퓨팅 가능한) 공유 지식 기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 중요성은 플랫폼 전체에서 정보가 공개적으로 상호 교환되는 것 그리고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에서 건축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다. GSA에서는 BI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물 정보 모델링은 다면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모델을 개발 및 사용하여 건물 설계를 문서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설 또는 새로 현대화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시뮬레이트하는 것이다. 그 결과인 건축 정보 모델은 시설에 대해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 개체 기반의 지능적이고 파라메트릭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표현이다."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s the development and use of a multi-faceted computer software data model to not only document a building design, but to simulat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new capital facility or a recapitalized (modernized) facility. The resulting Building Information Model is a data-rich, object-based, intelligent and parametric digital representation of the facility."

1.1. OCA가 주도하는 3D-4D-BIM 프로그램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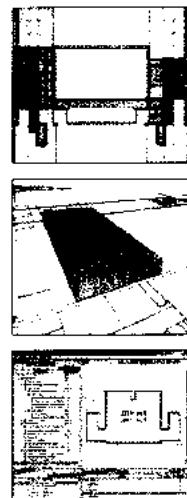
OCA의 3D-4D-BIM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50개가 넘는 GSA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도 및 보조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시험 프로젝트만도 11건이며, 전국에서 25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3D, 4D 및 BIM 응용프로그램을 평가 및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3D, 4D 및 BIM 기술의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 Spatial Validation (공간 유효성 평가)

국가 3D-4D-BIM 프로그램은 공간유효성 검사를 위해 BIM을 활용하는 데 가장 먼저 도입 됐으며, 2007회계년도 이후로 설계 기금 지원을 받게 된 모든 프로젝트의 경우, PBS의 최종 개념 승인을 받으려면 공간 프로그램 BIM이 모든 주요 프로젝트(새 프로젝트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BIM을 사용하여 공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전반적인 목적은 공간 요구 조건과 관련하여 설계 성능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팀은 BIM을 사용하여 공간을 모델링 및 분석함으로써 복잡한 공간 표준과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공간을 정의하는데 한 번 사용되고 제안된 설계가 모든 관련 공간 조건을 만족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OCA는 공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요구 조건을 정리한 'GSA 개념 설계 뷰'를 개발했다. GSA 개념 설계 뷰는 IAI가 개발하여 발표한 IFC BIM 모델링 데이터 표준의 모델 뷰이다. IFC의 GSA 개념 설계 뷰는 Autodesk Revit 및 Architectural Desktop, Bentley Architecture, Graphisoft ArchiCAD, Onuma Planning System, Solibri Model Checker 등에서 지원된다.

• 4D Phasing(4D 단계적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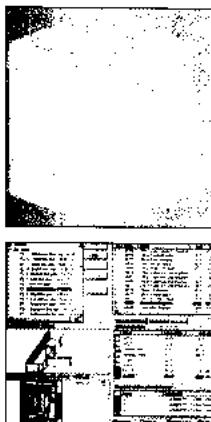
4D 모델은 3D 모델을 시간과 결합한 것이다. 프로젝트 팀과 GSA 관련자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단계별 상황을 모든 관련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관련자들은 4D 모델링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예: 건설 구역의 위치, 거주자가 공간을 옮기게 될 위치 및 시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GSA는 비용과 관련해서 4D 모델을 사용하여 예상 건설 스케줄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OCA는 전국의 다양한 GSA 프로젝트에서 4D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 요구에 따라 4-D 단계적 실행 기술을 장려, 문서화 및 평가하고 있다.

• 3D Imaging (3D 레이저 스캐닝)



3D 레이저 스캐닝은 높은 정확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3차원 건물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3D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능력은 GSA 비즈니스 목표에 속한 내역 문서화, 설비 조건 문서화, 기존 건축물 개발, IBM 개발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OCA는 NIST, ASTM, FIATECH, SPAR Point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의 관행 및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OCA는 현재 뉴욕주 브룩클린, 조지아주 애틀란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등지에서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Energy Performance and Operation(에너지 성능 및 운용)



OCA는 현재 BIM 기반의 에너지 모델링(공간 기준) 활용시 이에 대한 이점을 연구하면서 이 기술의 방법론과 결과를 보다 전통적인 에너지 모델링 관행(구역 기준)과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력정보의 증가함에 건물 운영과 관련된 다양성 및 불확실성을 처리할 능력은 더욱 확실해지며, BIM을 사용하면 에너지 분석을 비롯하여 기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분석(예: LEED 및 일조분석)에서 자동화 및 전산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의 목적은

합리화된 공정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건물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설계 초기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에너지 측정, 라이프사이클 비용 분석 개선, 고성능 건물로부터의 정보 수집 과정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OCA에서 진행 중인 두 가지 시험 프로젝트에서는 BIM 기반의 에너지 모델링 방법과 전통적인 에너지 모델링 관행과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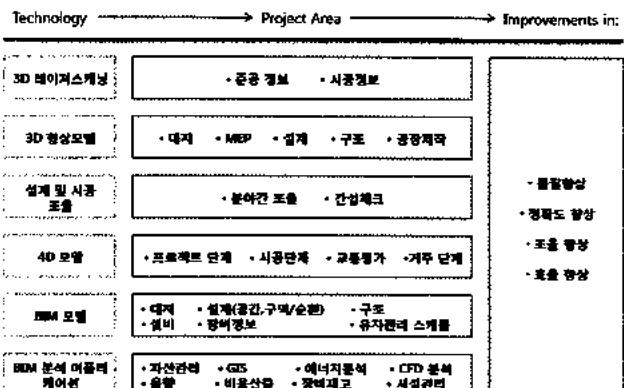
• Circulation and Security Design Validation(순환 및 보안설계 유효성 평가)



OCA는 연구 팀 및 업계 회원들과 협력하여 최우선순위의 순환 요구조건 및 보안 관련 부문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U.S. Courts Design Guide를 토대로 다른 PBS 설계 안내서에 명시된 다양한 건물 유형에서 요구 조건의 적용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공간 유효성 검사 작업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GSA의 BIM 도입의 시작점은 공간 데이터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향후 IFC가 지원하는 자산관리 영역까지 통합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문서 중심의 설계에서 모델 중심의 설계로 변화하고자 한다. GSA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토대로 공간 분석, 에너지 시뮬레이션, 디테일 및 공장제작(Fabrication), 시공 오차, 빌딩 커미셔닝(Building Commissioning)등의 다른 BIM 분석 응용프로그램에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BIM 구현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추가 목표를 포함하고,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전체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래 <그림 1>은 3D-4D-BIM 어플리케이션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D-4D-BIM 프로그램의 구현 계획 및 구현 단계에서 프로젝트 팀은 구체적인 최선의 관행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지침을 위해 적용 가능한 BIM 가이드시리즈를 참고해야 하며, 이에 GSA에서는 BIM 가이드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가이드와 개발 중인 가이드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림 1) 3D-4D-BIM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표 1) GSA의 BIM 가이드 시리즈

시리즈	내용	버전
Series C1 3D-4D-BIM Overview	국가 3D-4D-BIM 프로젝트의 기술과 그것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v 0.80(Draft), 2007년 5월
Series C2 Spatial Program Validation	GSA 공간프로그램을 위한 BIM 기술의 효율적인 이용방법, BIM 도구, 프로토콜, 경의 등 최소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건물에 대해 품질을 주고 있다.	v 0.96(Draft), 2007년 4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기술 서 부록
Series C3 3D Laser Scanning	GSA 프로젝트의 산업 시장에서 3D 레이저 스캐닝 서비스를 받고 실행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확장 및 문서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v 1.0 2009년 1월
Series C4 4D Phasing	시간과 관련된 건설 정보를 연계하여 건물소개증의 이해를 위해 기술하고 있다.	개발 중
Series C5 Energy Performance and Operation	BIM 기반의 에너지 모델링(공간 기준)과 전통적인 에너지 모델링 관행(구역 기준)과 비교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석을 통해 에너지 효율 평가와 에너지 관리를 운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v 1.0 2009년 2월
Series C6 Circulation and Security Validation	U.S. Courts Design Guide를 토대로 보안 및 피난과 관련된 최우선 순위의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편의하는 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개발 중
Series C7 Building Element	프레모델 생성에 사용된 각종 요소들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통합하고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을 위해 글로벌 요구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개발 중

1.2. BIM 정보 교환 표준

개방형 BIM(Open BIM)은 "IFC-based BIM"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은 BIM데이터의 원활한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표준을 의미한다. GSA는 정보 교환을 위한 개방형 표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표준은 없으며, 3D-4D-BIM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특정 데이터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가 개발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데이터 모델이다.

IFC는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과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BIM 교환을 위한 컨텐츠와 구조를 정의한다. IFC 모델 계획은 부분적으로 ISO 10303 제품 데이터 모델링 표준을 토대로 하고, 새로운 ISO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심의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이러한 표준화를 위해 국제적 검토를 받고 있다. IFC는 교환을 위한 공개 표준 중 하나이지만 OCA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3D 레이저 스캐닝 관련),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NBIMS(National BIM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등의 다른 표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는 강구조 설계 모델을 위한 CIMSteel 통합 표준인 CIS/2와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모델을 위한 Green Building(GBxml) 등과 같은 데이터형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GSA는 이들에 대해서 표준 준수를 위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GSA에서는 BIM이 개방된 범용 데이터 표준을 통합하여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는 산업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PBS는 상호 운용성을 장려하는 개방 표준 사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PBS는 국가 지침으로서 접근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1.3. 계약 언어

건설 및 시설 운영을 비롯한 건축 프로세스에서 BIM 응용프로그램 구현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OCA는 GSA 프로젝트 리더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작업 명세서 및 계약 언어를 개발했으며, GSA 관련자들은 작업 범위, 샘플 계약 언어 및 프로젝트별 사용자 정의에 관해 OCA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데이터 소유권 및 권한

BIM을 통한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BIM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BIM기술의 사용에서 오는 분쟁, 계약체계의 미비에서 오는 혼란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델의 소유권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책임 등에 대한 논란과 잠재된 많은 법적 문제들이 BIM의 본격 실행을 막아서는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SA 또한 상호 운용성을 장려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모델 및 정보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GSA 프로젝트에서 PBS는 A/E 계약의 실행 규정에 따라 A/E가 개발 및 제공한 모든 데이터 및 기타 파생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규정은 GSA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건축 정보 모델 및 관련 데이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E는 민감하면서도 분류되지 않은 종이 문서와 컴퓨터에 저장된 건축 정보에 대한 PBS 3490.1- 문서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GSA의 BIM 가이드시리즈에 기술된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참고목록은 다음과 같다.

- FAR 52.227-1 AUTHORIZATION AND CONSENT (JUL 1995).
- FAR 52.227-2 NOTICE AND ASSISTANCE REGARDING PATENT AND COPYRIGHT INFRINGEMENT (AUG 1996).
- FAR 52.227-3 PATENT INDEMNITY (APR 1984).
- FAR 52.227-17 RIGHTS IN DATA - SPECIAL WORKS (JUN 1987).
- GSAR 552.227-70 GOVERNMENT RIGHTS

(UNLIMITED)(MAY 1989).

2. Spatial Program Validation(공간 유효성 평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GSA에서는 국가 3D-4D-BIM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하기 위한 3D-4D-BIM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술 및 전략에 대해 BIM 가이드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BIM기술의 장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BIM Guide Series 02 Spatial Program Validation이며, BIM 도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표준에 대해 선행 개발하고 이에 따른 Validation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다. 2005년 5월, 버전 0.10으로 첫 공표로부터 5번의 업데이트를 걸쳐 2007년 4월 버전 0.96까지 개발 되었다. 현재까지 잠정적인 상태로 발표되어있지만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다른 BIM 가이드 시리즈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완전한 버전으로 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공간유효성 평가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서 격인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2.1. 왜 공간 프로그램의 유효성 평가 인가?

GSA의 PBS는 3억 4,200만 평방피트(s.f.) 규모의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공간 계산(예: 임대 가능 영역, 사용 가능 영역)은 GSA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요소 중 하나이므로, 미국에 있는 상업용 공간의 가장 큰 소유자인 GSA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체 공간을 측정해야 한다. 과거에 GSA는 개념 단계에서 공간 프로그램 유효성 검사를 A/E에게 요구하였다. A/E는 GSA의 공간 측정 방법을 요약한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를 속지한 후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2D 다각형을 사용하여 공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일관성과 효율성을 결여한 방법이며, GSA의 공간 데이터 관리(Spatial Data Management, 이하 SDM)팀이 실제 건물 공간에서 측정하여 보고할 때 많은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추후 SDM 보고서는 임대료 계산의 토대가 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BIM을 사용하여 공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전반적인 목적은 GSA 공간 프로그램 요구 조건과 관련하여 설계 성능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BIM 모델을 사용하여 공간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최종 개념 단계의 모든 설계가 주택 계획 및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에 명시된 공간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GSA는 업무 특성상 위대형 건물 특히 오피스건물에 대한 공간 이름 및 공간분류 체계, 임대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기존의 2D기반의 프로세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BIM을 활용하여 앞서 제시된 기준들에 대해 평가 절차를 동화 하는 것이다. 이에 본 가이드는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방법을 위한 기술서를 제공함으로서 GSA와 A/E 모두에게 공간측정에 있어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상 시키고 설계 업무에 보다 많은 작업시간을 투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공간 프로그램 BIM 요구조건

현재 OCA는 BIM모델을 기준 설계문서의 제출물에 대한 보충 자료로서 여겨지고 있다. BIM모델 제출시 IFC 2X 형식 이상의 파일 또는 BIM 저작 소프트웨어의 고유 형식으로 된 파일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다. IFC BIM모델은 반드시 아래의 개체 유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건물
 - 건물층
- ▶ 공간
- ▶ 벽
 - 입구
 - 출입문
 - 창문
- ▶ 슬래브
- ▶ 기둥
- ▶ 보

이러한 개체 유형들은 BIM 저작 소프트웨어의 개체유형에 맞는 도구로 생성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벽은 벽툴(tool)을 사용하여 생성하여야 한다. IFC BIM 모델의 추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GUIDs라는 개체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으며, BIM 저작 소프트웨어가 초기의 GUIDs를 유지하는 옵션을 제공한다면 이 옵션은 항상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모델링의 정확도는 3mm 이하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 공간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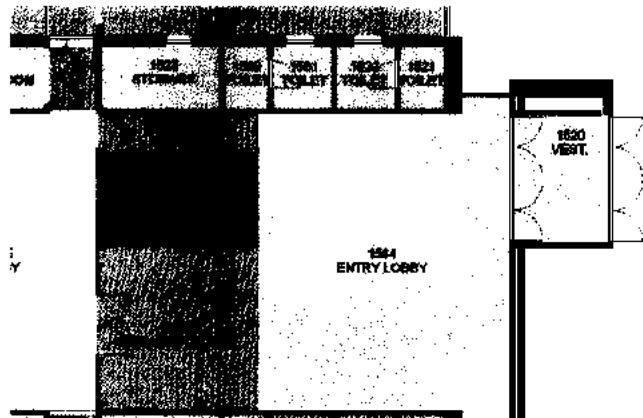
CSA에서 0.84m²(9 s.f.)이상 되는 영역에 대하여 공간을 정의 하여야 하며, 정의된 공간에 대한 필수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GSA 공간정보의 요구사항

GSA 요구항목	내 용	설 명
공간 이름	OFFICE	PBS BAG을 참조하여 승인된 이름 사용, 실제 공간사용자와 정보는 추가입력
공간 번호	num	모든 공간에 대하여 고유 ID 사용
용도 이름	GSA	공간에 대하여 특정 사용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 조직이름을 입력화면 맨날 것을 또는 속별 용도 공간이면 각각 별도 공중, 출입 공중으로 입력
GSA STAR 공간 유형	TTO (Tva, Office)	PBS BAG을 참조하여 입력, SDM의 CAFM 내에서 활용
GSA 면적	114.27m ²	사람이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면적, 벽과 인접지수와 그 안에 포함된 가동면적을 합 수치
'Full_Floor_Space' 이름	GSA_DesignGross_Floor_B1	GSA 전체 건물 면적에 해당되며, 외벽의 바깥쪽 면을 기본으로 측정

공간 이름 및 용도 이름의 경우 BIM 분석 도구로 검사 후 PBS BAG(Public Building Service Business Assignment Guide), ANSI/BOMA(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에 정의된 ANSI/BOMA 공

간 카테고리로 맵핑된다. GSA STAR(System for Tracking and Administering Real-property)공간 유형은 GSA의 공간 데이터 관리 팀 (SDM)의 CAFM(Computer Aided Facilities Management)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SDM의 공간 분석 보고서로 제출되며, 추후 공간계산(기용면적, 임대면적 등)을 바탕으로 한 임대수익 계산의 기초로 활용된다. 공간에 관한 요구정보는 정의된 공간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입력 되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면적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특히 STAR 공간 유형과 같은 정보는 자산관리의 중요한 공간 데이터로서 그 의미가 크다.



Space Number	Space Name	Occupant Organization Name	GSA STAR Space Type
1101	PIPE SHAFT	Building Common	CRV
1102	OFFICE	US Marshals Service	TTO
1104	LOBBY	Building Common	CRH
1105	BATH	Building Common	CST
2101	PIPE SHAFT	Building Common	CRV
2102	CUSTODIAL	Floor Common	CST
2104	WOMEN	Floor Common	TLT
2105	MEN	Floor Common	TLT
3101	PIPE SHAFT	Building Common	CRV
3102	CUSTODIAL	Floor Common	CST
3103	OPEN TO STAIR	Floor Common	CRV
3104	WOMEN	Floor Common	TLT
3105	MEN	Floor Common	T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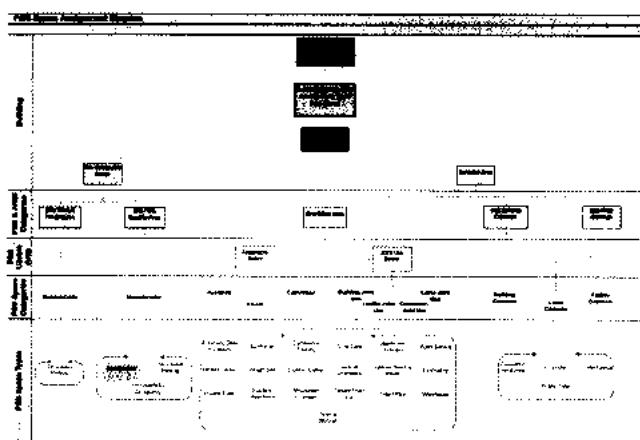
(그림 2) 공간 분류 및 공간 데이터의 예

2.3. 공간 측정을 위한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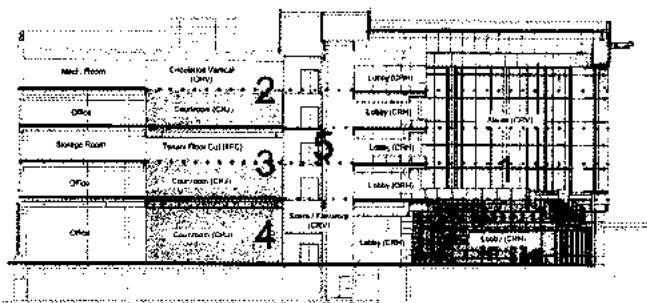
GSA는 공간의 이름 및 분류 체계, 면적산정 기준 등에 대한 표준으로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를 제공하고 있다. PBS는 공간 측정을 위한 표준으로서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는 사무실 건물의 면적 측정을 위한 ANSI/BOMA 표준 방법(ANSI/BOMA Z 65.1 -1996)을 기초로 하고 있다. BOMA International은 1915년 오피스건물 면적산출 기준 (Standard Method of Floor Measurement for Office Building)을 개발하여 1955년 미국 국가 표준(ANSI)으로 인정되었다. 1996년 6월에 현재 버전인 'Standard Method for Measuring Floor Area in

Office Buildings (ANSI/BOMA Z65.1-1996)'을 출판 하였으며, 오피스빌딩 분야에서 미국 국가 표준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BS의 공간의 분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각 분류에 포함된 하위 내용들은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에 정의 되어 있다. 즉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공간 분류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1) Room Name: 총 108개의 실명을 규정하고 있다.
- 2) PBS(STAR) Space Type: 총 35개의 유형 정의, PBS공간 범위에 맵핑시 공간유형의 정의를 참고하여 분류. 3글자 약어로 표기 한다.
- 3) PBS Space Category : ANSI/BOMA 범위에서 세분화 되어 15개의 공간 카테고리로 분류
- 4) ANSI/BOMA Category: 5개의 범주로 나뉘며 사용가능면적과, 건물 공용면적, 층별 공용면적, 수직통로 면적 및 PBS 특수면적으로 분류 된다.



(그림 3) PBS 공간 분류 세계도



(그림 4) 공간 분류 방법의 예

위 <그림 4>는 공간 분류 방법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임대 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공간(Non Assignable Spac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참고하기 바람) (1)의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수직으로 오픈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1층은 공간이름 기준 따라 최하층 1층은 로비(Lobby)로 정하고 위 4개층은 아트리움(Atrium)으로 정의 된다. 로비의 경우 건물 공용(Building Common) 구역에 해당되므로 PBS 공간 유형(Space Type)의 CRV(Circulation Horizontal)로 분류 된다. 이는 다시 상위 분류

인 PBS Space Categories에서는 Building Common(건물 공용)에 해당되고 PBS & ANSI Categories에서 역시 건물 공용으로 분류된다. 이는 최종 임대 면적으로 분류 된다. 나머지 4개층에 대해서는 PBS & ANSI Categories의 Vertical Penetration(수직 관통)으로 분류 되어 임대 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3)의 경우 특히 3층과 5층의 경우 근접한 공간에 따라 PBS 공간 유형이 다르게 정의 되고 있다. 즉 공간의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 진다. PBS의 공간 분류 특징은 공간에 관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전용 여부에 따라 상황에 맞게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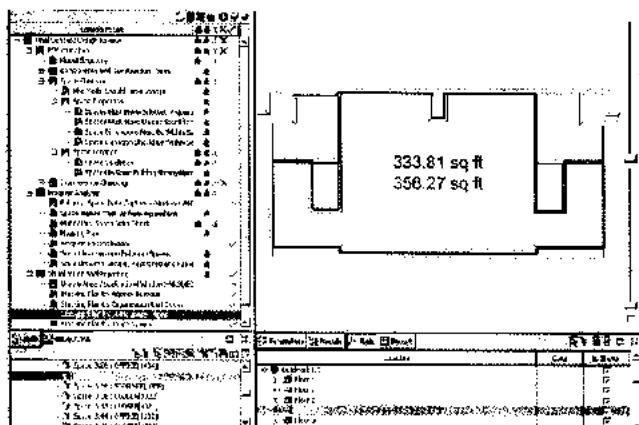
또한, 공간 경계에 대한 기준도 함께 설명 하고 있으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도 포함하여 설명 하고 있다. 그 밖의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에는 OCA와 협력 하여 정의하거나 분류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5>은 PBS Space Type과 Space Category와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 5) PBS Space Type과 Space Category의 관계 매트릭스

2.4. 분석 규칙

앞서 기술한 PBS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의 기준에 따라 각각 공간 이름 및 유형을 맵핑하고 IFC BIM 및 BIM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공간을 측정하고 평가 한다. IFC BIM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Solibri Model Checker(이하 SMC)이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 BIM 모델 구조의 완벽성 및 무결성을 검사한다.
- 정보 모델 구조는 IFC BIM 규정을 기준으로 검사한다.
- 모델의 개체 및 속성은 GSA BIM Guide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검증한다.(예, 공간이름, 실 고유 번호 등)
- 공간 개체가 주변의 벽과 틈이나 겹침 없이 잘 정렬되었는지 검사한다.
- 설계 프로그램 평가
 - GSA의 주택 계획 또는 건물과 관련된 요구 조건을 공간 프로그램 기준으로 평가한다.
- ANSI/BOMA,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 및 GSA BIM Guide를 기준으로 다양한 매트릭스를 계산, 문서화 및 시각화 한다.



(그림 6) GSA실계 면적 및 GSA 사용 가능 면적의 시각화 분석(Solibri Model Checker)

GSA는 ANSI/BOMA, PBS Business Assignment Guide에 정의된 기준으로 BIM 분석 규칙을 제정 했다. 이러한 규칙을 토대로 공간의 대한 분석을 실행 한다. 아래 표는 BIM 분석 규칙에 사용 된다.

(표 3) BIM 공간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규칙

분석 규칙	내용
• 공간 사용 가능 면적	공간 지도메트리, 벽 및 공간을 둘러싼 공간을 기준으로 정의
• 공간 기본 임대 가능 면적	총 면적 비율 • 공간 사용 가능 면적
• 공간 금내 사용 면적	건축 RU 비율 • 공간 기본 임대 가능 면적
• 층 전체 면적	모든 데, 거주 및 공간을 포함한 총 바닥 면적. GSA 층 전체 면적
• 층 전체 측정 면적	한 층 전체 공간의 총 사용 가능 면적. 외벽은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층 수직 관통 면적	한 층에서 모든 수직 관통 공간이 총 사용 가능 면적
• 층 건물 용통 면적	한 층에서 모든 건물을 용통 공간이 총 사용 가능 면적
• 층 사용 가능 면적	한 층에서 모든 사용 가능한 면적. GSA 층 사용 가능 면적
• 층 금대 가능 면적	총 건체 측정 면적 - 층 수직 관통 면적
• 층 유통 면적	총 임대 가능 면적 - 층 사용 가능 면적
• 층 BU 비율	총 '금내 사용 가능 면적' / 층 사용 가능 면적
• 건물 임대 가능 면적	건물에서 모든 사용 가능 면적. 건물, PBS 고유 공간 및 건물 공동 공간의 총 사용 가능 면적
• 건물 유통 면적	건물에서 모든 건물 공동 면적 공간의 경계 기준 임대 가능 면적
• 건물 RU 비율	건물 전체 가능 면적 / 건물 임대 가능 면적 - 건물 공동 면적

마무리

GSA는 3D, 4D 및 BIM 기술을 전략적, 점진적으로 채택하고 확장하고자 하며, 데이터 모델을 위한 지속적인 개방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GSA의 3D-4D-BIM 프로그램은 상향식 접근 방

법과 하향식 접근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품질, 정확성,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입증한 기술 구현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설정한다. 국가 3D-4D-BIM 프로그램이 취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GSA 내의 명확한 프로젝트 영역 비즈니스 요구 파악,
- 2) 가능성 있는 시험 프로젝트 파악,
- 3) 업계, 벤더, 컨설턴트 및 학계와의 상호작용 및 협업을 통해 기술 시연,
- 4) 표준화 및 최선의 관행 촉구,
- 5) 완벽한 정보 교환이라는 높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최근 건설업계의 BIM 도입 속도는 수작업 시대에서 CAD작업으로 변화하는 지난 15년에 비해 약 3배정도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Dennis J. Neeley, BIM1.0 BIM2.0 BIM3.0 Wherere are you?, AIA Conference 2009) 정보화 시대인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정보 수집 및 교류 능력을 바탕으로 BIM으로의 전환은 지난 CAD 시대보다 훨씬 신속한 전개양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높아진 대응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BIM도입을 결정한 정부 기관 및 관련단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도 BIM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즉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정에 예견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BIM의 조속한 도입과 제도적 정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BIM의 위험한 실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며, 이를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GSA의 BIM도입에 대한 전략과 가이드라인은 매우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어 다음호에서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에서 개발한 Nation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Standard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 본 연재는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위탁 시행한 건설기술혁신사업(과제번호 : 06첨단융합E01)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우리들 모두의 축제

Festival for All of Us

이규환 / 정회원, 아크밸리 건축사사무소
by Lee, Kyu-hwan, KIRA
전시사업위원회 전문위원

‘2009한국건축산업대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동료건축사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사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영역이 서로 달라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계획을 알리고 향후 업무협조를 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 개막부터 5일간의 행사 후 폐막이 될 때까지 전시장을 들고 또 들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한 순간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건축사들의 관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발이 붓고 피로가 누적되어 갔지만 행사 기간 내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축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할애한 많은 건축사분들께 보다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각자의 업무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들로 보다 가득 채웠어야 했습니다. 그러

나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저희들의 능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기불황을 비롯한 많은 주변요인들로 인해서 불안감에 몸을 움츠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만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려 동료 건축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시 및 교육준비를 함께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로혁명 ;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첫째, 주제관 설치를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



로 시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발전하여 고하고,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최초로 100%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구현한 농토건축사님께서 훌륭히 참여를 결정해 주셨고, 광역된 모든 수고들 도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새로운 접근법에 따른 에코시티 계획방법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건축사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시내용으로 충분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전시 하나로 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둘째, 불필요한 전시제품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우리 건축사들의 명예에 멂칠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다 유익한 전시공간을 만들려는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일부 전시제품이 전시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는 했지만 적절한 배치계획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전시와 더불어 교육 및 세미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품강연회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공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세미나의 주제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발표 및 토론이 가능한 참여의 장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여타의 전시회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건축사들의 높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전시민의 전시회가 아니라 진정한 전시교육컨벤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시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소득들도 많았습니다.

첫째, 국내 최고의 전문전시기획사들이 우리 전시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올해는 비록 약속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 시간적인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건축사 및 협회의 전문성

과 그들의 전시기법이 합쳐지자면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전시회는 그 어떠한 외부행사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건축대학 및 건축후배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물론, 국내 대표적인 건축연구기관이 우리의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연구결과발표를 우리의 전시기간동안에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는 보다 살아있는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가치가 있는 전시회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미 농촌건축대전이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각종 중요한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제대로 반석 위에 오르기까지는 건축사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손님으로 문을 두드린 전시회 참여업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선별하시어 좋은 제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전시회는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품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그 권한을 전시회 참여업체에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건축사 여러분들의 참여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가 주인인 행사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건축사 회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전시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회, 우리가 건축의 최고 전문가임을 반천 하에 드러낼 수 있는 전시회. 모두가 우리를 부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전시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를 모두의 소중한 축제공간입니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

이사회

제9회 이사회

2009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공제규정 개정의 건, 「통합이행및운영규정」 개정의 건,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건 조정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 안 : 공제규정 개정의 건
- 보증업무 등이 확정된 이후에 규정을 좀 더 보완하여 내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 안 : 「통합이행및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3호의 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건 조정의 건
- 임시총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제1호의안 제2호의안 제3호의안	제1호의안 제2호의안 제3호의안
통합정관(안) 및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	공제사업 출자금 지원의 건 통합정관(안) 개정의 건

■제3회 임시이사회

2009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9월 8일 오후 5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09년

도 제1회 임시총회 변경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 안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변경의 건
⇒ '2009년도 제1회 임시총회 ('09.9.10)의 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4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

제4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10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 단체통합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단체통합에 관한 공청회 개최의 건
- 공청회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9 한국건축산업대전 개막식 이후 별도 협의하기로 함.
※ 별도 협의 결과(장소 : 코엑스 1층 VIP실)
- 수도권 공청회는 일정대로 개최하되, 나머지 광역별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 해당 건축사회장 책임 하에 회원 합의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3회 건축사 지위향상을 위한 TF팀

제3회 건축사 지위향상을 위한 TF팀 회의가 지난 9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계발주제도 개선추진에 관한 건과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관한 건,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1호 : 설계발주제도 개선추진에 관한 건
 - 국의 설계발주제도 관련 자료
 - ▷ 미국자료 : 김소라 위원이 Auri에 전날 하여 내용요약을 요청하기로 함.
 - ▷ 프랑스자료 : 제목과 목차를 번역 후 내용 파악하기로 함.
 - '인포 21C' 를 통한 입찰 통계자료
 - ▷ 2008년도 건축관련 설계용역 입찰 자료를 구분 정리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관한 건
 - TF팀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협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함.(이동우 위원 : 목적 정리)
 - 제3호 : 건축사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건
 - 3단체 통합협회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건축계 각계 인사들의 멤버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설계 표준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함.

■ 공제사업 제1소위원회

공제사업 제1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 영역" 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1호 :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 영역" 등에 관한 건
 - 손해배상 공제상품의 공제요율은 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의 5가지로 대체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시설군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인 14가지로 소분류하고,
 - ▷ 용역금액별로는 5천만원이하, 5천만원 ~1억원, 1~3억원, 3~5억원, 5~10억

원, 10~30억원의 6가지로 분류

- ▷ 다만, '책임감리' 중 감리, 엔지니어링 조합과 업무종복이 되는 공정('관람점 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 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한 공제요율을 제시받아 적용하되, 업무분류는 건축사협회에 맞도록 15가지로 소분류(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리)하여 업부종복이 되는 4가지를 적용하고, 용역금액별 분류는 5억원이하, 5~10억, 10~20억, 20~30억, 30~50억원의 5가지로 분류하도록 협의함.
- '상주·비상주감리' 와 '책임 감리' 각각의 위험률에 대하여, 재보험사는 사고발생률과 위험률을 동일하게 보아 상대적으로 사고발생률이 높은 상주·비상주감리의 요율을 높게 책정하려 하기도 있으나, 책임소재에 있어 건축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요율을 책정할 것을 협의함
- 표준공사기간은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는 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할 것을 협의함

수 있다"의 자구는 '협회에 공제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제28조의 '영수증(개산서)'는 '영수증'으로 일괄 적용하여 수정함.
- 손해배상공제업무 취급세칙 관련서식 중 제16호(손해배상공제업무일보)의 "당년공제증권실적" 항목 및 제17호(손해배상공제업무월보)의 당월공제 증권 실적" 등 일부항목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업무에 맞게 수정하도록 함.
- 이외의 손해배상공제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에 동의함.

■ 제8회 법제위원회

제8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대가지급기준 마련에 관한 건과 건축제도 현안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시 정비사업 대가지급기준 마련에 관한 건
 -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 후속조치로 설계자 선정기준과 설계대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법제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긴급 TF팀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제도 현안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에 관한 건
 - '건축설계·감리 분리문제' 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및 구조감리 요구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주거정비사업 설계대가기준 작성 TF팀

주거정비사업 설계대가기준 작성 TF팀 회의가 지난 9월 5~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기준(안)' 작성에 관한 건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설계대가기준 작성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서울시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 기준(안) 작성에 관한 건
- 등 기준(안)의 용어 정의, 설계자 선정주체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TF팀(안)을 마련하였다.

▷ 설계자의 정의 : 등록을 필한 자 → 업무 신고를 한 자

▷ 공공관리자의 정의 : 공공관리자 예시를 나타낸 부분 삭제

▷ 추진위원회 정의 : 승인반기 전, 후의 구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로 변경

> 추진위원회가 공공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설계자를 선정한 경우만 주민총회에 보고
… 추진위원회, 공공관리자가 설계자를 선정한 경우 모두 주민총회에 보고

▷ 제목변경 :

- 입찰의 방법 → 설계자 선정의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설계자의 선정

> 설계자 선정방식의 조항 순서 변경

- 가격입찰, 적격심사, 설계경기 · 설계 경기, 가격입찰, 적격심사

▷ 가격입찰방식 변경

-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서 입찰가의 평균 최저가로 입찰한 설계자

▷ 계약의 체결

- 설계자가 3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효
- 추진위원회는 3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2호 :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설계대가기준 작성에 관한 건
- SH공사의 공동주택 설계비(평당 6~8만 원)가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의 건축설계대가요율에 의한 산출값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실비 정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직접 산정하였음.
- ▷ 조건 : 300세대, 대지면적 16,500㎡, 연면적 45,000㎡, 6개 타입
- ▷ 결과 : 2,054,405,286원(외주비용은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 요율 : 현행요율 + 0.19%

■ 제4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제4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EO건축사 친환경교육과정의 전과 어린이 친환경건축 학교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CEO건축사 친환경교육과정의 건
- 교육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정하여 교육장소 등은 여전히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절하기로 함.

▷ CEO건축사 교육시간은 대표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매주 화요일 19:00~22:00로 변경하기로 함.

▷ 학사세칙은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참여률 높리고 3주 이상 결강 시 퇴교조치 하며 차기 수료도 불가하도록 함.

- 제2호 : 어린이 친환경건축학교의 건
- 어린이 친환경건축학교의 대상과 일정은 기존안대로 하고, 예산 등 세부사항은 우선 확정하여 실시한 후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인 받도록 함.

▷ 장 소 : 코엑스 327호 세미나실

▷ 명 칭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 포럼

▷ 발표내용 :

- 기조연설: 이경희 교수
- 제1주제: 기후와 건축(연세대 이승복 교수)

- 제2주제: 친환경 건축의 설계기법과 적용사례(최정만 건축사)

- 제3주제: 한옥의 환경 친화성(한남대 한필원 교수)

- 제4주제: 건축설계에서의 BIM 적용과 정(Autodesk Korea)

▷ 사회자 : 신경선 건축사(친환경위원회 위원)

▷ 포스터 선정 : 신경선위원회가 최종 수정한 포스터를 사용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위원회와 친환경아카데미 교류의 건

- 친환경아카데미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위탁업무이고, 본협회에 관련 위원회가 있으므로, 친환경아카데미의 협의안건이 있을 시 본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함.

- 친환경아카데미의 운영위원회에 친환경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

■ 제8회 정책위원회

제8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건축문화 60년' 관련 국가건축위원회 주제와의 연계방안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의 건과 발주제도 관련 정책위 대응방안에 관한 건, 설계/감리 분리관련 정책 위 및 협회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건, 각 위원회 추진사항 보고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세미나에 관한 건
- 친환경 세미나의 명칭 및 기조연설자, 발표자 등의 변경사항 및 포스터, 초청장 선정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일 시 : 09년 10월 8일(목) 14시

▲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 건축문화 60년' 관련 국가건축위원회 주제와의 연계방안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의 건

- '한국 건축문화 60년' 다큐제작을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포럼으로 과제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축문화 기반 조성과 함께 건축 가치에 대한 국민 및 관련 전문가 소통의 계기로 활용코자 함.
- 제2호 : 밭주제도 관련 정책위 대응방안에 관한 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안된 내용을 기초로 해당 TF팀(건축사권의증진위)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위원회에서 더하지 않기로 함.
- 제3호 : 설계/감리 분리관련 정책위 및 협회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건
- 이번 기회에 협회차원에서 공청회, 혹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정확한 사실 전달과 홍보가 필요하며, 통합되고 정리된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제1호 : 각 위원회 추진사항 보고에 관한 건
 - 각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위원회별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길 희망하며, 각 위원들이 기분담한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겨 주기를 촉구함.

최영집 회장, 2009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전국대회 초청 참석



FIKA-JIA 공동화의상에서 기념촬영_오른쪽부터 신춘규 이사, 최영집 회장, 유타카 이주에 JA회장, 도쿄히코 이카다 JA 사무국장



JIA 전국대회 개회식장에서_오른쪽부터 신춘규 이사, 최영집 회장, 이상평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무이즈 콜스 JIA회장, 이근창 국제위원회 전문위원(APCASIA 직전회장), 7·에망 시우 UIA 직전회장 내외, 김창수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은 지난 10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2009년도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우리 협회와 JIA는 지난 2003년 건축전문 성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활발한 인적교류와 지역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과 신춘규 이사, 이근창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아시아건축사협의회 직전회장)이 공식대표로 초청을 받아 JIA 전국대회 개회식, FIKA-JIA 공동 회의 등 주요행사에 동참했다.

양단체는 농 대회 기간 중, 교류협정서의 개정체결 추진에 합의하고, 오는 2011년 도쿄에서 JIA의 주최로 열리는 제24차 세계건축 사연맹 총회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009 건축의 날' 행사 개최



'2009 건축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25일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대한건축협회 최영집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김창수 회장,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 등 정부인사 및 건축관련 단체장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치사에서 "건축계의 큰 행사인 건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 해 동안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훌륭한 건축문화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에서는 이영희 회립건축 회장, 김외곤 태영건설 대표, 김영호 일신방직 대표 등 3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영희 회장은 40여 년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건축인 51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건축의 날은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자존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일로 택하여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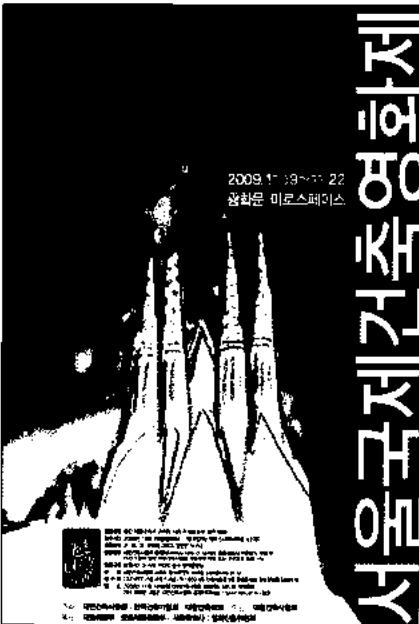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건축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2009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식이 10월 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한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서울남산국악당」,



건축계소식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및 건축 UCC 공모전 개최



「부띠끄 모나코」, 「반포 577」설계자와 「은평 뉴타운 현대 I PARK」시공자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본상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복합 단지」, 「금호아시아나 본관」, 「집운현」설계자와 「의정부 녹양 휴먼시아」시공자는 국무총리상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반 및 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철암, 새 웃을 입다_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으로」의 유성문, 권지훈, 최재영 팀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재단법인 목천 김정식 문화재단」을 설립, 친환경 분야에서 왕성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정식 이사장이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137점, 계획건축물부문 527점 등 총 664점이 응모했으며, 이를 수상작들은 시상식과 아울러 동 장소 전시장에서 10월 9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궤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제1회 서울 국제 건축 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가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건축의 대국민 소통」이라는 주제 하에 서울 광화문 미로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처음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며, 건축사가 대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태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고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콜하스 Rem Koolhaas: A Kind of Architect〉,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 Louis Kahn〉, 〈마천루 The Fountainhead〉, 〈프랭크 케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등 5편~6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UCC 건축공모전과 영화감독 및 건축사의 강연회가 계획됐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의 부대행사인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건축 UCC 공모전은 「공간 체험」이라는 공모 주제로 건축과 관련된 자유 주제의 순수 창작 작품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 까지 공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3~5분 이내의 avi 포맷으로 제작하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02-3415-6800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 작동성展

Modern reactions in Korean Architecture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 작동성
2009.11.24 - 11.30
Opening 11.24 pm3:00

근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건축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한국 건축의 모더니즘 작동성 (Modern reactions in Korean Architecture)」 전이 오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관에서 국제 심포지움과 함께 열린다.

한양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 건축의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건축문화대상 등 각종 수상작품을 비롯해 근대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도시 건축 및 풍경을 보여줌으로서 한국건축의 본질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전시 기간 중 계속되는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에서 활동되고

있는 모더니즘의 적응성, 한국 건축의 주요작 동성과 지역특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명 함으로서 21세기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새로 운 달음을 형성할 것이다.

2009 대전건축문화제



대전건축문화제가 '미전·사람·건축' 을 주제로 11월 19일(목)부터 11월 23일(월)까지 대전광역시청에서 개최된다.

건축3단체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대전광역 시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건축문화제집행 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전건축문화제는 2009년 대전광역시의 시 출범 60주년과 광역시 출 범 2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시민 축제이다.

제 1주제인 '대전/어제'는 대전 도시건축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대전 근대건축투어'와 '근대건축 모형만들기' 두 행사가 준비됐다. 근대건축투어는 대전시청에서 집결하여 구도심의 근대건축과 시청을 투어하며 퀴즈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근대건축에의 관심을 유도하며, 모형만들기는 종이모형디자이너인 장행순씨에게 근대건축 2점을 의뢰하여 쉽고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 2주제인 '사람/오늘'은 대전 도시건축의 오늘을 즐기자는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으로서 '대전오늘 시민사진전'과 '대전건축 학생작품전' 행사가 준비됐다. 시민 사진전은 '대전의 사랑하는 사람들, 활기찬 대전, 우리가 모르는 대전, 살기 좋은 동네 대전, 감동을 주는 대전 건축물'의 주제 중 택일하여 촬영해 반드시 대전광역시 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11월 13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학생작품전은 대전 및 인근 11개 대학 도시, 건축·실내건축 관련 13개 학과의 대학생 70여 명이 대학별 우수작품 초대형식으로 참여하며,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특별관도 마련된다.

제 3주제인 '건축/내일'은 대전 도시건축의 미래에 대해 '대전 도시미래 집담회'와 '대전 퓨처풀리' 두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의 도시미래를 꿈꾸게 한다. 대전도시미래 집담회는 자체,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대전 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탐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 퓨처풀리'는 대전의 교수와 건축사단의 공동작품으로 대전시청 남문·잔디광장에 실현적인 건축구조물인 풀리를 세워 시민들의 정겨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지원행사로 친환경디자인공모전 전시회, 3차원 영상 체험행사,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도시디자인포럼 등을 개최한다.

• 문의 : 대전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 042-534-0570, www.daf2009.or.kr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개관전

인천광역시, 이탈리아 밀라노시, 피에라인 천전시복합단지(주)가 주최하고 CONCEPT · 월간 MARU가 주관하는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 개관전이 오는 10월 6일부터 2010년 7월 11일까지 약 9개월 간 인천 운서동에 위치한 트리엔날레 인천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일곱 가지 집념, 밀라노 디자인 시티 블루 어반 매트릭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 'Nature, Art & Science' 등 세계 디자인을 움직이는 이탈리아 명품 디자인 20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문의 : 트리엔날레 인천
www.triennaleinchcon.com, 032-425-1762

제4회「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 작품 공모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는 국내 건축문화에 생태건축의 이념 확산 및 친환경 패러다임이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개최한다.

수상부문은 설계부문/기술부문/정책부문/기타부문 등으로 작품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수상 발표는 11월 13일이다.

• 문의 :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02-501-4053

KCC창호,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1위 수상



KCC 창호가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 청세트 부문 1위 수상하여, KCC창호본부 김자재총괄 최상수 상무원장에게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KCC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는 '2009 한국사용품질지수(KS-QEI)' 청세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사용품질지수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수연구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모델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 및 제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이다. 이는 소비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므로 특히 조사 신뢰성이 높은 지수로 평가된다.

KCC는 지난 1994년 창호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치열한 국내 창호시장에서 30% 가량의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시공 편의성을 부여한 기능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관리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KOC 창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에너지 위너상 2000'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제5회 에너지 혁신 대회에서 기술개발 조직의 에너지 기술 전략, 혁신 프로세스, 생산 제품의 정부고시 기준 대비 단열?기밀 성능의 우수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2002 대한민국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올리기도 했다.

KOC는 고급 PVC 밸코니 창호인 '프라임'을 비롯하여 밸코니 확장에 최적화 된 밸코니 이중창 '프라임 이중창',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압 성능을 확보한 초고층용 시스템창호 '슈퍼원' 등 창호와 관련된 전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외관 차별화를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라임 이중창 분할식 248, 커튼월형 PVC 시스템 창호 출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색상을 창호 외관에 부여할 수 있는 PVC용 볼소도료를 창호에 적용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중심의 주택 질향상을 위하여 KOC 기능성 유리와 의 시스템화 및 고단열 창호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다.

또한 '창호 이맥스 클럽(E-MAX CLUB)'은 전주공장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창호 대리점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가·사공 솔루션을 제공,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별 시공품질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시장 내 최고 품질의 제품 공급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안영배의 한국건축 읽기_흐름과 더함 의 공간



안영배 저 | 408쪽 | 도서출판 다른세상

자연채광 디자인



(사)일본건축학회 편, 김정태·김곤·
김원우 역 | 252쪽 | 기문당

한국의 전통건축은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권역 국가들의 건축들에 비해 세계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낀 저자는 '한국건축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 통도사,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불국사, 범어사, 봉정사, 도사서원, 창덕궁, 부용지 정원, 종묘, 병산서원 등 각지의 전통건축들을 오랜 시간동안 직접 답사하고 연구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출간됐던 관련도서들을 분석·보완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자가 특별히 선호했던 전통건축의 몇 가지 주제를 보완하고 소제목에서 공간 특성에 대한 글 표현을 좀 더 다듬었다. 글 내용도 그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사진과 도판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 문의 : 02-739-8782

신간 '자연채광 디자인'은 자연채광에 관한 최신 기술과 상황에 맞는 설계 자료를 정비함과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고, 자연채광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근본적인 의의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자연채광시스템들은 기존 건물이나 신축건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고 그 효과가 검증된 자연채광시스템들이 조명이론과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자신이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에 어떤 자연채광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의 : 02-2295-6171

2009년 건축허가 현황(8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용도별

구 分		2008년	2009년	증가률	2008년	2009년	증가률
계	동 수	17,109	16,319	-4.6%	154,712	134,027	-13.4%
	연면적	8,321,090	7,701,193	-7.4%	77,646,270	55,012,118	-29.2%
주거용	동 수	5,850	5,797	-0.9%	52,299	43,953	-16.0%
	연면적	2,765,946	3,154,749	14.1%	22,315,489	16,167,150	-27.6%
상업용	동 수	5,322	4,877	-8.4%	48,873	41,440	-15.2%
	연면적	2,335,471	1,846,882	-20.9%	23,316,555	15,312,952	-34.3%
공업용	동 수	1,737	1,565	-9.9%	16,344	12,043	-26.3%
	연면적	1,346,839	851,079	-36.8%	12,699,500	6,607,170	-48.0%
교육및 사회용	동 수	1,161	1,150	-0.9%	9,063	9,624	6.2%
	연면적	785,550	722,438	-8.0%	8,327,402	7,521,583	-9.7%
기 타	동 수	3,039	2,930	-3.6%	28,133	26,967	-4.1%
	연면적	1,087,284	1,126,045	3.6%	10,987,324	9,403,263	-14.4%

■ 구조별

구 分		2008년	2009년	증가률	2008년	2009년	증가률
계	동 수	17,109	16,319	-4.6%	154,712	134,027	-13.4%
	연면적	8,321,090	7,701,193	-7.4%	77,646,270	55,012,118	-29.2%
철근 철골조	동 수	14,397	13,719	-4.7%	131,284	111,300	-15.2%
	연면적	8,101,776	7,499,633	-7.4%	75,716,804	53,252,420	-29.7%
조적조	동 수	1,838	1,725	-6.1%	16,250	15,177	-6.6%
	연면적	149,378	136,045	-8.9%	1,352,560	1,194,029	-11.7%
목 조	동 수	846	784	-7.3%	6,564	7,098	8.1%
	연면적	67,517	60,255	-10.8%	539,552	535,425	-0.8%
기 타	동 수	28	91	0.0%	614	452	0.0%
	연면적	2,419	5,260	0.0%	37,354	30,244	0.0%

■ 시도별

구 分		2008년	2009년	증가률	2008년	2009년	증가률
계	동 수	17,109	16,319	-4.6%	154,712	134,027	-13.4%
	연면적	8,321,090	7,701,193	-7.4%	77,646,270	55,012,118	-29.2%
수도권	동 수	6,296	5,505	-12.6%	57,029	41,404	-27.4%
	연면적	4,261,914	3,146,143	-26.2%	38,440,413	23,115,322	-39.9%
서 울	동 수	1,106	809	-26.9%	10,249	6,045	-41.0%
	연면적	971,306	502,849	-48.2%	10,649,226	4,500,926	-57.7%
인 천	동 수	802	699	-12.8%	5,458	4,781	-12.4%
	연면적	568,961	343,353	-39.7%	3,691,479	2,573,114	-30.3%
경 기	동 수	4,388	3,997	-8.9%	41,322	30,578	-26.0%
	연면적	2,721,647	2,299,941	-15.5%	24,099,708	16,041,282	-33.4%
지 방	동 수	10,813	10,814	0.0%	97,683	92,623	-5.2%
	연면적	4,059,176	4,555,050	12.2%	39,205,857	31,896,796	-18.6%
부 산	동 수	433	505	16.6%	3,885	3,438	-11.5%
	연면적	170,859	267,393	56.5%	2,242,513	1,686,595	-24.8%
대 구	동 수	342	334	-2.3%	3,655	2,748	-24.8%
	연면적	117,623	118,185	0.5%	2,255,253	1,617,239	-28.3%
광 주	동 수	260	246	-5.4%	2,487	2,031	-18.3%
	연면적	111,235	115,647	4.0%	1,427,922	1,326,780	-7.1%
대 전	동 수	286	316	10.5%	2,412	2,024	-16.1%
	연면적	346,941	158,234	-54.4%	1,916,342	1,071,128	-44.1%
울 산	동 수	371	330	-11.1%	3,516	2,590	-26.3%
	연면적	177,451	363,966	105.1%	2,452,086	1,160,662	-52.7%
강 원	동 수	956	1,003	4.9%	9,063	8,988	-0.8%
	연면적	195,352	255,862	31.0%	2,416,255	2,767,938	14.6%
충 북	동 수	976	993	1.7%	9,416	8,375	-11.1%
	연면적	365,124	775,631	112.4%	3,428,082	3,058,611	-10.8%
충 남	동 수	1,443	1,302	-9.8%	11,502	10,353	-10.0%
	연면적	654,360	845,405	29.2%	5,012,470	4,623,138	-7.8%
전 륙	동 수	1,243	1,062	-14.6%	9,025	9,089	0.7%
	연면적	302,685	306,963	1.4%	2,893,151	2,895,191	0.1%
전 남	동 수	1,138	1,392	22.3%	10,509	12,189	16.0%
	연면적	286,543	470,634	64.2%	2,749,792	2,700,296	-1.8%
경 북	동 수	1,656	1,563	-5.6%	14,864	14,776	-0.5%
	연면적	627,215	358,791	-42.8%	4,893,720	3,954,576	-19.2%
경 남	동 수	1,411	1,516	7.4%	14,900	13,461	-9.7%
	연면적	491,419	449,728	-8.5%	6,600,457	4,127,643	-37.5%
제 주	동 수	298	252	-15.4%	2,449	2,561	4.6%
	연면적	212,369	68,611	-67.7%	917,814	906,999	-1.2%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9년 8월말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전체사회	인구	가구	인구	비율	인구
합 계	7,946	10	7,956	100.0%	23
서 울	2,363	3	2,366	33.9%	10
부 산	669	1	670	7.9%	9
대 구	593	0	593	7.7%	0
인 천	333	0	333	3.8%	0
광 주	266	0	266	3.7%	0
대 전	337	1	338	3.7%	0
울 산	213	0	213	2.6%	0
경 기	994	2	996	12.2%	2
강 원	206	0	206	2.6%	0
충 봉	264	0	264	3.0%	0
충 농	284	3	287	3.1%	0
전 봉	276	0	276	3.0%	0
전 농	203	0	203	1.9%	0
경 봉	388	0	388	4.6%	1
경 농	437	0	437	5.0%	1
제 주	120	0	120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회원수	5,391	2,555	87	8,033
비율	67.11%	31.81%	1.08%	100%
사무소수	5,255	1,936	-	7,191
비율	73.08%	26.92%	-	100%

PLAZA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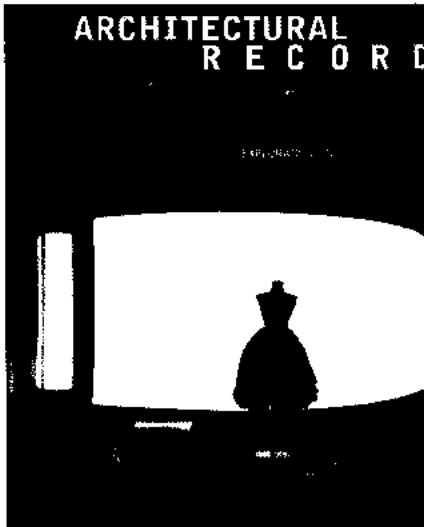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는 Building Types Study 982 섹션을 중심으로 2009년 Record지가 선정한 인테리어들, Ricardo Carvalho + Joana Vilhena의 Museum of Design and Fashion, Lorcan O'Herlihy Architects/Kanner Architects의 Performance Capture Studio, SANAA의 Derek Lam Shop, TammerHecht Architecture의 The Energy foundation, Sebastian Mariscal Studio의 Pio, Pio, John Friedman Alice Kimm Architects의 Graduate Aerospace Laboratories at Caltech를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Two architects look back over half a century'라는 주제 아래 쓰여진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Kitchen & Bath Portfolio라는 섹션에서는 개성있게 디자인된 주방과 욕실공간에 대해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 Books

- Ten Canonical Building '950–2000: by Eisenman, edited by Ariane Lourie, Rizzoli, 2007
- Nurturing Dreams: Collected Essays on Architecture and the City: by Fumihiko Maki, MIT Press, 2008

Princeton 대학에서 진행된 강좌들이 바탕을 두고 쓰여진 Ten Canonical Building은 건축가와 교육자로서 Peter Eisenman의 성공의 중심이 되어왔던 평면, 단면, 그리고 액소노매트릭 도면의 분석에 대한 종결을 지어준다. 난해하게 글쓰기로 악평이 나 있는 Eisenman의 글이 Ariane Lourie에 의해 신중하게 편집되었으며 Andrew Heid의 완벽한 디자인은 Eisenman의 사고를 읽기 쉽게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Fumihiko Maki의 'Nurturing Dreams'는 독자들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독자들의 마음속에 머무른다. 아름답게 쓰여진 이 책은 Tokyo에 기반을 둔 건축가의 50년 경력으로부터 나온 개인의 일화, 역사적인 이야기들, 직접적인 관찰, 그리고 적절한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글이 많지는 않으며 어떤 글에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사용이 잘못된 곳도 있으나 책 전체의 분위기는 마치 건축가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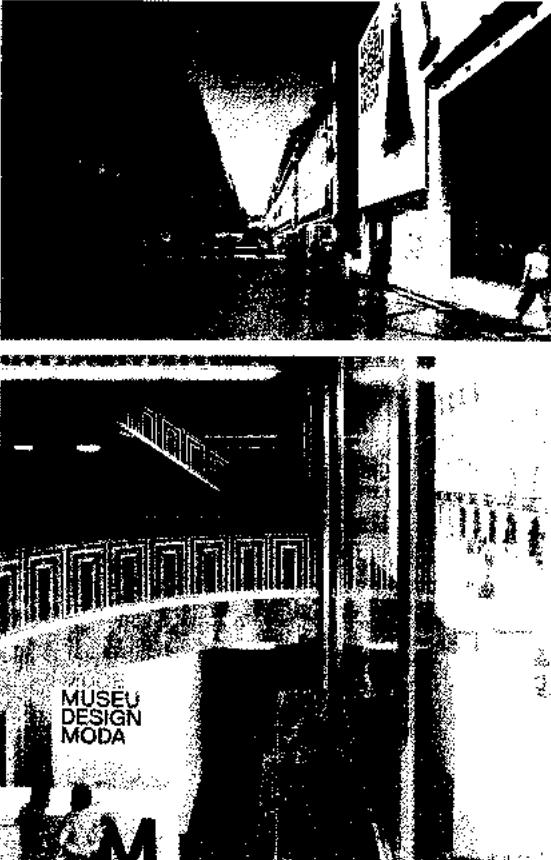
이 책의 끝부분에서 Maki는 일본 디자인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록 모든 건물이 그 시대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상적인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Museum of Design and Fashion, Lisbon / Ricardo Carvalho + Joana Vilhena

버려진 옛 은행 건물의 외파 안에 Carvalho + Vilhena는 투박하지만 섬세한 공간을 Lisbon의 Museum of Design and Fashion에서 창조한다.

Lisbon의 Museum of Design and Fashion(MUDE)는 역사적으로 보호된 은행 내부의 폐허 안에 담겨 있다. 2003년에 이 오래된 도시의 중심에 있는 50년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더딘 법적 지시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던 불법적인 해체를 시작했다.

은행 내부에 일시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하는데 있어 Lisbon 출신 건축가인 Joana



Museum of Design and Fashion

Vilhena와 Recardo Carvalho는 벽, 기둥, 그리도 줄무늬 모양의 천장과 함께 거친 상태 그대로 내부를 남겨두기로 했다.

MUDE는 3,000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시에 팔고 현재는 이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은퇴한 포르투갈 출신 사업가인 Francisco Capelo의 창조물이다.

이 박물관은 먼저 1999년에 Vittorio Gregotti의 Belém Cultural Center에서 열렸으나 2006년 다른 Capelo의 사업인 사업가 Jo Berardo와 Capelo의 큐레이터의 도움에 의해 모아진 현대 미술 컬렉션을 위해 포르투갈 정부에게 의해 공간이 양도되었을 때 그 보금자리를 잃었다. Lisbon 궁에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던 협상도 결렬되고 박물관을 위해 시에서 이 오래된 은행 건물을 얻어 다시 열리기까지 심각한 정치적 압력이 있었으며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다.

박물관장인 Bárbara Coutinho는 Vilhena 와 Carvalho에게 자금이 마련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건물을 모두 사용하기로 하는 계획하고 5층 건물의 아래 쪽 2개 층을 사용하여 일시

적으로라도 오픈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의 압박 때문에 Coutinho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설계경쟁을 무시할 수 있었고 이 두 건축가의 전시 설치물을 본 후에 이 프로젝트를 맡겼다.

Cristino da Silva에 의해 1952년에 디자인된 이 건물은 그 당시 은행의 위상에 어울리게 네오클래식 양식의 파사드로 둘러싸여 있다. 이 Silva가 디자인한 은행의 바닥은 이국적인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강철로 된 기둥. 그리고 중앙 돔과 함께 스티코로 된 천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19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의 비엔나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떠오르게 한다. Otto Wagner, Josef Hoffmann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Carbalho는 이야기 한다. 이러한 화려함 가운데 운전히 보전된 것은 기존 은행 바닥을 빙 둘러 있던 그린 마블로 된 카운터이다. 이것은 원래 은행원과 손님을 구분하기 위해 있던 것인데 현재는 새로운 설치물을 위해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베이스를 시작으로 건축가들의 조정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의해서 유도된다: 빛의 새로

운 표면과 함께 절단된 벽을 보이지 않게 하 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한된 재료들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건물의 중앙 코어와 은행의 카운터를 이음매 없고 탄력이 있는 혼합 중성체로 된 필름을 사용하여 덮는 것이었다. “이것은 리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볼 수 있는 재질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례적으로 사용하였다.”고 Carbalho는 이야기한다. 은행의 행 광램프가 뒤쪽에서 비쳐짐에 따라 선명한 멤브레인이 이 공간의 주광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의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재료들은 건축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축가들은 외부 창문이 있는 벽을 유럽 건축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천을 다섯장 겹쳐 놓아 가려버렸다. 그러나 컬리는 오렌지 색이 아닌 화이트를 사용하였다. 행광빛에 의해 뒤쪽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커튼은 그림자와 희미함 사이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이미지가 투영을 위한 스크린과 같이 보인다.

이 두 건축가의 또 하나의 디자인 모티브

는 오브젝트들을 지게차 용으로 쓰는 깔판을 흰색으로 도장하여 그 위에 전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마마자국 모양으로 구멍이 난 스터코 재질의 천장 아래에 베텔 선으로 연결된 스포트라이트를 그룹지어 설치하였으며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 경계부분을 따라 매카니컬 유닛을 설치하였다. 이 건축가들은 그들의 디자인을 MUDE의 선례로 New York의 P.S.1 museum과 Texas의 Marfa에 있는 Donald Judd's center를 인용하면 서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은행 바닥을 할迸진 상태를 그대로 채택하여 매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선례들을 능가하였다.

**Performance Capture Studio,
Lisbon / Lorcan O'Herlihy
Architects/Kanner Architects**

Lorcan O'Herlihy와 Stephen Kanner는 두 개의 낡은 비행기 격납고를 Performance Capture Studio로 개조한다.

Lorcan O'Herlihy와 Stephen Kanner는 이번 Performance Capture Studio(PCS)에 뱀이 기어가는 듯한 구불구불한 형태의 체커판을 벽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일종의 ‘strange loop’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영화나 다른 예술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간이나 공간의 일반적인 계층 구조를 파괴한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이 시작한 곳에서 끝나는 것을 뜻한다.

마치 M.C. Escher의 유명한 그림 Drawing Hands나 같은 순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스토리 라인을 가진 영화처럼 자기언급적인 ‘Strange Loop’는 종종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에 의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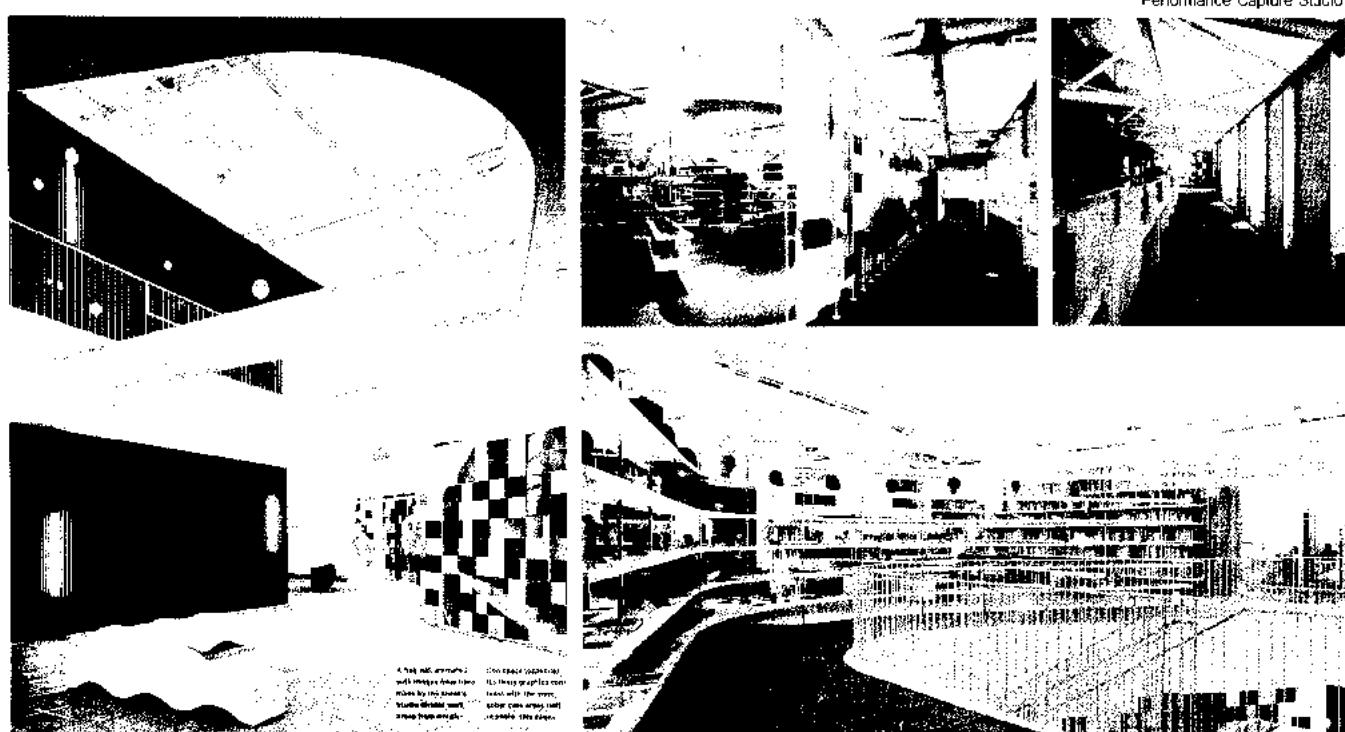
이전에 비행기 격납고 두 개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PCS 프로젝트의 규모와 클라이언트의 유명세는 Los Angeles에서 각각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두 건축가들로 하여금 함께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 거대한 규모는 건축가들로 하여금 방문객에게 두 거대한 건물을 통과해 다음 수 있도록 움직임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순한 고안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이런 규모의 공간에서 길을 잊게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라고 O'Herlihy는 이야기한다. 건축가들은 또한 실제의 액션이 애니메이션으로 바꾸어 지도록 하는 작업을 컴퓨터로 하는 수백명의 편집자와 애니메이터들의 작업을 위해 일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스크린 상에서 이미지나 색상을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작업에

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조를 그들이 각각 조절할 있도록 해야했다.”고 Kanner는 설명한다.

눈부심이나 빛으로부터 컴퓨터 스크린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지만 O'Herlihy와 Kanner는 가능한 한 내부 공간을 개방되게 하고 격납고의 활같이 생긴 구조를 노출시키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두 건축가는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필름의 이미지를 전시할 수 있는 코딩된 스틸 패널인 플래그를 가진 강철 막대로 된 유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11×17인치의 플래그는 마치 자리를 띤 비닐위에 프린트된 이미지들을 위한 팩셀처럼 보이게 하고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어떤 플래그들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코르크같은 재료로 입혀져 있어 아티스트들이 리뷰를 위해 작품을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어떤 플래그들은 단단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병합되기도 하고 또 다른 플래그들은 스며드는 듯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 개개로 훑어져 있기도 하고 회전을 하게 되어 있다.

각 격납고의 주 동선은 벽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가들이 강하고 길을 라려주는 듯한 디바이스를 만들어 내었다. 이 Strange Loop는 방문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건물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 다루는 영화의 이미지



를 사용한다. “방문객들에게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쉬웠다. 플래그만 따라가라고 말하면 되므로.”라고 O’Herlihy는 설명한다. 플래그로 된 파티션 뒤에는 깊숙하게 하기 위한 커튼이 내려져 있는데 이는 플래그 쪽에서 보면 백색, 다른 쪽에서 보면 회색으로 보인다. 이 커튼은 각 작업자들의 컴퓨터에 비춰지는 태양광의 양을 각각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준다. O’Herlihy와 Kanner는 워크스테이션을 디자인하지 않았으나 작업공간은 가능한한 개방되도록 했다. 반면 사적인 공간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유리로 만들어 주동선 길과 워크스테이션을 가진 공간들이 이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Derek Lam Shop, New York City / SANAA

SANAA의 Kazuyo Sejima와 Ryue Nishizawa는 New York City의 Derek Lam Shop에서 옷들이 지배하는 가벼운 세상을 만들어 냈다.

유명한 건축가는 잘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를 위해 Shop을 디자인해준다는 단순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떠오르게 한다: 건물 자체의 디자인이 그 안에 가득한 옷들을 지배할 것인가?

결국 예술가들은 전시된 작품을 암도하는 건축적으로 화려한 박물관에 대해 자주 불평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계에

서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상점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New York City의 Calvin Klein Shop은 미니멀리스트 건축가 John Pawson은 내용물이나 주변환경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곳에 꾸미지 않고 간소한 옷들을 위해 조용하고 기념비적이며 현대적인 요새를 창조해 내었다. Rem Koolhaas의 경우에는 New York City 옆에 있는 SoHo에 있는 2층으로 된 Prada Shop을 통해 내부의 과장된 디자인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도발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들의 아이템을 음미하라고 고무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Derek Lam Shop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패션이 공간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회사인 SANAA를 이끌고 있는 Kazuyo Sejima와 Ryue Nishizawa와 New York의 유명한 건축가 Toshihiro Oki가 함께 디자인한 이 상점은 컨테이너가 지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비록 Sejima, Nishizawa, 그리고 Oki가 Manhattan의 동쪽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최근에 함께 작업을 했으나 그들은 Ohio에 있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Art Glass Pavilion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Toledo 프로젝트에서 곡선의 유리는 둘러싸인 벽과 내부의 파티션에서 사용되었다. Derek Lam Shop에서도 투명한 아크릴을 이용하여 파티션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2002년에 회사를 만든 중국계 미국인 패션 디자이너인 Lam은 Sejima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따라서 그의 첫 상점을 SANAA에 요청을 하였다. Lam이 디자인한 옷은 여성스러움과 감

각적인 컷, 그리고 과장된 디자인이 아닌 구조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한다. 그가 디자인한 옷의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위해 SANAA는 섬세하고 내비치는 듯한 분위기를 통해 조각같은 오브제트로 옷을 전시하기로 했다.

이곳은 30초 안에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 공간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감탄에 젖게 하는 것도 잠시 방문객으로 하여금 아크릴로 된 곡면 벽에 곧 부딪히게 되거나 그 투명한 물방울 안에서 길을 잊게 할 것이다. 구매자를 위한 소룸으로서 기능을 위해 디자인 된 거대한 물방울은 사적인 공간을 위해 만들어진 금색과 은색 실로 짜여진 튼튼한 면직으로 된 커튼에 의해 단절된다. 땅콩모양으로 된 물방울 안에 SANAA는 곡선으로 된 알루미늄 선반을 집어 넣어 Lam의 구두나 핸드백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낮은 선반은 멕시코산 마호가니로 된 디스플레이 테이블과 함께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한다.

Oki가 이야기하듯 지지대 없이 자체의 무게와 형태로 지탱할 수 있는 아크릴로 된 “가구”를 설치하는데 있어 이 거대한 패널을 만들기 위해 아쿠아리움 제작자를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Derek Lam Shop은 거의 틀림없이 Toledo 파빌리온의 모조품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크릴의 형태의 발전과 빛표면은 일반적인 SoHo의 어두운 분위기에 비해서 창조적인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우아하게 만들었다. ■

